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100-000112-0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개발 기초조사 연구

2023. 10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개발 기초조사 연구

2023. 10

연 구 기 관 :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전 경 숙(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이 지 연(연세대학교 교수)

: 최 영(중앙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최 수 현(평택대학교 박사과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귀하

본 보고서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개발 기초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3. 연구 방법 및 절차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공도서관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가. 공공도서관의 개념 정의 및 기능	13
나. 취약계층 서비스의 범주와 대상	18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범위	20
2.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도서관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22
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23
나.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구	26
3. 본 연구의 차별성	29

제 3 장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부 정책 현황

1.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33
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33
나.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37
다.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	46
라.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	49
마. 보호·교정시설 아동·청소년 현황	52
바.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	57

2.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60
가. 여성가족부	61
나. 보건복지부	71
다. 법무부	80
3. 소결 및 시사점	84

제 4 장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우수사례

1.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정책 현황	89
가. 도서관법	89
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90
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현황	101
2.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111
가. 국내 우수사례	111
1) 신체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111
2)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123
3) 문화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127
4)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131
나. 해외 우수사례	134
1) 장애인 대상 서비스	134
2)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138
3) 수감자 가족 대상 서비스	141
4) 이민자 대상 서비스	143
3. 정책시사점	147

제 5 장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157
가. 조사 개요	157
나. 일반적 특성	160
다. 도서관 운영 전반	162
라. 시설환경 및 공간 구성	165
마. 서비스 및 프로그램	167
바. 운영상 애로 사항 및 정책 욕구	173
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177
아. 소결 및 시사점	192
2. 초점 집단면접 조사(FGI) 결과 분석	196
가. 조사 개요	196
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199
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및 애로 사항	204
라. 향후 운영 계획 및 정책 욕구	211
마.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공기관의 책무성	215
바.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217
사. 소결 및 시사점	221

제 6 장 논의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논의	227
2. 정책 제언	234
가. 기본방향	234
나. 정책추진과제	236

참고문헌	253
------------	-----

부록(설문지)	263
---------------	-----

〈 표 목 차 〉

〈표 1-3-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계획	8
〈표 2-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구분	13
〈표 2-1-2〉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내용	15
〈표 2-1-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내용	16
〈표 2-1-4〉 취약계층 지식정보 격차 해소 관련 법 조항 및 주요 내용	20
〈표 2-2-1〉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24
〈표 2-2-2〉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25
〈표 2-2-3〉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불균형 관련 연구	27
〈표 2-2-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독서프로그램 효과 관련 연구	28
〈표 3-1-1〉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현황(2014~2022)	33
〈표 3-1-2〉 최근 10년간 다문화 학생 증가현황(2012~2022)	34
〈표 3-1-3〉 전국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36
〈표 3-1-4〉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37
〈표 3-1-5〉 전국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39
〈표 3-1-6〉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40
〈표 3-1-7〉 전국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42
〈표 3-1-8〉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43
〈표 3-1-9〉 전국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45
〈표 3-1-10〉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46
〈표 3-1-11〉 전국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2022)	48
〈표 3-1-12〉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49
〈표 3-1-13〉 시도별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2022)	51

〈표 3-1-14〉 복지·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증가현황(2017~2021)	52
〈표 3-1-15〉 전국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현황(2020, 2021)	54
〈표 3-1-16〉 보호소년 및 위탁 소년 현황(2018~2022)	55
〈표 3-1-17〉 수용자 미성년 자녀 연령별 현황(2021)	55
〈표 3-1-18〉 수용 전후 자녀와의 관계(2021)	56
〈표 3-1-19〉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2021)	56
〈표 3-1-20〉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57
〈표 3-1-21〉 전국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2022)	59
〈표 3-2-1〉 취약유형에 따른 정부 부처의 아동·청소년 정책	60
〈표 3-2-2〉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61
〈표 3-2-3〉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 배치 현황	62
〈표 3-2-4〉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 내용	62
〈표 3-2-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	64
〈표 3-2-6〉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2023)	64
〈표 3-2-7〉 청소년쉼터의 종류	67
〈표 3-2-8〉 청소년자립지원관 유형	68
〈표 3-2-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 유형	70
〈표 3-2-10〉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71
〈표 3-2-11〉 장애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법	72
〈표 3-2-12〉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개요	73
〈표 3-2-1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75
〈표 3-2-14〉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체계	75
〈표 3-2-15〉 드림스타트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76
〈표 3-2-16〉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현황(2021. 12월 말)	78
〈표 3-2-17〉 아동복지교사 지원 분야 및 활동 내용	78
〈표 3-2-18〉 전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현황(2021. 12월 말)	79

〈표 3-2-19〉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80
〈표 3-2-20〉 법무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80
〈표 4-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취약계층 관련 과제	91
〈표 4-1-2〉 광역자치단체 단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집 현황	92
〈표 4-1-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중 취약계층 관련 과제의 광역자치단체 수립 현황	93
〈표 4-1-4〉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중 취약계층 관련 과제의 지방자치단체 수립 현황	94
〈표 4-1-5〉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보 및 매체 이용 강화’ 과제	96
〈표 4-1-6〉 취약계층 대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과제	97
〈표 4-1-7〉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과제	98
〈표 4-1-8〉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과제	99
〈표 4-1-9〉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과제	100
〈표 4-1-10〉 지난 3년(2020-2022년)의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성과	101
〈표 4-1-11〉 장애인 어린이 대상 서비스 유형	103
〈표 4-1-12〉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서비스 유형	104
〈표 4-1-13〉 다문화가정 대상 독서프로그램 현황	104
〈표 4-1-14〉 서울특별시 다문화 아동 대상 프로그램	105
〈표 4-1-15〉 대구광역시 다문화 아동 대상 프로그램	106
〈표 4-1-16〉 경기도 다문화 아동 대상 프로그램	106
〈표 4-2-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소외계층 위한 독서프로그램 내용	112
〈표 4-2-2〉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113
〈표 4-2-3〉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114
〈표 4-2-4〉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117
〈표 4-2-5〉 거제시립 수양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118

〈표 4-2-6〉 대전광역시립 산성어린이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125
〈표 4-2-7〉 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126
〈표 4-2-8〉 부천시립 원미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126
〈표 4-2-9〉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128
〈표 4-2-10〉 마포중앙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128
〈표 4-2-11〉 남구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129
〈표 4-2-12〉 광진정보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130
〈표 4-2-13〉 양천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130
〈표 4-2-14〉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장애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유형	135
〈표 4-2-15〉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139
〈표 4-2-16〉 캔자스시티 공공도서관의 이민자 대상 서비스	145
〈표 4-2-17〉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146
〈표 4-2-18〉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147
〈표 5-1-1〉 설문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159
〈표 5-1-2〉 도서관 위치에 관한 사항	160
〈표 5-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162
〈표 5-1-4〉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관련 도서관 운영 상황	163
〈표 5-1-5〉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관련 도서관 운영 상황(수도권/비수도권)	164
〈표 5-1-6〉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환경 및 공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65
〈표 5-1-7〉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유무	166
〈표 5-1-8〉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	167
〈표 5-1-9〉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167
〈표 5-1-10〉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필요성	168

〈표 5-1-11〉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168
〈표 5-1-12〉 공간 구성, 서비스 기획 및 운영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여부(복수 응답)	169
〈표 5-1-13〉 3년 이상 지속적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169
〈표 5-1-14〉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170
〈표 5-1-15〉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필요 요소	171
〈표 5-1-16〉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편성 비중, 이용률, 필요성(복수 응답)	173
〈표 5-1-17〉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174
〈표 5-1-18〉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175
〈표 5-1-19〉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 사항	176
〈표 5-1-20〉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우선하여 필요한 부분	176
〈표 5-1-21〉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177
〈표 5-1-22〉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유무	178
〈표 5-1-2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향후 제공 필요성	179
〈표 5-1-24〉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향후 제공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179
〈표 5-1-25〉 문화체육관광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 시행 여부	180
〈표 5-1-26〉 문화체육관광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의 필요성	180
〈표 5-1-27〉 문화체육관광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의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181
〈표 5-1-28〉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자체 서비스나 프로그램	182
〈표 5-1-29〉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계획 여부(복수 응답) ..	184
〈표 5-1-30〉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이유 ..	185
〈표 5-1-3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이유(수도권/비수도권)	186
〈표 5-1-32〉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187

〈표 5-1-3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188
〈표 5-1-34〉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	188
〈표 5-1-35〉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수도권/비수도권)	189
〈표 5-1-36〉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추가 제공 필요 서비스	189
〈표 5-1-37〉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기타 항목 ...	190
〈표 5-1-38〉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추가 제공 필요 서비스(수도권/비수도권)	191
〈표 5-2-1〉 초점 집단면접(FGI) 조사대상자 현황	197
〈표 5-2-2〉 초점 집단면접(FGI) 주요 내용	198
〈표 6-1-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의 목표 및 추진과제 ...	236
〈표 6-1-2〉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과제의 세부 사업내용 ...	237

〈 그림 목차 〉

[그림 1-2-1] 주요 연구내용	6
[그림 1-3-1] 연구 방법 및 진행 절차	10
[그림 2-1-1]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14
[그림 2-1-2] 차세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정보화 방향	18
[그림 2-1-3]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범위	21
[그림 3-1-1]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 증감 추이(2014~2022)	33
[그림 3-1-2]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2012~2022)	34
[그림 3-1-3] 시·도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35
[그림 3-1-4]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37

[그림 3-1-5] 시·도별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38
[그림 3-1-6]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40
[그림 3-1-7] 시·도별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41
[그림 3-1-8]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43
[그림 3-1-9] 시·도별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44
[그림 3-1-10] 장애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46
[그림 3-1-11] 시·도별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2022)	47
[그림 3-1-12] 농어촌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49
[그림 3-1-13] 시·도별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2022)	50
[그림 3-1-14] 최근 5년간 복지·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증가 추이(2017~2021)	52
[그림 3-1-15] 시·도별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현황(2021)	53
[그림 3-1-16]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57
[그림 3-1-17] 시·도별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2022)	58
[그림 3-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66
[그림 3-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흐름도	66
[그림 3-2-3]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69
[그림 3-2-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77
[그림 3-2-5] 소년원생 교육프로그램	82
[그림 3-2-6] 소년 분류심사 방법	83
[그림 4-2-1] 수감자 가정 대상 ‘telestory service’	142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¹⁾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지식 정보 불평등에 대한 격차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지식 및 정보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 국내 공공도서관 수가 2018년 1,096개 관에서 2022년 1,236개 관으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 수도 계속 늘어났다(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아울러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지연 외, 2018; 장윤금, 2010).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는 미래세대를 위한 훈련의 장으로서 다양한 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찾는 습관을 길러주는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은 지식정보사회에서 성숙한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제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도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책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영·유아 대상 독서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통해 책과 친해지는 생애 초기 독서 습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2019). 또한, 동 계획에서는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장애인, 군인, 환자, 수용자 등 정보 획득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사업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의성 향상과 정보 활용 능력, 언어 및 행동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브라운 카운티 도서관(Brown County Central Library)의 야외활동 프로그램과 서호주 주립 도서관(State Library of Western Australia)의 ‘Better Beginnings’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상호 교감하면서 창의력과 정보획득 능력을 향상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보고되었다(이지연 외, 2018).

1) 1장은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가 집필함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법 제정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 이래,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현황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격차 해소 관련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공 어린이도서관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연구(김종성, 2008; 장윤금, 2010),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 프로그램 및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한 연구(도유미, 2015; 임여주·정연경, 2014) 등이 있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전략과 대응 방안을 모색한 연구(윤희운, 2012; 장덕현, 2012)가 2010년대 초·중반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신체적, 연령적 여건으로 인하여 양질의 지식정보에 접근이 어려운 열악한 정보 환경에 처한 계층으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농어촌 주민,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는 국군장병과 재소자까지 포함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공적 개입을 통하지 않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평등한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이들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도서관은 자료 및 프로그램 서비스를 통한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그 대상이 도서관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농어촌주민 등에 국한되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약한 상황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평등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정부 정책 현황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보완점을 진단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고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① 공공도서관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②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부 정책 현황 분석, ③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 ④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및 분석, 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제안으로 구성된다.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공공도서관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 공공도서관의 개념 정의 및 기능
 - 취약계층 서비스의 범주와 대상
 -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범위
-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도서관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부 정책 현황

-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우수사례

-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정책 현황
-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초점 집단면접(FGI) 및 정책 욕구 조사 및 결과 분석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제안

- 연구 결과 논의
- 도서관 서비스 정책 및 활성화 방안 제안

[그림 1-2-1] 주요 연구내용

연구내용 (연구 방법)		세부 내용	
1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 고찰 (문헌 연구)	➡	1)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개념 정의, 도서관 서비스의 필요성 등 이론적 논의 2)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2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부 정책 현황 분석 (문헌 및 통계 자료 분석)	➡	1)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2)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 (정책 자료 및 문헌 연구)	➡	1)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정책 현황 2)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3) 정책 및 서비스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4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설문조사 및 FGI)	➡	1)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운영실태 파악 (1,236개 공공도서관 전수조사) 2) 현장 전문가 대상 초점 집단면접(FGI)을 통한 서비스 운영실태 및 정책 욕구 파악 (도서관장/전국 및 농촌 단위 공공도서관 사서 총 14명)
5	도서관 서비스 및 정책 제안 (전문가 자문/정책 간담회)	➡	1) 연구 결과 논의 및 정책시사점 도출 2)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과 절차를 거쳐 수행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 운영현황과 실태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전 조사

사전 조사 단계에서는 관련 기초자료 수집, 연구 및 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무엇보다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분석한다. 특히, 기존의 유사 연구와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기초통계자료를 통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현황 및 도서관 운영현황을 파악한다. 사전 조사는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전원이 참여하여 설문조사 및 초점 집단면접을 위한 도구 개발, 문항 적합성 검증과 조사대상자 선정, 그리고 조사 방법과 진행 과정의 점검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

○ 문헌 연구 및 사례조사

본 연구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립하여 중장기 추진전략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내 문헌의 경우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개념 정의,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리한다. 특히, 국내외 프로그램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와 정책시사점을 도출한다.

○ 설문조사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정책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해 1,236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1,236개 공공도서관 전수조사이다. 설문지 문항 개발은 전체 연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국립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관련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동 작업으로 진행한다.

○ 초점 집단면접 조사(FGI)

질적 조사의 경우 도서관장, 광역시·도 단위 사서 및 농촌 지역 사서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 4~5명의 사서 총 14명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면접(FGI)을 진행한다. 집단면접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에 질문지 초안을 공유하여 면접 대상자가 연구진이 제공한 질문지를 검토한 후 면접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표 1-3-1〉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계획

구분	설문조사	초점 집단면접(FGI)
조사 인원	1,236개 공공도서관	총 14명
선정 방법	전수조사	도서관장/ 광역시·도/농촌지역 사서 각 집단별 4~5명
조사내용	도서관 소장 자료, 시설(최신자료 확보 현황), 인력, 예산,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여부, 필요성 인지, 정책 지원 욕구 등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상 어려움 및 애로 사항, 향후 운영 계획 및 정책 욕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책무성,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등
조사 방법	인터넷 조사	면접조사

○ 전문가 자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독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연구 설계, 단계별 연구내용, 설문조사 도구, 조사 대상 범위, 정책개발 초안에 대한 검토의뢰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

○ 정책 제안

문헌 연구, 사례분석,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연구원이 참여하여 정책개발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한다. 선행연구와 각종 정책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재검토와 분석을 진행하고, 연구자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하는 자문회의, 간담회 또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진이 도출한 정책 제언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다. 정책 제안은 모든 연구자가 참여하며 연구책임자가 모든 작업을 총괄 진행한다. 연구 결과를 정책 제안에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업을 제안하며, 정책추진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그림 1-3-1] 연구 방법 및 진행 절차

단계	방법	세부 내용
연구 설계	문헌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세부 실행계획 수립(연구 방법 및 조사계획 수립 등)
	자료수집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 검토(공공도서관 및 취약계층 어린이 서비스 관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부 정책 현황 정리 ▷ 각종 행정자료 및 도서관 관련 통계 자료 수집·분석 ▷ 주요 외국의 어린이·청소년 정책 우수사례조사 및 동향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설계, 연구내용 및 방법, 조사 설계 및 문항, 정책제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및 환경 분석	유관 시설 및 기관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회복지관 등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 방문 ▷ 도서관 및 기관 운영현황 파악
	현장실무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사서 및 기관 실무자 대상 인터뷰
도서관 운영 실태 및 요구조사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 1,236개 공공도서관 사서 ▷ 조사 방법 : 인터넷 조사 ▷ 조사 내용 :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도서관 시설 및 공간 구성, 운영상 애로 사항, 정책 욕구 등
	초점 집단면접(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대상 : 도서관장/사서 총 14명 ▷ 조사 방법 : 초점 집단면접(FGI) ▷ 조사내용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여부, 필요성 인지, 운영상 애로 사항, 프로그램 우수사례, 정책지원 욕구 등
정책과제 도출	전문가 자문/정책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및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 도출 및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정책 방향 수립 및 세부 추진과제 제안 ▷ 정책 추진전략 및 정책 실효성에 관한 의견수렴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공공도서관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
2.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도서관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3. 본 연구의 차별성

1. 공공도서관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논의²⁾

가. 공공도서관의 개념 정의 및 기능

1) 공공도서관의 법적 정의

「도서관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 이용·교양 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도서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되며, 설립 목적 및 대상에 따라서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다(도서관법 제4조). 본 연구의 중점 대상인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 이용·독서 활동·문화 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써, 1)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작은 도서관과 2)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등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구분된다.

〈표 2-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의 구분

구분	명칭	내용
설립·운영 주체별	국립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공립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사립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설립 목적 및 대상별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 이용, 독서 활동, 문화 활동, 평생학습을 위한 도서관
	대학도서관	대학의 교원과 학생 및 직원을 위한 도서관
	학교도서관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학생 및 직원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 관련 소속 직원과 대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하는 도서관
	특수도서관	의료기관, 군인, 교정시설 등 특수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도서관

자료 : 「도서관법」 제4조(도서관의 구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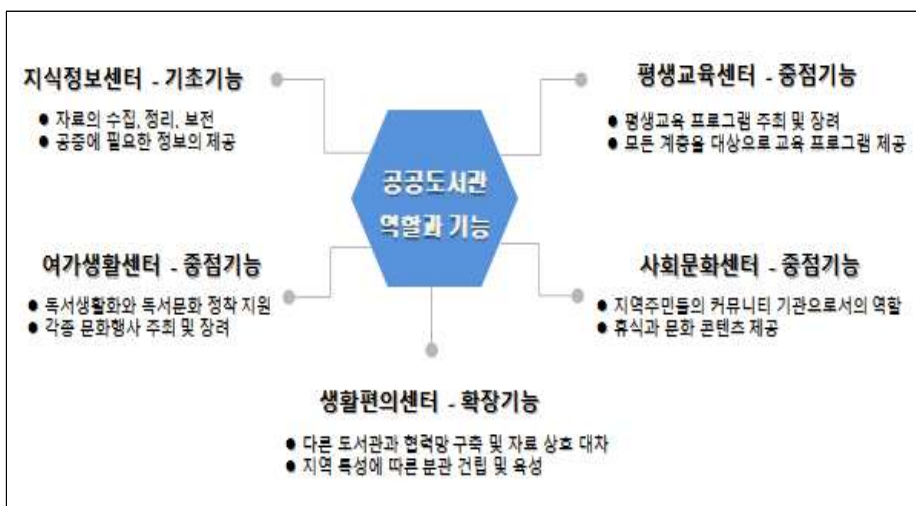
2) 2장은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가 집필함

2)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1990년 문화부 신설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이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이원화된 이래,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크게 확대되었다. 과거 공공도서관은 자율학습을 위한 열람실 운영이나 도서 대출을 위한 문헌정보실 운영 등 시설 개방 및 제공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현재 공공도서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노인 인구 및 청년실업의 증가,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 등 전 생애주기별 수요와 이용자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책무성을 지닌다(신명식, 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지식향상과 문화 발전, 정보와 자료의 무상 제공을 통한 지식정보 확산, 지역사회 커뮤니티 강화를 운영 목표로 하며, 핵심 기능으로 지식정보센터, 생활편의센터, 사회문화센터, 여가생활센터, 평생교육센터로서의 통합적 기능을 강조한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 중, 공공도서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적 기능은 지식정보센터 기능이며, 사회문화센터, 여가생활센터,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중점기능, 그 밖에 생활편의센터 기능은 공공도서관의 확장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1-1)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



자료 :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용자 서비스 영역은 대출·이용 서비스, 참고·정보 서비스,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기능별 이용자 서비스, 생애주기별 이용자 서비스 등으로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표 2-1-2> 참조), 무료·평등 서비스, 지역사회 정보격차 해소, 정보자료 제공서비스의 우선적 운영 등 총 13개의 일반원칙을 두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표 2-1-2>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평등 서비스 • 지역사회의 정보격차 해소 • 정보자료 제공서비스의 우선적 운영 • 특수집단을 위한 지원 • 지역사회 변화 반영 • 서비스 정책의 성문화 및 개정 • 이용자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 수렴 • 잠재 이용자 분석을 통한 서비스 확장 • 지역사회의 기관 지원 • 서비스 홍보 •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 최첨단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 확대 	대출·이용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정책 문서화 • 이동도서관의 운영 • 순회문고 서비스 • 무인 예약 대출 서비스 • 전자책 대출·이용 서비스 • 오디오북 대출·이용 서비스 • 책이음 서비스 • 책드림 서비스 • 내 생애 첫 도서관 서비스 • 책 바로 대출 서비스 • 스마트 도서관 운영 • 시니어 딜리버리 서비스 운영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전담사서의 배치 •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어린이 지원 • 이용자교육과 독서지도 •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 청소년 서비스의 계획 및 운영 • 학교 도서관과의 협력 •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서비스 •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다른 기관과의 협력 • 아웃리치서비스 실시 • 인적 리에종 서비스 강화 • 다어울림 서비스 • 취약계층별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기능별 이용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서비스 • 사회집단에 대한 서비스 • 특수이용자 집단에 • 대한 서비스 • 평생학습 • 문화 향유 • 사회 안의 도서관 • 독서 증진 • 정보 활용 교육 	참고·정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과의 상호 협력 • 전자적 네트워크의 구성 • 참고 질문의 기록 • 서비스의 적시성 • 서비스 통계의 활용 • 원격 서비스 제공 • 신규 서비스의 적극적인 홍보 • 생애주기별 정보서비스 • AI 스피커 서비스 (인공지능 스피커) • CDRS(Collaborative Digital Reference Service) 강화 • 챗봇(Chatbot)
생애주기별 이용자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기 • 소년기 • 청년기 • 성인기 • 노년기 		

자료 : 「2022 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22, 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청소년을 구분하여 각 연령층을 고려한 서비스,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고립지역의 거주자, 병원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각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1-3> 참조).

<표 2-1-3>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어린이 전달사서 배치	• 어린이 전달 사서를 배치하되, 특히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세심한 서비스 활동 전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한 어린이 지원	• 취학 전 어린이와 초등학교 저·중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야기 시간을 운영하는 동시에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공예·작문·드라마·미술·음악·인터넷 활용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창의력과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 • 유·아동 전집 대출 서비스: 가정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유·아동 전집을 장기간 대출해줘 가정에 부담 감소
	이용자교육과 독서지도	•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도서관 이용법, 자료 이용 방법, 인터넷정보 검색법 등을 지도·지원하고, 독서지도와 독서상담 실시
	다양한 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기를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와 관심 및 문화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서비스의 계획 및 운영	• 청소년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과 자료를 갖추고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와 협력하여 서비스 활동 계획·운영 • 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조성과 서비스 기획/운영 단계에서 청소년의 참여 확대,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청소년 봉사활동 내용의 다양화, 담당 사서의 전문성 확보와 지역 인적 자원 활용, 서비스에 대한 홍보 확대
	학교도서관과 협력	•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관 시간, 시설 공간, 자료와 서비스에 관하여 학교 및 학교도서관과 협력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서비스	•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 흥미 및 독서 능력 개발과 공부방 프로그램,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등 독서·학습프로그램 운영
	첨단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제공	• 트렌드에 민감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청소년을 고려하여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과 같은 미래 산업과 접목한 서비스 제공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노인, 고립지역의 거주자, 병원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다른 기관과의 협력	• 지역 사회 내의 다른 도서관, 특수서비스 기관 등과 협력하여 특수이용자 집단에 서비스 제공 • 이를 위해 적정 인력의 배치와 적합한 장소 개발
	아웃리치 서비스 실시	•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이유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균등한 서비스 수혜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 서비스, 낭독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
	인적 리에종 서비스 강화	• 찾아오는 이용자를 쉽고 친절한 도서관 이용법과 정보서비스 안내가 필수적이며 노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전문인력과 보조 인력이 적절히 안배되어야 하고, 장애인과 노인의 특성 이해와 도서관 서비스 응대에 대한 교육훈련, 우수서비스 사례공유 강화
	다어울림 서비스	• 다문화가정의 독서문화 활동 장려를 위해 다문화 도서를 선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택배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확대
	취약계층별 지식정보서비스 확대	• 노인, 다문화, 장애인 등 주요 취약계층별로 차별화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자료 : 「2022 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22, 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3) 차세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정보화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고령화,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 변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 등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준비의 일환으로 정부는 차세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생활 중심의 복합문화시설, 도서관 간 상호 협력 및 교류를 위한 구심점, 도서관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 특성화 서비스 창출,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차별성 및 편의성 제고를 차세대 공공도서관의 역할로 인식하고, 지역의 대표 통합도서관, 전자도서관, 스마트 도서관을 정보화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그림 2-1-2) 참조).

지역대표 통합도서관은 생활 중심 복합문화시설 지원 및 지역 공공도서관과 융합·협력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운영 핵심 단위 시스템(자료관리시스템, 콘텐츠 관리시스템, 도서관 통합 포털, 행사/프로그램 예약시스템 등)을 통합형으로 구축하고,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에서 통합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과 개별 도서관의 업무 및 자료관리, 콘텐츠 관리 등 각종 서비스 환경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자도서관은 물리적 제약을 넘어 공간적으로 열려있는 가상·전자도서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하고, 향토 자료 및 지역 특화 자료의 원문 DB, 교육·지식정보·문화 등 지역 특화 디지털 콘텐츠 구축 이외에, 선진적인 디지털 콘텐츠 관리체계(메타정보 관리, 기준정보 관리 등) 도입을 통해 보유·수집·링크·아카이브 등 디지털 콘텐츠에 쉽게 접근하여 유연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 도서관은 사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첨단기술인 ICT 콘텐츠 체험 기회 제공 및 창작, 교류, 휴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스마트 라이브러리 시스템 구축과 빅데이터 기반 이용자 맞춤형 도서 추천 서비스 구축, 도서관과 이용자들의 소통 및 참여를 위한 큐레이션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는 다양한 도전과 과제를 수반한다. 온라인과

비대면 기술을 활용하여 풍부한 디지털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도서관이 되려면, 디지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도서관 장서에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일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나 모바일만 있으면 공공도서관의 책을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미래 사회변화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적절한 대응과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신명식, 2022).

(그림 2-1-2) 차세대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정보화 방향



자료 : 「2022 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2022, 문화체육관광부

나. 취약계층 서비스의 범주와 대상

사회적·학문적 관점에서 ‘취약계층’이란 용어의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다. 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등장하는 취약계층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인, 예를 들어 노화에 따른 고령, 경제적 빈곤, 신체적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개인, 가족,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부정적인 특성을 가진 집단이다(윤희운, 2012). 학문 분야에 따라 주목하는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경제학은 물질 자원이 결핍된 빈곤층에 중점을 두고, 사회학은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소수 민족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복지학에서는 아동,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한편,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이다(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즉, 공공도서관이 자료 및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격차를 해소해야 할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주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지닌 장애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주민, 이주 배경을 지닌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이다. 공공도서관은 사회적 약자 집단이 지식정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악순환과 불평등을 차단하여 지식정보 접근성과 이용 서비스를 보장할 책무성을 지닌다.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는 정보기본권의 침해로 인한 사회적 배제를 초래할 수 있는데,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가난, 장애, 차별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에 필요한 지식정보 접근과 이용에 제약이 따를 경우, 노동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빈곤에 시달리고, 사회문화적으로는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공공도서관이 취약계층 서비스를 확대할 때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은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이며, 이는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지식정보 취약계층(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령과 조항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1-4〉 참조).

〈표 2-1-4〉 취약계층 지식정보 격차 해소 관련 법 조항 및 주요 내용

구분	법적 근거	조항	주요 내용
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노인)	지능 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체적 취약계층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	제22조 (정보에의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적 취약계층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6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농어촌 주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농어촌의 문화예술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향토 문화축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장애인/수급권자/농어촌주민/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노인)	도서관법	제6조 (지식정보 격차 해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료 : 「지능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서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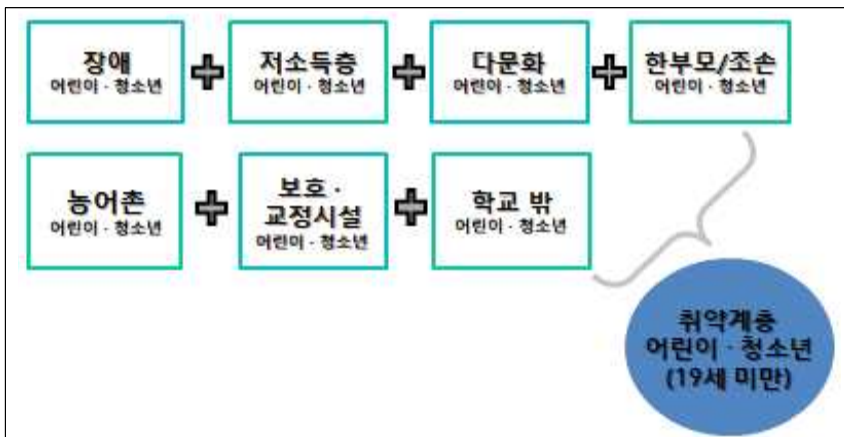
다.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범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장애인,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농어촌주민,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이다.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북한이탈주민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최근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결혼 이민자 가족 이외에 외국인 근로자 가족과 북한이탈주민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 점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다문화가족에 포함하고자 한다.

따라서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범위는 장애 어린이·청소년, 저소득층의 자녀, 농어촌 주민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한부모·조손 가정, 보호·교정시설(소년원, 아동그룹홈,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학업 중단, 가출) 어린이·청소년까지 확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한부모·조손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은 대다수가 저소득층에 속하고, 위기 상황의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보호시설 아동·청소년과 학업 중단 및 가출 등으로 인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지식정보의 접근성이 낮고 이용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욕구가 높은 정보 취약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림 2-1-3)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범위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지식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은 장애 어린이·청소년,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농어촌 어린이·청소년, 다문화가족 어린이·청소년, 한부모·조손 가정 어린이·청소년, 보호·교정시설 어린이·청소년,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으로 조작적 정의할 수 있다. 연령층의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나이가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아동), 청소년 기본법 9~24세(청소년), 청소년보호법 19세 미만(청소년), 민법은 19세 미만(미성년자) 등 법마다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19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으로 정하고자 한다 (<그림 2-1-3> 참조).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 대상은 주로 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어린이로, 중·고등학생 연령층을 청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다만, 정책 대상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에 따라 24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하기로 한다.

2.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도서관 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고찰

도서관법 제14조에 의거 법정 국가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2009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이래, 현재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19~2023)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제4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2024~2029)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구감소와 산업화에 따른 경제·일자리의 양극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은 점차 강조되고 있는 동시에, 도서관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보매체의 다양화, 이용자층과 요구의 다변화로 인하여 인쇄매체 중심의 도서관으로는 다양한 이용자층을 대상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정부가 국민의 정보기본권 보장과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서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2009년을 기점으로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연구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관련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연구

1)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된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과 활성화 방안을 도출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이진화·강은영, 2022; 이지연 외, 2018; 강정아·노영희, 2018; 노금선, 2015; 김종성·엄미진, 2010).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공공도서관 93개 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청소년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이진화·강은영(2022)의 연구는 이 지역 대다수 도서관의 청소년 휴식 공간과 동아리 공간의 부재, 청소년 서비스 전용 공간 부족, 전문가와 예산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공간조성 과정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청소년의 관심사와 요구 반영, 운영과정에 청소년 참여 유도, 청소년을 위한 전용 공간 마련,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시 진로 희망이나 재능을 고려하여 다채롭게 구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기호와 동선을 고려한 적극적 홍보,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정보제공, 청소년 서비스 인력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이지연 외(2019)의 연구는 전국 108개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현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공공도서관은 인력 및 예산의 부족, 시설의 협소함, 유연하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 등의 문제점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밝히고, 어린이 청소년의 흥미 유발 및 참여자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프로그램 개발, 학교 및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동 증진, 가족 단위 구성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다문화, 저소득, 장애 아동 등 정보 소외계층의 도서관 이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개별 프로그램에 좀 더 집중한 연구도 있다. 강정아·노영희(2018)의 연구는 국내 48개 어린이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노금선(2015)의 연구는 어린이 독서치료 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사서와 강사,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외,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방안에 관한 김종성·엄미진(2010)의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유형을 참여형, 체험형, 강좌형, 콘테스트형, 기관협력형 프로그램으로 구분하고, 각 프로그램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반드시 전문인력인 담당 사서가 필요하고 참여자 모집과 통제가 어려우며, 체험형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에 걸쳐 운영되지만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담당 사서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서의 부담감이 크다면, 강좌형 프로그램은 대부분 외부 전문 강사에 의존하고 있어 사서는 강좌의 홍보만을 담당하는 차이가 있다. 콘테스트형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대회가 학교장 추천이라는 참가 자격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청소년의 자유로운 참가에 제한이 따른다. 또한 기관협력형 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과 타 기관과의 협력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지원 형태로 운영하는 특징이 있음을 연구 결과로 제시하며,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청소년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표 2-2-1〉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연구 제목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이진화, 강은영 (2022)	· 도서관 포털에 등록된 부산·울산·경남지역 공공도서관 93개소 및 사서 3명	· 설문조사 · 심층 면담
공공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이지연 외, (2018)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자료 및 공공도서관 108개소의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담당 사서	· 문헌조사 · 설문조사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강정아 노영희 (2018)	· 국내 48개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 문헌조사 · 사례분석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관련 연구	노금선 (2015)	· 어린이 독서치료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도서관 담당 사서 113부, 강사 30부, 독서치료 서비스 경험 어린이와 부모 93부	· 문헌 연구 · 설문조사 · 사례조사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과 발전 방안 연구	김종성, 엄미진 (2010)	·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공공도서관 86개소(1개 특별시와 6개 광역시)	· 현황조사

2)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 다문화가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도 정보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주로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다문화 가족에게 도서관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다문화 서비스 모형과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김지선, 2021; 임여주, 2018; 유종호, 2016; 최유경, 2010; 양수연 2011).

〈표 2-2-2〉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

연구 제목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다문화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사례연구	김지선 (2021)	· 인천시 거주 및 공공도서관 이용 다문화 인구 6명	· 사례연구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임여주 (2018)	· 다문화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공공도서관 3개소	· 사례연구
다문화가정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종호 (2016)	· 광주지역 다문화 자료실을 사용하는 다문화가정 87명	· 설문조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적 연구	최유경 (2010)	· ‘지역별 공공도서관 현황’에 나와 있는 564개의 도서관 (사립, 민간 포함)	· 문헌연구, · 현황조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모형 개발	양수연 (2011)	· 다문화 서비스를 시행하는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236부	· 설문조사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진경 (2013)	· 충남 서부평생학습관 ‘신나는 여름학교’ 서비스를 받은 어린이 57명	· 사전 사후 설문조사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심미애 (2011)	· 안산지역 소재 이주노동자 가정 및 국제결혼가정의 초등학생 103명 설문	· 설문조사 · 현장조사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박연이 (2010)	· 천안지역 다문화가정 어린이 124부, 학부모 60부, 교육담당자 25부	· 설문조사

다문화가정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일부 학위논문에서 다루어져 왔다.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임진경, 2013),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심미애, 2011),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박연이, 2010) 등이 201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으나, 충남, 안산, 천안 등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중심의 연구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2020년대 최근의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변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전국 단위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최근의 동향을 반영한 연구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나.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연구

1)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불균형 관련 연구

도서관법과 지능 정보화 기본법 등 일부 관련 법령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의 범주를 정하여 이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 격차 해소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와 46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등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명시한 조항이다(<표 2-1-4> 참조). 이처럼 취약계층의 정보기본권에 관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의 정보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2011년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전략 개발연구(곽동철 외, 2011)를 수행하여 도서관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었고, 학계에서도 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차미경·송경진, 2010) 연구를 비롯하여 취약계층의 정보 불평등 해소와 공공도서관의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안인자 외, 2018; 윤희운, 2012; 정미진, 2012; 장덕현, 2012). 최근에는 도서관 통계에 나타난 정보 취약계층의 지표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투입과 성과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한 연구(김홍렬, 2016),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변화하는 요구를 파악하여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 기반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수요 분석을 통한

도서관 포용성 강화 전략을 모색한 연구(강지혜·배경재, 2020) 등이 발표되면서 정보 취약계층 전용 열람석 증가, 다양한 편의 시설과 설비 구비, 지역적 인구 분포와 특성을 고려한 도서관 서비스와 예산편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 정보 취약계층 간 균형 있는 예산편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표 2-2-3〉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불균형 관련 연구

연구 제목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지역 기반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수요 분석을 통한 도서관 포용성 강화 전략	강지혜, 배경재 (2020)	· 다문화 인구 29명	· 설문조사 · 심층면담
저소득계층의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	안인자 외 (2018)	· 선행연구분석	· 문헌조사 · 현황분석
도서관 통계에 나타난 정보 취약계층의 지표 분석	김홍렬 (2016)	· 국가도서관통계포털에 나타난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지표	· 문헌분석
공공도서관 정보 소외계층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미진 (2012)	· 수원시 소재 공공도서관 17개관	· 설문조사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전략	윤희운 (2012)	· 문헌 연구에 나타난 5대 취약계층(장애인, 다문화 가족, 노인, 수급자, 농어촌주민)	· 문헌조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장덕현 (2012)	·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소재 공공도서관 서비스 현황 자료 및 담당 사서	· 문헌분석 · 심층면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전략 개발 연구	곽동철 외 (2011)	· 16개 시·도 광역단체 내 도서관 · 정보 취약계층 전문가그룹 · 국내·외 문헌조사	· 문헌조사 · 실태조사 · 심층면담
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차미경, 송경진 (2010)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데이터(연면적, 장서 수, 직원 수, 사서 수, 예산, 자료구입비 등)	· 현황조사

2)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독서프로그램 효과 관련 연구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와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식정보 격차를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의 중점대상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관련 연구는 주로 독서 치료 영역에서 전개되는 독서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로, 2010년을 전후로 하여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독서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다룬 연구(박지연, 2007; 조효숙·이진숙, 2008; 이수정·이현림, 2008)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선애순·권순황, 2010; 조미정, 2009; 김민화 외, 20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 1,643명을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를 분석한 이연옥·노영주(2012)의 연구는 독서프로그램 참여 후 소외계층 아동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견되어 이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와 독서프로그램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 외, 청소년 쉼터에 거주하는 가출청소년 약 50명을 대상으로 독서심리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를 측정한 연구(한운옥 외, 2016)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 시설에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독서프로그램의 내용과 특성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이순영, 2017) 등은 보호·복지시설 아동 대상의 독서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 대안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가정 밖과 학교 밖 공간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이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5~10명의 소그룹 단위로 하여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시설종사자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구성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표 2-2-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독서프로그램 효과 관련 연구

연구 제목	저자 (연도)	연구 대상	연구 방법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이연옥, 노영주 (201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2011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에 참가한 아동 1,643명 및 사업수행 담당자	· 설문조사 · 심층면담
쉼터 청소년 독서 심리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한운옥 외(2016)	쉼터 청소년 약 50명	· 인터뷰 · 프로그램 참여
아동복지시설의 독서프로그램 조사연구	이순영 (2017)	아동복지시설 운영 28개 독서프로그램	· 프로그램 분석

3.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과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도서관법 제14조에 따라 2009년부터 법정 국가계획인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되기 시작하면서 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이진화·강은영, 2022; 이지연 외, 2018; 노금선, 2015; 김종성·엄미진, 2010). 그 중,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그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개선점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독서프로그램과 문화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유형별 운영실태와 발전방안을 모색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강정아·노영희, 2018; 강정아·노영희, 2018, 노금선, 2015; 김종성·엄미진, 2015). 다문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도 정보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나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주로 2010년대 초반 전국 단위가 아닌 지역 중심의 연구로 진행되어, 2020년대 최근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변화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임진경, 2013, 심미애, 2011; 박연이, 2010).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는 취약계층의 정보기본권에 관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이 법령에 명시되면서 주로 취약계층의 정보 불평등과 격차 해소, 서비스 수요 파악과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곽동철 외, 2011; 차미경·송경진, 2010; 안인자 외, 2018; 윤희운, 2012; 정미진, 2012; 장덕현, 2012; 김홍렬, 2016; 강지혜·배경재, 2020). 「도서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의 법령에서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접근성 제고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면서 취약계층의 정보격차와 불평등,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중점대상으로 하여 지식정보 격차와 서비스 확대 방안을 도출한 연구는 거의 없다. 주로 저소득층 아동, 보호·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영역에서 전개되는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이연옥·노영주, 2012; 한윤옥 외, 2016; 이순영, 2017).

결론적으로, 전국 단위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최근의 동향 변화를 반영하여 서비스 운영실태를 파악한 대규모 조사연구가 부재하고,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주목하여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문제점, 정책지원 욕구를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여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를 병행함으로써 정확한 실태 파악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제 3 장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부 정책 현황

1.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2.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1.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³⁾

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최근 10년간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3.5%에서 2018년 4.6%로 급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주춤하여 2020년에는 3.9%를 기록하고 2022년 다시 증가세를 보여 4.3%를 나타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은 이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표 3-1-1〉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현황(2014~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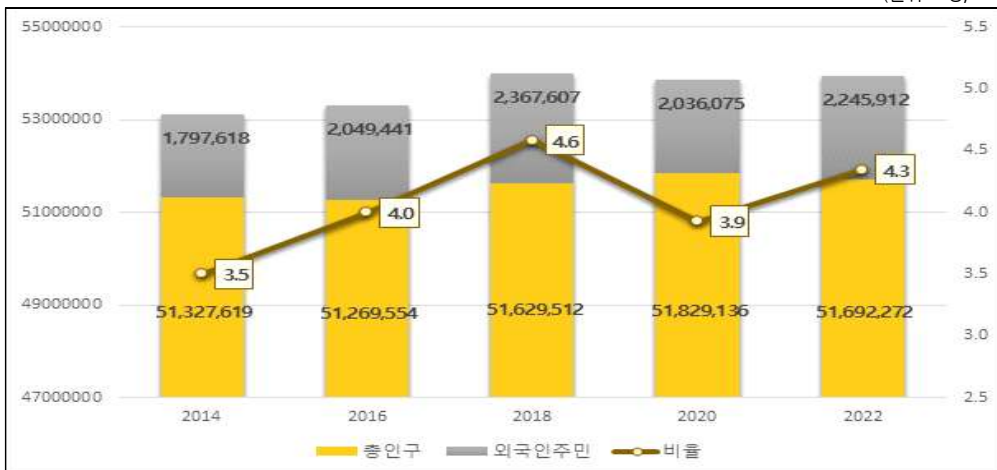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4	2016	2018	2020	2022
총인구	51,327,619	51,269,554	51,629,512	51,829,136	51,692,272
외국인 주민	1,797,618	2,049,441	2,367,607	2,036,075	2,245,912
비율(%)	3.5	4.0	4.6	3.9	4.3

자료 : 법무부(2022). 연도별 체류외국인 현황,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2023.11.01.

[그림 3-1-1]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중 증감 추이(2014~2022)

(단위 : 명, %)



자료 : 법무부(2022). 연도별 체류 외국인 현황,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2023.11.01.

3) 3장은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가 집필함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고 재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다문화 학생 수 46,954명에서 2022년 168,645명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3배 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초·중등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도 2012년 0.69%에서 2022년 3.17%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그림 3-1-2> 참조).

〈표 3-1-2〉 최근 10년간 다문화 학생 증가현황(2012~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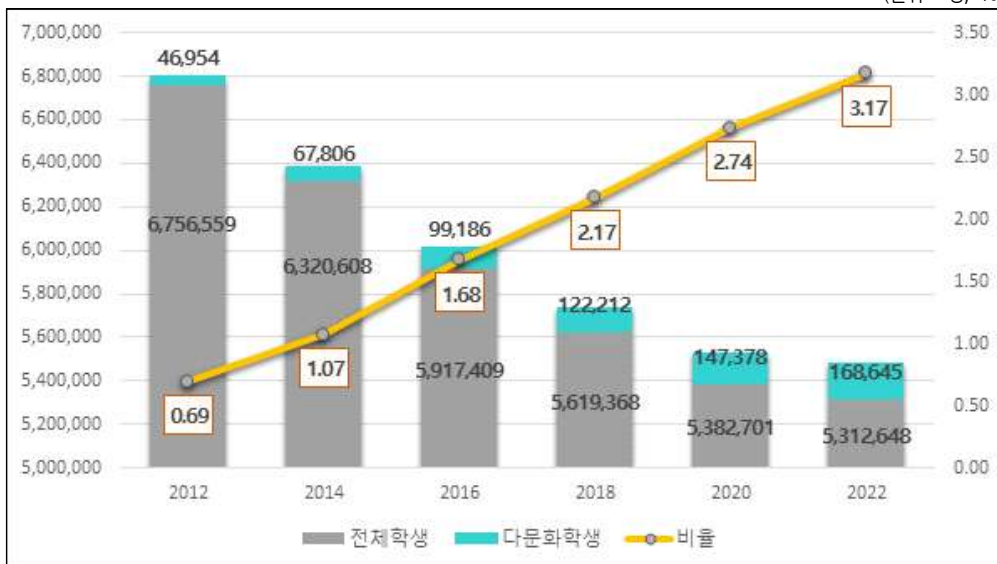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전체 학생	6,756,559	6,320,608	5,917,409	5,619,368	5,382,701	5,312,648
다문화 학생	46,954	67,806	99,186	122,212	147,378	168,645
비율(%)	0.69	1.07	1.68	2.17	2.74	3.1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2~2022) , 「교육통계서비스」

[그림 3-1-2]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2012~2022)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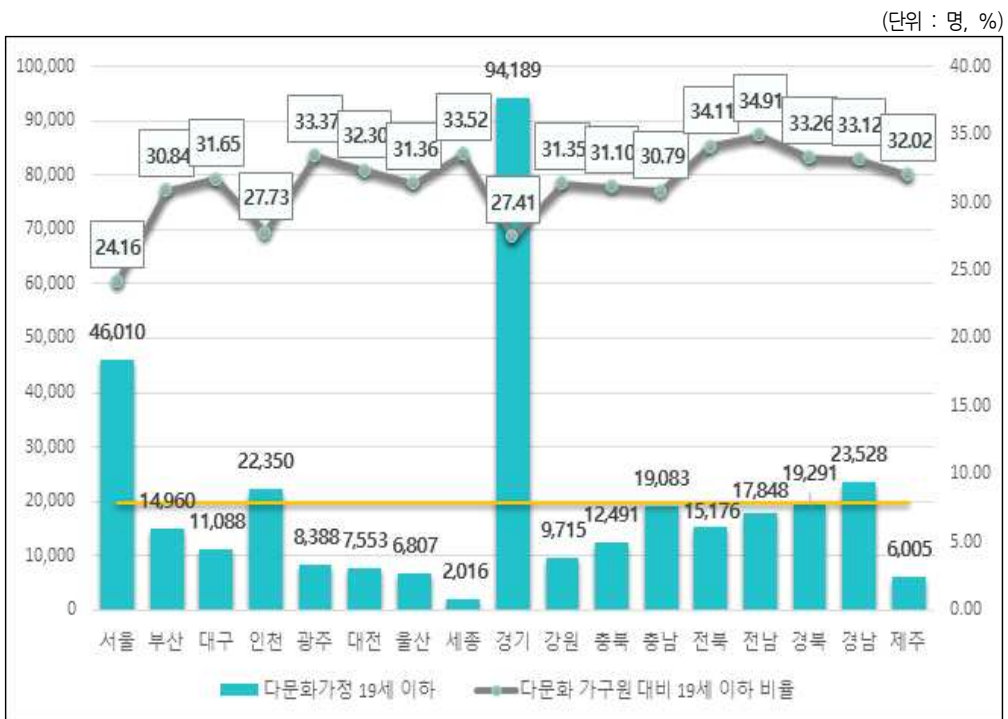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2~2022) , 「교육통계서비스」

지역별 다문화가정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정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전라남도가 34.91%, 전라북도가 3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국 다문화가정 총인구 대비 다문화가정 19세 이하 비율의 평균은 29.24%로 국내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 인구의 약 1/3은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있다(〈표 3-1-3〉 참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은 경기도에 94,189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서울 46,010명, 경남 23,528명, 인천 22,3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일반가정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 대비 19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라남도가 6.6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5.48%, 5.25%를 차지했으며, 세종시가 2.14%로 전체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구 대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3-1-3] 사·도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자료 : 통계청(2021), 「통계청인구총조사」

〈표 3-1-3〉 전국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단위 : 명, %)

시도	다문화가정 인구			총 19세 이하 인구	총 19세 이하 인구 대비 다문화가정 19세 이하 비율
	다문화 가구원	다문화가정 19세 이하	다문화 가구원 대비 19세 이하 비율		
전국	1,151,004	336,498	29.24	8,163,374	4.12
서울	190,458	46,010	24.16	1,265,018	3.64
부산	48,515	14,960	30.84	466,301	3.21
대구	35,028	11,088	31.65	371,959	2.98
인천	80,587	22,350	27.73	481,948	4.64
광주	25,140	8,388	33.37	258,986	3.24
대전	23,383	7,553	32.30	248,098	3.04
울산	21,709	6,807	31.36	192,427	3.54
세종	6,015	2,016	33.52	94,031	2.14
경기	343,605	94,189	27.41	2,339,220	4.03
강원	30,986	9,715	31.35	226,985	4.28
충북	40,166	12,491	31.10	256,639	4.87
충남	61,983	19,083	30.79	363,706	5.25
전북	44,496	15,176	34.11	277,166	5.48
전남	51,131	17,848	34.91	268,855	6.64
경북	57,998	19,291	33.26	387,460	4.98
경남	71,048	23,528	33.12	540,583	4.35
제주	18,756	6,005	32.02	123,992	4.84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다문화가구원) 2023.11.01

나.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

1) 저소득 가정

최근 5년간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0~19세 비중이 2018년 22.25%에서 2022년 15.96%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8년 1,653,781명에서 2022년 2,359,228명으로 최근 5년간 42.6% p 상승하였지만, 출산율의 감소로 0~19세 이하 수급자 수는 감소세를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1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8년 367,916명에서 2019년 356,031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20년 376,959명, 2021년 384,839명, 2022년 376,534명으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3-1-4〉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수급자	1,653,781	1,792,012	2,046,213	2,268,852	2,359,228
0-19세	367,916	356,031	376,959	384,839	376,534
비율(%)	22.25	19.87	18.42	16.96	15.96

자료 : KOSIS(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3.11.01.

[그림 3-1-4]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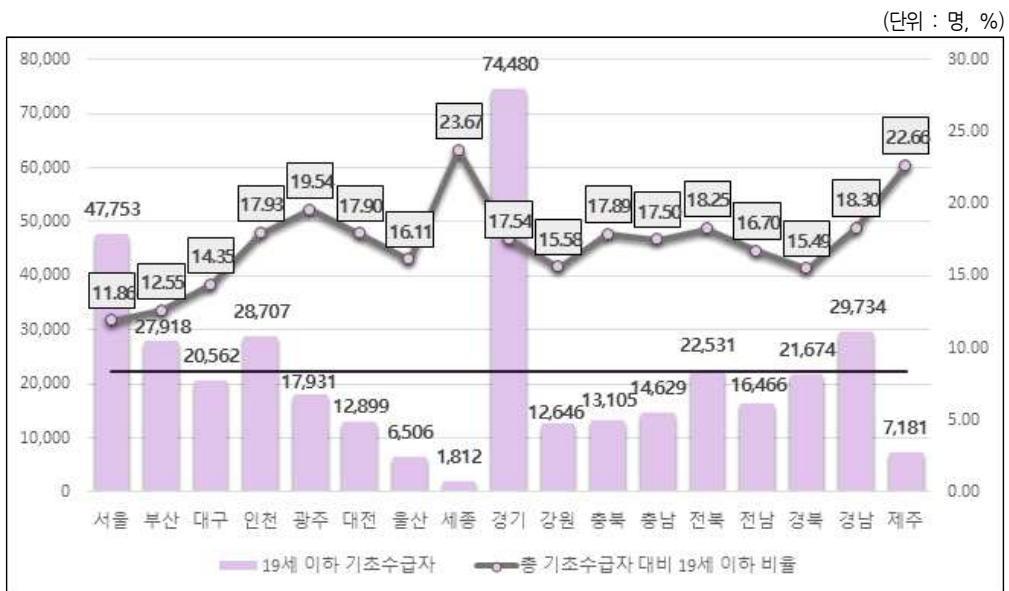


자료 : KOSIS(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3.11.01.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로 74,780명이며, 다음으로 서울시가 47,753명에 달한다. 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비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세종시가 23.67%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도가 22.66%로 두 번째 높았다(<그림 3-1-5>참조).

전국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구 대비 저소득 가정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북도로 8.13%(22,531명)이며,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6.92%(17,931명), 전라남도 6.12%(16,466명) 순으로 나타났다(<표 3-1-5> 참조).

[그림 3-1-5] 사·도별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자료 : KOSIS(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3.11.01.

〈표 3-1-5〉 전국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단위 : 명, %)

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총 19세 이하	총 19세 이하 대비 저소득 가정 19세 이하 비율
	총 수급자 수	19세 이하 수급자	수급자 수 대비 19세 이하 비율		
전국	2,359,228	376,534	15.96	8,163,374	4.61
서울	402,664	47,753	11.86	1,265,018	3.77
부산	222,452	27,918	12.55	466,301	5.99
대구	143,286	20,562	14.35	371,959	5.53
인천	160,101	28,707	17.93	481,948	5.96
광주	91,755	17,931	19.54	258,986	6.92
대전	72,047	12,899	17.90	248,098	5.20
울산	40,376	6,506	16.11	192,427	3.38
세종	7,656	1,812	23.67	94,031	1.93
경기	424,697	74,480	17.54	2,339,220	3.18
강원	81,160	12,646	15.58	226,985	5.57
충북	73,264	13,105	17.89	256,639	5.11
충남	83,610	14,629	17.50	363,706	4.02
전북	123,431	22,531	18.25	277,166	8.13
전남	98,597	16,466	16.70	268,855	6.12
경북	139,946	21,674	15.49	387,460	5.59
경남	162,489	29,734	18.30	540,583	5.50
제주	31,697	7,181	22.66	123,992	5.79

자료 : KOSIS(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2023.11.01.

2) 한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더욱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8년 408,378명이었던 한부모 가정 18세 이하 인구는 2022년 355,123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전체 한부모 가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26.53%였던 것이 2019년 25.12%, 2020년 24.35%였으며, 2022년 23.77%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표 3-1-6〉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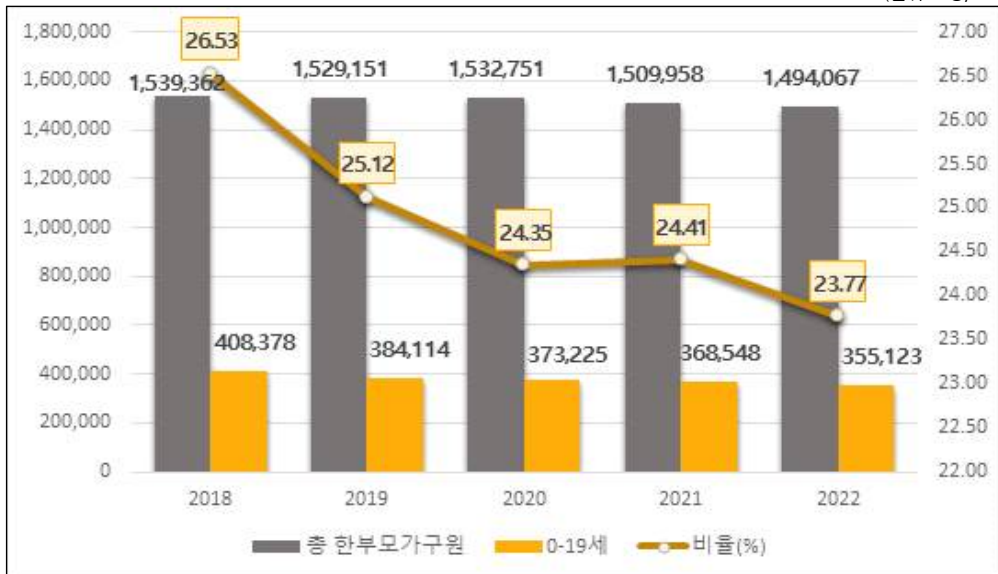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한부모 가구원	1,539,362	1,529,151	1,532,751	1,509,958	1,494,067
18세 이하	408,378	384,114	373,225	368,548	355,123
비율(%)	26.53	25.12	24.35	24.41	23.77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 2023.11.01.

[그림 3-1-6]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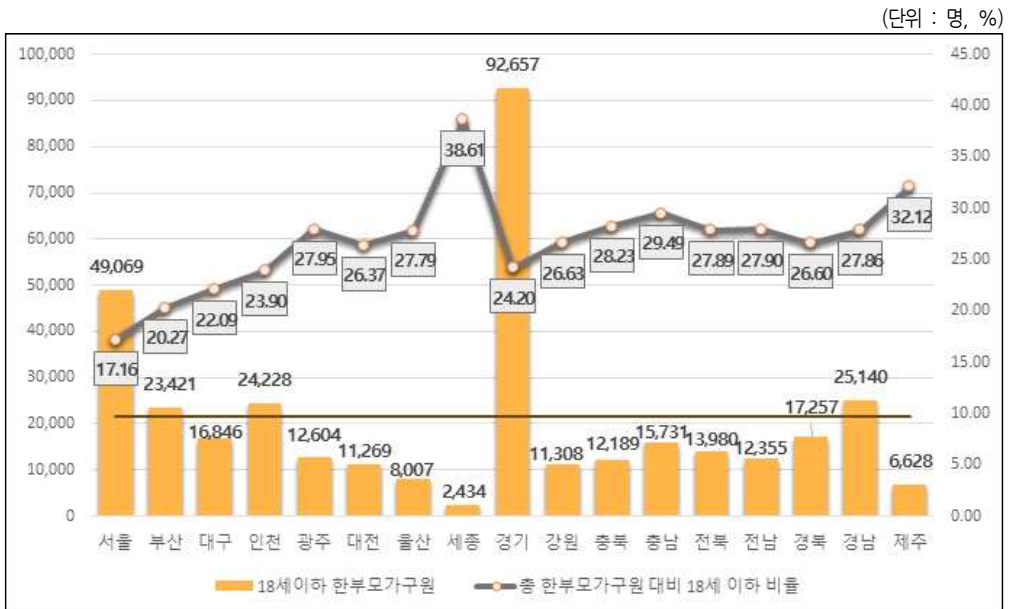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 2023.11.01.

시·도별 한부모 가정 총인구 대비 한부모 가정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세종시 38.61%, 제주도 32.12%, 충청남도 29.49% 순으로 높았다. 전국 한부모 가정 총인구 대비 한부모 가정 18세 이하 비율은 평균 23.77%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경기도에 92,657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에 49,069명으로 두 번째 많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별로 일반가정 19세 이하 청소년 인구 대비 18세 이하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제주도가 5.35%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5.03%, 5.0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7> 참조).

[그림 3-1-7] 시도별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 2023.11.01.

〈표 3-1-7〉 전국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단위 : 명, %)

시도	한부모 가정			총 19세 이하	총 19세 이하 대비 한부모 가정 18세 이하 비율
	한부모 가구원	한부모 가정 18세 이하	한부모 가구원 대비 18세 이하 비율		
전국	1,494,067	355,123	23.77	8,163,374	4.35
서울	285,878	49,069	17.16	1,265,018	3.88
부산	115,532	23,421	20.27	466,301	5.02
대구	76,262	16,846	22.09	371,959	4.53
인천	101,386	24,228	23.90	481,948	5.03
광주	45,102	12,604	27.95	258,986	4.87
대전	42,739	11,269	26.37	248,098	4.54
울산	28,811	8,007	27.79	192,427	4.16
세종	6,304	2,434	38.61	94,031	2.59
경기	382,892	92,657	24.20	2,339,220	3.96
강원	42,459	11,308	26.63	226,985	4.98
충북	43,182	12,189	28.23	256,639	4.75
충남	53,352	15,731	29.49	363,706	4.33
전북	50,127	13,980	27.89	277,166	5.04
전남	44,291	12,355	27.90	268,855	4.60
경북	64,881	17,257	26.60	387,460	4.45
경남	90,234	25,140	27.86	540,583	4.65
제주	20,635	6,628	32.12	123,992	5.35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자녀연령별 한부모 가구) 2023.11.01.

3) 조손 가정

최근 5년간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70,904명에서 2020년 68,656명에서 2022년 65,27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총 조손 가정 인구 대비 19세 이하의 비중 역시 2018년 23.79%에서 2019년 23.28%, 2020년 22.26%였으며, 2021년 21.41%, 2022년 21.24%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3-1-8〉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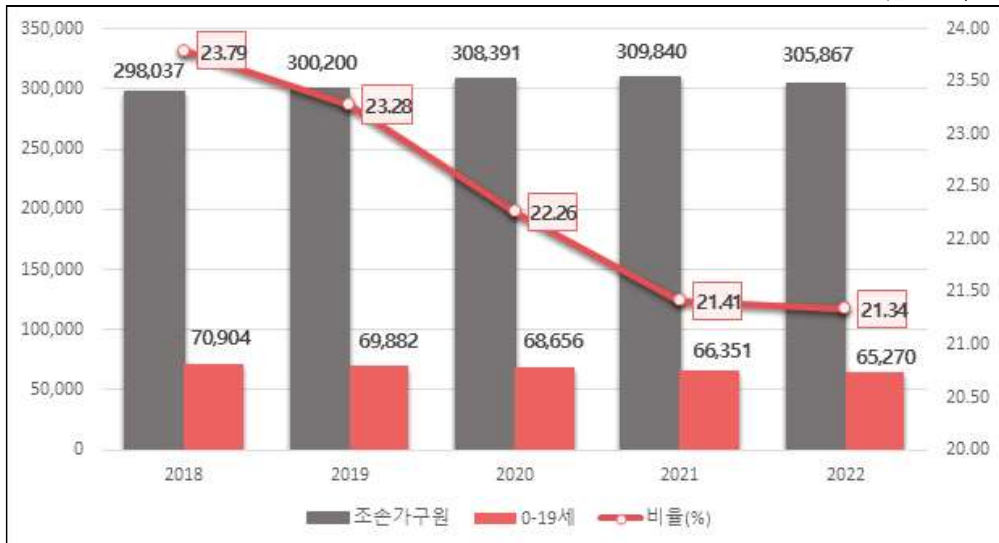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조손 가구원	298,037	300,200	308,391	309,840	305,867
0-19세	70,904	69,882	68,656	66,351	65,270
비율(%)	23.79	23.28	22.26	21.41	21.34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2023.11.01.

[그림 3-1-8]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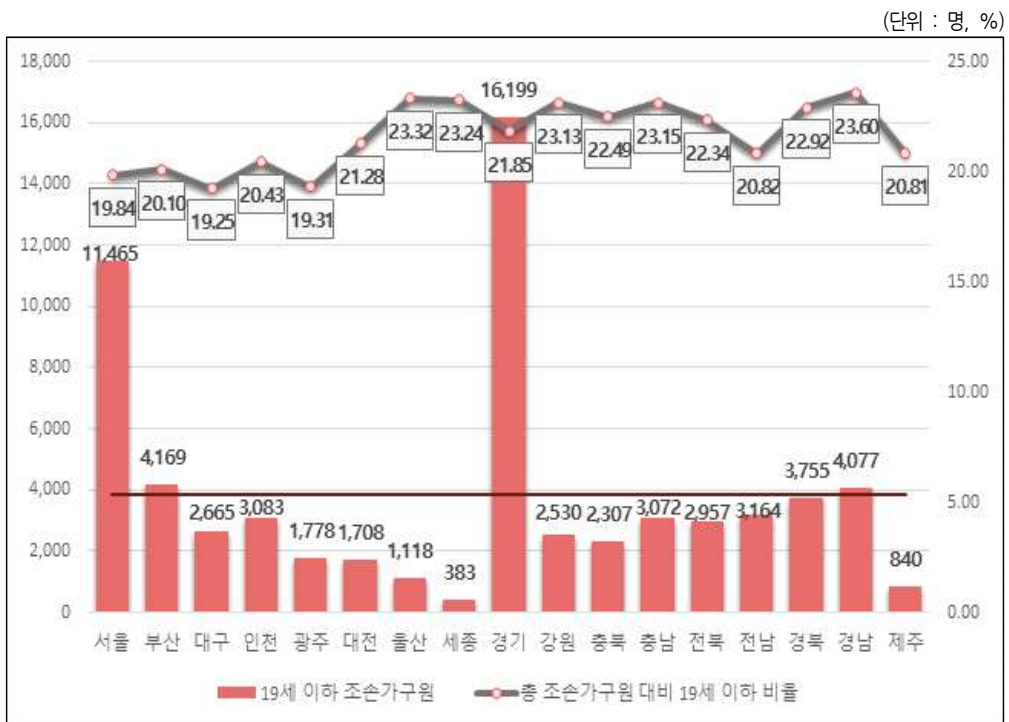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2023.11.01.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은 경기도에 16,199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서울시에 11,465명이 거주하고 있다. 전체 조손 가정 인구 대비 19세 이하 조손 가정 자녀 비율은 경상남도 23.60%, 울산시 23.32%, 세종시 23.24% 순으로 전국 평균 21.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비 조손 가정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평균은 0.80%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1.18%로 가장 높고, 강원도가 1.11%, 전라북도가 1.07%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9〉 참조).

[그림 3-1-9] 사·도별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2023.11.01.

〈표 3-1-9〉 전국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현황(2022)

(단위 : 명, %)

시도	조손 가정			총 19세 이하	총 19세 이하 대비 조손가정 19세 이하 비율
	조손 가구원	19세 이하 조손가정 자녀	총 조손 가구원 대비 19세 이하 비율		
전국	305,867	65,270	21.34	8,163,374	0.80
서울	57,785	11,465	19.84	1,265,018	0.91
부산	20,742	4,169	20.10	466,301	0.89
대구	13,846	2,665	19.25	371,959	0.72
인천	15,087	3,083	20.43	481,948	0.64
광주	9,208	1,778	19.31	258,986	0.69
대전	8,026	1,708	21.28	248,098	0.69
울산	4,794	1,118	23.32	192,427	0.58
세종	1,648	383	23.24	94,031	0.41
경기	74,136	16,199	21.85	2,339,220	0.69
강원	10,937	2,530	23.13	226,985	1.11
충북	10,258	2,307	22.49	256,639	0.90
충남	13,269	3,072	23.15	363,706	0.84
전북	13,237	2,957	22.34	277,166	1.07
전남	15,196	3,164	20.82	268,855	1.18
경북	16,386	3,755	22.92	387,460	0.97
경남	17,275	4,077	23.60	540,583	0.75
제주	4,037	840	20.81	123,992	0.68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2023.11.01.

다.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

전국 19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인구는 2022년 기준 94,752명으로 2018년 90,068명, 2020년 90,175명에 비해 4천여명 증가했다. 전체장애인 인구에서 19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7년 3.48%에서 2022년 3.5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0〉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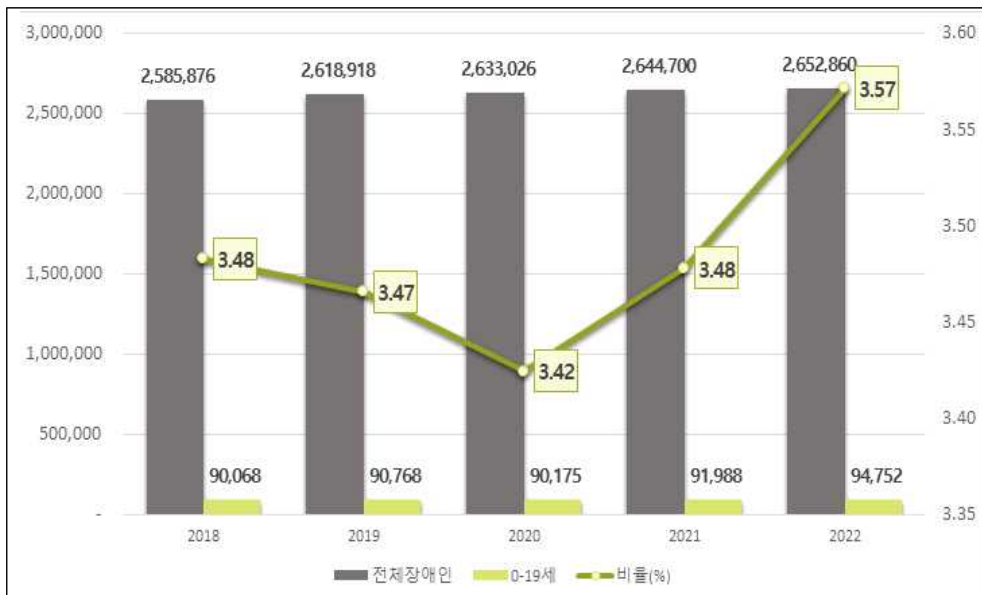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체장애인	2,585,876	2,618,918	2,633,026	2,644,700	2,652,860
0-19세	90,068	90,768	90,175	91,988	94,752
비율(%)	3.48	3.47	3.42	3.48	3.57

자료 : 보건복지부(2018-2022), 「장애인등록현황」

[그림 3-1-10] 장애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단위 : 명, %)



자료 : 보건복지부(2018-2022), 「장애인등록현황」

전체 장애인 인구 대비 19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비중은 세종시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제주도 4.86%, 광주광역시 4.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19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은 각각 715명, 1,80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이지만, 전체 장애인 대비 19세 이하 비중은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그림 3-1-11> 참조).

반면, 전체 19세 이하 인구 대비 장애 아동·청소년 비율은 제주도가 1.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라북도 1.33%, 경상북도 1.31%로 전국 평균 1.16% 보다 높았다. 장애 아동·청소년은 경기도에 25,156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서울시가 13,719명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다(<표 3-1-10> 참조).

[그림 3-1-11] 사·도별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2022)



자료 :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등록현황」

〈표 3-1-11〉 전국 장애 아동·청소년 현황(2022)

(단위 : 명, %)

시도	장애 아동·청소년			총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총 19세 이하 대비 장애 아동·청소년 비율
	전체장애인 수	19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전체장애인 대비 19세 이하 비율		
전국	2,652,860	94,752	3.57	8,163,374	1.16
서울	391,859	13,719	3.50	1,265,018	1.08
부산	176,245	5,904	3.35	466,301	1.27
대구	127,611	4,511	3.53	371,959	1.21
인천	151,035	5,541	3.67	481,948	1.15
광주	69,476	3,135	4.51	258,986	1.21
대전	71,941	3,018	4.20	248,098	1.22
울산	51,473	2,182	4.24	192,427	1.13
세종	12,863	715	5.56	94,031	0.76
경기	584,834	25,156	4.30	2,339,220	1.08
강원	101,794	2,640	2.59	226,985	1.16
충북	97,966	3,325	3.39	256,639	1.30
충남	134,957	4,386	3.25	363,706	1.21
전북	132,014	3,696	2.80	277,166	1.33
전남	138,595	3,453	2.49	268,855	1.28
경북	182,835	5,091	2.78	387,460	1.31
경남	190,186	6,472	3.40	540,583	1.20
제주	37,176	1,808	4.86	123,992	1.46

자료 : 보건복지부(2022), 「장애인등록현황」

라.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

전국 농어촌에 거주 중인 19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2018년 1,563,149명에서 2020년 1,462,963명, 2022년에는 1,348,515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인다. 농어촌 전체 인구 대비 농어촌 아동·청소년의 비중 역시 2018년 16.09%, 2020년 14.98%였으며, 2022년에는 14.04%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2〉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단위 : 명, %)

구분	연령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전국	전체	51,629,512	51,779,203	51,829,136	51,738,071	51,692,272
	0-19세	9,315,774	9,029,521	8,703,718	8,400,770	8,163,374
	비율(%)	18.04	17.44	16.79	16.24	15.79
농어촌	전체	9,714,313	9,756,098	9,763,833	9,718,290	9,605,378
	0-19세	1,563,149	1,514,624	1,462,963	1,411,633	1,348,515
	비율(%)	16.09	15.52	14.98	14.53	14.04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2023.11.01.

* 농어촌은 전국 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하였음.

[그림 3-1-12] 농어촌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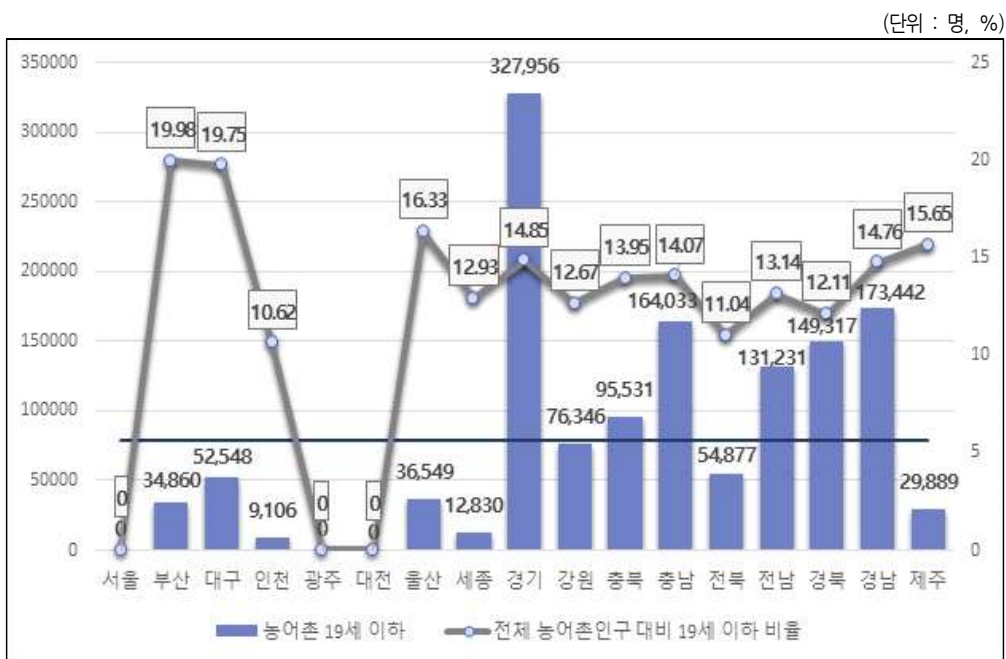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2023.11.01.

시·도별로 전체 농어촌 인구 대비 농어촌 아동·청소년 인구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19.98%, 대구광역시가 19.75%로 성인 대비 아동·청소년 거주율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총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비 농어촌 거주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비중은 전라남도가 48.81%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남도가 45.10%, 경상북도가 38.54%로 그다음 높았다(〈표 3-1-13〉 참조).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읍, 면 지역이 없어 농어촌 거주 인구가 없다.

[그림 3-1-13] 시·도별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2022)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2023.11.01.

〈표 3-1-13〉 시도별 농어촌 아동·청소년 현황(2022)

(단위 : 명, %)

시도	농어촌지역 아동·청소년			총 19세 이하	총 19세 이하 대비 농어촌 19세 이하 비율
	농어촌 인구수	0-19세	총 가구원 대비 19세 이하 비율		
전국	9,605,378	1,348,515	14.04	8,163,374	16.52
서울	0	0	0	1,265,018	0
부산	174,501	34,860	19.98	466,301	7.48
대구	266,123	52,548	19.75	371,959	14.13
인천	85,749	9,106	10.62	481,948	1.89
광주	0	0	0	258,986	0
대전	0	0	0	248,098	0
울산	223,854	36,549	16.33	192,427	18.99
세종	99,218	12,830	12.93	94,031	13.64
경기	2,207,751	327,956	14.85	2,339,220	14.02
강원	602,361	76,346	12.67	226,985	33.63
충북	685,000	95,531	13.95	256,639	37.22
충남	1,165,842	164,033	14.07	363,706	45.10
전북	497,299	54,877	11.04	277,166	19.80
전남	998,553	131,231	13.14	268,855	48.81
경북	1,233,197	149,317	12.11	387,460	38.54
경남	1,174,927	173,442	14.76	540,583	32.08
제주	191,003	29,889	15.65	123,992	24.11

자료 : KOSIS(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읍면동) 2023.11.01.

마. 보호·교정시설 아동·청소년 현황

1) 아동·청소년 복지·보호시설

가정을 떠나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추이를 살펴보면, 공동생활 가정 아동·청소년은 2017년 2,758명에서 2018년 2,811명, 2021년 3,105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반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은 2017년 13,689명에서 2018년 12,789명, 2021년 11,005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대안 가정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2017년 31,197명, 2019년 32,402명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 급격하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소로 추측되며 2020년에 비해 2021년 다시 상승하고 있다.

〈표 3-1-14〉 복지·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증가현황(2017~2021)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
청소년쉼터	31,197	32,109	32,402	20,401	21,475
아동복지시설*	13,689	12,789	12,193	11,665	11,005
공동생활가정	2,758	2,811	2,872	2,949	3,105
계	47,644	47,709	47,467	35,015	35,585

자료 : 여성가족부(2017-2021),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보건복지부(2017-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현황」

주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합계임.

[그림 3-1-14] 최근 5년간 복지·보호시설 아동·청소년 증가 추이 (2017~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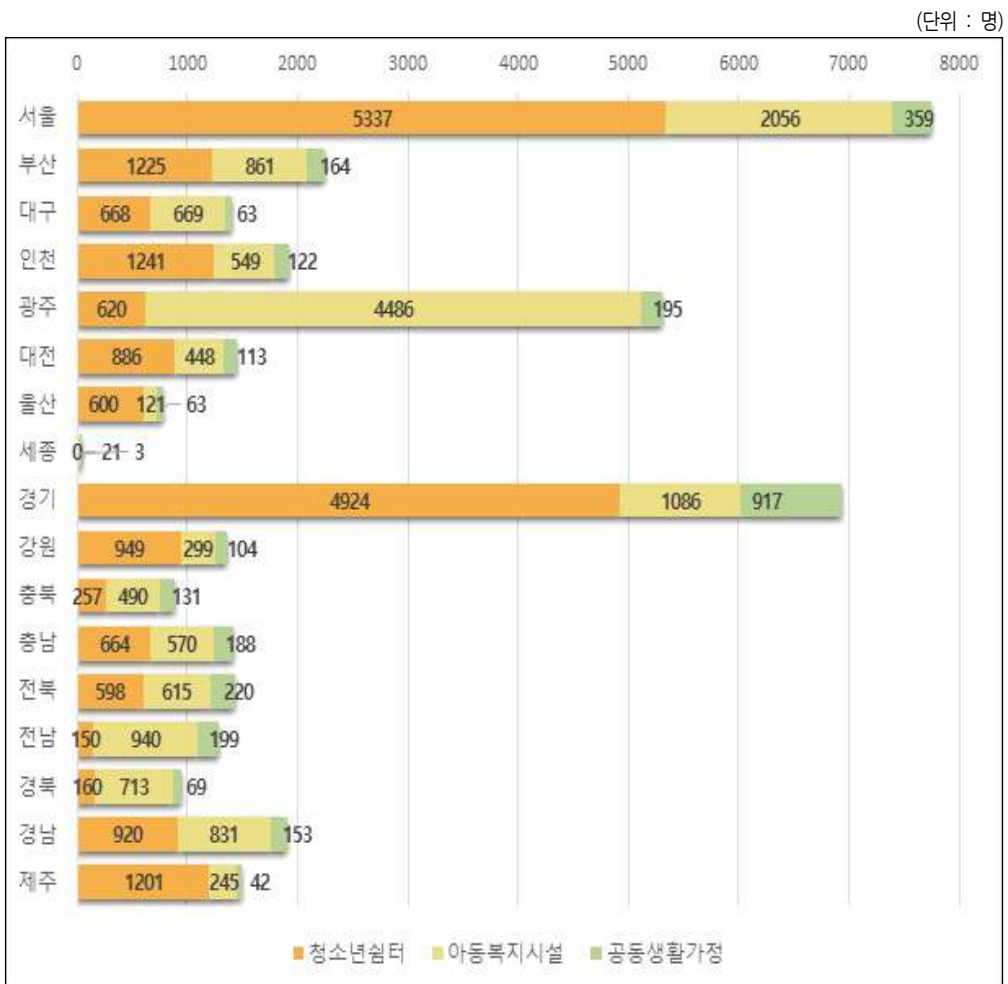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7-2021),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보건복지부(2017-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현황」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7,75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6,927명, 광주광역시 5,30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공동생활가정과 청소년쉼터 역시 서울이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그다음으로 높았으나 아동복지시설은 광주광역시가 4,48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2,056명, 경기도 1,086명 순으로 많았다(<표 3-1-15> 참조).

[그림 3-1-15] 사·도별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현황(2021)



자료 : 여성가족부(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1), 「아동복지시설현황」, 「공동생활가정현황」

〈표 3-1-15〉 전국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현황(2020, 2021)

(단위 : 명)

구분	공동생활가정 (2021)	아동복지시설 (2021)	청소년쉼터 (2020)	합계
전국	3,105	11,005	20,401	34,511
서울	359	2,056	5,337	7,752
부산	164	861	1,225	2,250
대구	63	669	668	1,400
인천	122	549	1,241	1,912
광주	195	4,486	620	5,301
대전	113	448	886	1,447
울산	63	121	600	784
세종	3	21	0	24
경기	917	1,086	4,924	6,927
강원	104	299	949	1,352
충북	131	490	257	878
충남	188	570	664	1,422
전북	220	615	598	1,433
전남	199	940	150	1,289
경북	69	713	160	942
경남	153	831	920	1,904
제주	42	245	1,201	1,488

자료 : 여성가족부(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보건복지부(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현황」

* 시도별 청소년쉼터 자료는 2020년 자료만 배포되어 있어 2020 자료로 사용.

2) 소년 보호기관 및 수용자 자녀

범죄와는 관련 없는 복지·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이외에, 14세~19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7호~10호)을 받고, 소년의료 보호시설(7호), 소년원(8호~10호)에서 강제 보호되고 있는 보호소년⁴⁾과 위탁 소년⁵⁾은 2022년 기준 5,689명이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7,902명에서 2021년 5,237명으로 감소추세이지만, 2022년 5,689명으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장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현재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반해, 범죄 소년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사업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표 3-1-16〉 보호소년 및 위탁 소년 현황(2018~2022)

(단위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보호소년	2,199	2,077	1,637	1,361	1,520
위탁 소년	5,703	4,955	4,297	3,876	4,169
계	7,902	7,032	5,934	5,237	5,689

자료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한편, 2021년 법무부가 전국 교정기관 수용자(51,050명)를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751명 가운데, 자녀가 있는 수용자 7,848명 중 미성년 자녀는 총 12,167명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미취학 아동과 초등 아동이 61.5%에 달한다.

〈표 3-1-17〉 수용자 미성년 자녀 연령별 현황(2021)

(단위 : 명, %)

연령	0~6세	7~9세	10~12세	13~18세	계
인원	3,094 (25.4)	2,094 (17.2)	2,289 (18.8)	4,690 (38.5)	12,167 (100.0)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1.5.11. 재구성

4) 소년부 판사의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5)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건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

수용되기 이전과 이후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용 전에는 함께 생활하였거나 정기적인 만남이 있었던 비율이 95.4%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수용 이후에는 간접 연락(37.7%)이나 연락이 없는(13.8%) 비율이 과반수(51.5%)로 조사되어 수용 후에는 자녀와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18〉 수용 전후 자녀와의 관계(2021)

(단위 : 명, %)

수용 전				수용 후				
함께 생활	정기적 만남 있음	정기적 만남 없음	소계*	접견 있음	전화, 편지 있음	간접 연락	연락 없음	소계*
5,841 (74.4)	1,648 (21.0)	359 (4.6)	7,848 (100.0)	1,914 (24.4)	1,890 (24.1)	2,960 (37.7)	1,084 (13.8)	7,848 (100.0)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1.5.11. 재구성

*주 : 소계는 응답한 수용자 기준

수용 후 주 양육자는 배우자가 81.8%로 대다수의 수용자 자녀는 부모 중 어느 한쪽과 생활하고 있으나 조부모(9.2%)나 형제자매(2.0%), 위탁시설(2.4%) 등 원가정을 떠나 대안적인 가정에 위탁된 경우도 상당수 있었으며, 특히 수용자 54명의 자녀 80명은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표 3-1-19〉 수용자 미성년 자녀의 주 양육자(2021)

(단위 : 명, %)

양육자	배우자	자녀의 조부모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성년인 수용자의 자녀	위탁시설
인원	6,416 (81.8)	719 (9.2)	161 (2.0)	95 (1.2)	186 (2.4)
양육자	지 인	혼자 생활	모름	기타	합계*
인원	57 (0.7)	54 (0.6)	76 (1.0)	87 (1.1)	7,848 (100.0)

자료 : 법무부 보도자료, 2021.5.11.

*주 : 합계는 응답한 수용자 기준

바.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은 2018년 50,057명에서 2020년 52,261명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1년 32,027명으로 급격하게 줄었다가 2022년 42,755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업 중단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학생 수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비율은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20〉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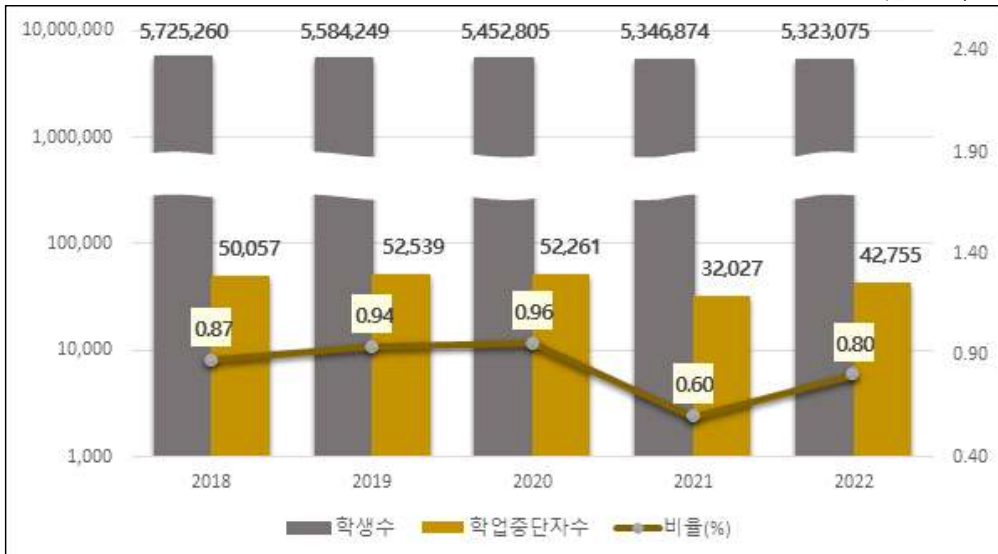
(단위 : 명, %)

	2018	2019	2020	2021	2022
학생 수	5,725,260	5,584,249	5,452,805	5,346,874	5,323,075
학업 중단자 수	50,057	52,539	52,261	32,027	42,755
비율	0.87	0.94	0.96	0.60	0.8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8-2022), 「교육통계서비스」

[그림 3-1-16]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증감 추이(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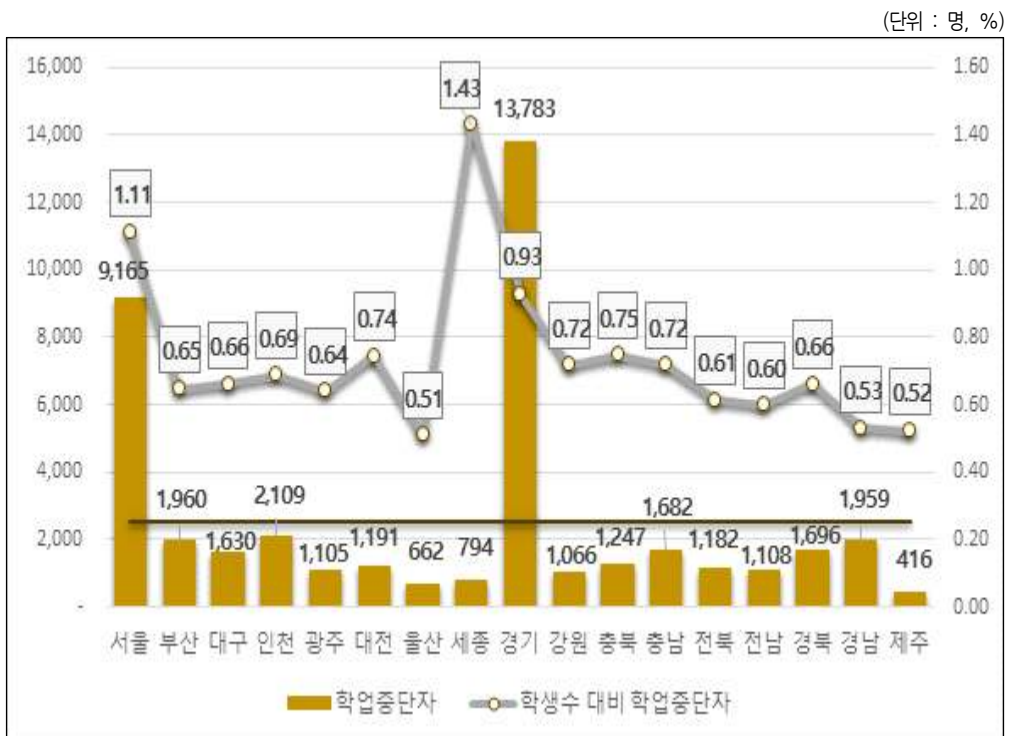
(단위 : 명, %)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8-2022), 「교육통계서비스」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3,783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9,165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학생 수 대비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비율은 세종시가 1.43%로 가장 높고, 서울시가 1.11%, 그 다음이 경기도 0.93%로 학업 중단 인원은 경기도가 가장 많았지만, 학생 수 대비 비율은 세종시, 서울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7] 시도별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202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8-2022), 「교육통계서비스」

〈표 3-1-21〉 전국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현황(2022)

(단위 : 명, %)

구분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생 수 대비 학업 중단자
전국	5,323,075	42,755	0.80
서울	825,503	9,165	1.11
부산	302,777	1,960	0.65
대구	247,137	1,630	0.66
인천	307,177	2,109	0.69
광주	172,634	1,105	0.64
대전	159,882	1,191	0.74
울산	130,220	662	0.51
세종	55,366	794	1.43
경기	1,487,408	13,783	0.93
강원	148,634	1,066	0.72
충북	166,947	1,247	0.75
충남	234,956	1,682	0.72
전북	192,793	1,182	0.61
전남	184,981	1,108	0.60
경북	256,611	1,696	0.66
경남	370,341	1,959	0.53
제주	79,708	416	0.52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8-2022), 「교육통계서비스」

2.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현황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7개 범주(장애, 농촌,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 보호·교정시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취약유형에 따른 정책 및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정부의 각 부처별 정책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3-2-1〉 취약유형에 따른 정부 부처의 아동·청소년 정책

구분	주관부처	정책/사업	관련 법	사업 내용	추진체계
신체적 취약계층	보건복지부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장애인복지법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장애아 가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복지센터 (지정 기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지정기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건강,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정서, 심리, 취업 지원 등을 지원	청소년쉼터
	여성가족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문화 사업 진행, 한부모, 다문화 소득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법무부	소년원생 교육	소년법	상담, 생활지도,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특별활동 등	법무부
	법무부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소년법	가정환경조사, 신체검사, 행동관찰, 상담, 정신의학적 진단, 심리검사 등	법무부
경제적 취약계층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 지원관 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자립준비 청소년에게 교육, 진학, 취업, 일상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법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보건복지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법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 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육구 파악,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자체
	보건복지부	아동양육시설 운영	아동복지법	보호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자체
	보건복지부	공동생활가정 운영	아동복지법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자체
문화적 취약계층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언어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언어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다문화가족 지원법	이중언어 환경조성으로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다문화 가족지원법	한국어교육, 진로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주로 다문화, 학교 밖, 한부모·조손 가족 아동·청소년 등 문화적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2〉 여성가족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부처	정책/사업	관련 법	사업내용	추진체계
여성가족부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언어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언어 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중언어 환경 조성으로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청소년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한국어 교육, 진로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및 다문화 감수성 증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건강,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정서, 심리, 취업 지원 등을 지원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복지지원법	자립 준비 청소년에게 교육, 진학, 취업, 일상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건강가정기본법	가족 문화 사업 진행, 한부모, 다문화, 조손, 저소득 등 취약계층 우선 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1)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본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도모한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 교육을 제공하여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3).

주요 사업내용은 첫째,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둘째,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을 제공하며, 셋째,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 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2022년 말 현재 전국에 총 330명의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를 배치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언어평가 및 언어 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로 다문화가족을 우선으로 지원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외국인 가족, 북한 이탈주민 가족도 지원하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표 3-2-3〉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 배치 현황

(단위 :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30	40	16	12	16	10	11	10	2	45	19	13	21	23	29	25	32	6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사업안내」(2권), 2023.

나)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정체성 확립 및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상호작용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며, 예비 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며,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운영인력은 다문화가족센터 내에 배치된 이중언어코치가 담당하며, 전국에 210명의 이중언어코치가 배치되어 있다. 사업내용은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교실, 이중언어 활용프로그램, 가족 코칭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4〉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 내용

영역	내용	운영시간
이중언어 부모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 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20시간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 등 이중언어를 사용하여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동요·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상호작용 코칭 	120시간 (그룹당 20시간, 1그룹당 27명 이상)
이중언어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실 운영 ① 해당 지역 센터에서 지원되지 않는 언어는 인근 센터로 연계 지원 (온라인·비대면 수업 가능) ② 세부 매뉴얼 배포(연중) 전 자율적인 수업 운영 가능 	상반기 : 자율 운영 하반기 : 10시간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국의 결혼이민자들 주체로 이중언어 사용 지지를 위한 부모 지지체계 형성의 장 마련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방법 등을 공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해 출신국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 (예 : 베트남의 날-베트남 음식 나누기, 전통 놀이 등을 베트남어만 사용하여 함께 하기 등) 	10시간
가족 코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 중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 초청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족 구성원 전체 (배우자, 시부모 등)에 대한 코칭 실시 	자율 운영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사업안내」(2권), 2023.

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본 사업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원만한 한국 사회적응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 가족의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탈북청소년을 의미한다. 사업 추진 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은 동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9세~24세 이주배경청소년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청소년,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 및 북한이탈청소년이다.

사업내용은 레인보우스쿨,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상담 지원 및 상담 환경 조성,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인력 양성 등이다.

〈표 3-2-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내용

구분	내 용
레인보우스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전국 17개시·도, 26개 기관에서 운영(위탁 운영) • 한국어 교육(기초·심화, 학습), 진로 교육(진로 탐색·설계), 필수교육(안전, 유해환경),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지원 • 총 32주(1학기 16주, 2학기 16주), 전일제, 시간제 운영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문화체험학습 : 기초 생활 체험(대중교통 이용, 교통카드 충전), 경제생활 체험(남한의 화폐사용 및 물품 구매체험), 교육기관 체험(대학 탐방), 문화 체험, 역사 체험 등 • 미래를 향한 첫걸음 :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성, 인권, 진로, 건강, 자기 이해 등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 건강한 가치관 확립
상담 지원 및 상담환경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 및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한 통합적 심리정서지원(대면, 비대면, 온라인 등) • 이주배경청소년의 원활한 심리·상담을 돕고자 상담 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지원
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다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 감수성 증진 프로그램 12차시 운영(다양성, 관계성, 보편성)을 위해 강사 파견, 프로그램 보급 및 교육 자료 지원 • 초·중학생 등 학령기 청소년의 다문화 감수성을 향상해 인식개선 및 세계 시민의식 제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배경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다문화 역량 강화 청소년 지도자 대상 다문화 역량 강화 교육과정 제작 및 보급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사업안내」(2권), 2023.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이 있다. 2023년 현재 전국에 222개 센터가 설치·운영 중이다.

〈표 3-2-6〉 전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2023)

(단위 : 개소)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2	26	17	9	9	6	3	5	1	32	13	13	16	10	23	15	21	3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동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는데, ①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 설명회, 의무교육 단계 미취학·학업 중단 학생 학습지원 사업 시행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②적성검사 실시, 직업탐색 및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 ③전용 공간 마련, 스포츠·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④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실시 등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여성가족부, 2023).

◦ **상담 지원** : 대상은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이며, 대면상담,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및 모바일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 심리, 진로, 가족관계 및 친구 관계 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센터로 정보가 연계되었으나 연락 두절,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미지원된 청소년에 대해서는 지역 내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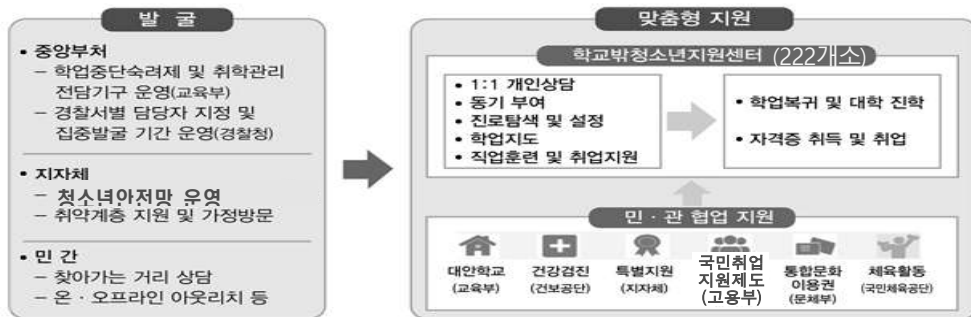
◦ **교육 지원** : 학업능력 향상 등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학업 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센터 내 검정고시반 운영, 검정고시 학원 연계 등을 통해 지원한다. 기존 학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등 학교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절차를 안내하며, 대학입시 지원으로 고졸 학력 취득 이후 사후관리 차원의 대학 진학 관련 정보 제공과 대학입시 설명회 참여, 대학 캠퍼스 투어 등 대학 입시정보 제공이 이루어 진다.

◦ **직업 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 직업적성 발견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직업훈련 및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기관 연계 지원 프로그램으로 내일이름학교,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적극적 연계, 지역 내 민간 직업훈련기관 및 작업장을 적극 발굴하여 직업훈련 기회 제공,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창업캠프 등 창업지원 연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자립 지원** :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특히, 민·관 협업 지원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통합 문화이용권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그림 3-2-1) 참조).

○ **건강 검진** : 본인 부담이 없이 10대 특성에 맞춘 건강 검진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 내부 자료(2023)

(그림 3-2-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흐름도



자료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재구성

3) 보호·복지시설 청소년 지원

가) 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쉼터 정책의 목적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근거하여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 복귀, 취업 지원 등 맞춤형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속한 가정 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정 밖(가출 징후)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 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7〉 청소년쉼터의 종류

구분	일시 쉼터	단기 쉼터	중장기 쉼터
보호기간	24시간~7일 이내	3개월 이내 단기 보호 (3개월씩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최장 9개월 이내)	3년 이내 중장기 보호 (1회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
이용 대상	가출·거리 배회·노숙 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 의지가 있는 가정 밖 청소년
핵심 기능	일시보호 및 거리 상담 비원(아웃리치)	심리·정서·상담 지원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심리·정서 상담 지원, 학업 지원,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개입 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 서비스 제공 - 조기 구조, 발견, 단기 청소년쉼터와 연계 -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 지원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및 예방 활동 - 의식주,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 - 일시·중장기 쉼터와 연계 - 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연계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자립 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 지역 및 주요 도심)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 예방, 조기 발견, 조기 개입 및 보호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사업안내」(2권), 2022.

주요 사업내용은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 제공, 상담·선도·수련 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사례관리,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그 외 청소년복지 지원에 활동, 지역 사회 청소년 안전망과 연계협력 강화 등이다.

청소년쉼터의 종류는 보호기간에 따라 일시 쉼터(24시간~76일 이내), 단기 쉼터(3개월 이내), 중장기 쉼터(3년 이내)로 구분하며, 각 유형별로 이용 대상과 핵심 기능에 차이가 있다(〈표 3-2-7〉 참조). 3년 내외의 비교적 장기간 보호되는 청소년이 거주하는 중장기 쉼터를 대상으로 독서프로그램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 도서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나)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 등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립지원관의 유형에는 청소년이 종사자와 숙식을 함께 하는 생활관 운영 여부에 따라 주거 연계형(이용형)과 혼합형으로 구분하는데, 주택 연계형은 비숙박형 이용시설이고, 혼합형은 숙박형 생활시설이다.

〈표 3-2-8〉 청소년자립지원관 유형

구분	이용형	혼합형
지원내용	<p>[주거 연계] + 자립 지원 서비스</p> <p>*자립 준비 청소년은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하면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p>	<p>[주거 연계 + 생활관 운영] + 자립 지원 서비스</p> <p>*자립 준비 청소년은 독립된 주거에서 생활 (필요시 일정 기간 생활관 이용)하면서 시설 서비스를 이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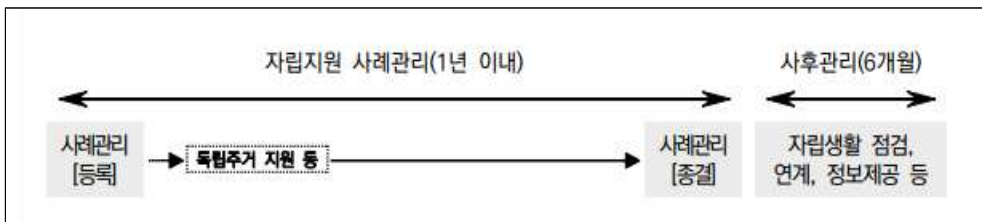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사업안내(2권)」, 2022.

사업내용은 자립 준비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자원,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간 자원 등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와 주거 지원을 기반으로 소득·생계·금융지원, 교육·진학 지원, 취업·훈련지원, 건강·일상 지원을 개인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용 대상은 청소년 쉼터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예정) 청소년 중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19~24세 우선 지원),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으로서 사례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정 밖 청소년이다.

사례관리 기간은 1년 이내, 사후관리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자립 지원 요원 1인당 사례관리 대상은 8명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생활관 정원은 청소년 1인당 전용면적(11m²)과 생활공간(침실, 화장실, 자립활동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책정한다.

[그림 3-2-3]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



자료 : 여성가족부, 「2022 청소년사업안내」(2권), 2022.

4) 저소득한부모·조손 가족 지원

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 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 나눔, 가족 교육, 가족 상담, 가족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참가자에 대한 제한이 없는 모든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조손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족 지원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한부모, 조손,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으로 명시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표 3-2-9〉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 유형

구분	시·군·구센터 공통사업	내용
가족 돌봄 나눔 * 3가지 사업 중 2가지 선택	모두 가족 봉사단	• 기존의 가족봉사단의 활동 내용을 ‘돌봄’ 을 주제로 전환하여 운영
	모두 가족 품앗이	• 전업주부와 맞벌이 주부가 함께 운영하는 품앗이, 남성이 참여하는 품앗이 등 다양한 그룹 운영
	아버지-자녀 돌봄 프로그램	•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가족 교육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	•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 • 예비/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등 • 예비 부모 교육, 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교육 등
	남성 대상 교육	• 아버지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남성 대상 자기돌봄 교육 등
가족 상담	가족(집단) 상담	•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의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접근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의 통합적 접근을 포함 • 가족 단위의 면접 상담 유도 • 연간 상담실적이 100명 이하인 센터는 가족 집단상담 연간 2건 이상 반드시 포함
가족 문화	가족 사랑의 날	• 수요일, 가족이 모두 함께하는 프로그램
	가족친화문화 프로그램	• 가족 캠프, 가족 축제, 가족 체험활동 등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협의체 참여, 협약 및 연계사업	• 지역사회 협의체,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용 및 참여

자료 : 여성가족부, 「2023 가족사업안내(1권)」, 2023.

나) 가족역량강화사업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부처의 별도 예산을 책정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위기 가족(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 가족 등)과 긴급위기 가족(사고·재난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서비스는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부모 교육, 가족관계, 자녀 양육 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자녀 학습·정서 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지원), 생활도움 지원(키움보듬이 파견 지원), 긴급위기 지원(지지 리더, 키움보듬이 파견),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지원 등이다.

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로 장애, 저소득, 보호·복지 시설 거주 아동·청소년 등 신체적 취약계층과 경제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10〉 보건복지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정부부처	정책/사업	관련 법	사업내용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장애아 가족 문화 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 운영	행정복지센터 (지정 기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 제공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지정)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법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드림스타트	아동복지법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중 사업 대상 아동 발굴 및 문제·육구 파악,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건강, 영양, 교육, 문화, 복지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자체
	아동양육시설 운영	아동복지법	보호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자체
	공동생활가정 운영	아동복지법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자체

1) 장애 아동 지원

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4조 1항에 따라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장애아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a).

○ **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이며,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 가정은 무료이고,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를 부담한다.

지원 서비스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이며,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한다.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에서 지원하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도에서 지정받은 기관이며, 돌봄미 역할은 학습·놀이 활동, 안전·신변 보호 처리, 외출 지원 등 장애아 양육지원을 기본 임무로 하여 장애아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지원,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의 역할도 수행한다.

○ **휴식 지원 프로그램** :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대상이 되며,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서비스는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 가족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 휴식 지원 프로그램(비대면 프로그램 포함)과 돌봄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 모임 결성 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공유 등이 포함된다. 특히, 장애아 가족 대상 문화·교육 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 캠프 등의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2-11〉 장애아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방법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본인 및 가족 복지 담당 공무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상담 및 조사	장애인 복지 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	소득조사를 통한 대상자 조사 조사 결과를 입력·등록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장애인 복지 담당 (시·군·구)	선정 및 결과 통지(보호자, 사업시행기관)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서비스

나)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 지원 등)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휴식, 여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을 제공한다.

지원 서비스는 힐링캠프와 테마 여행으로 구성되며, 일정별 비용을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되며,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12〉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캠프 : 가족 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 상담캠프 - 강사초빙, 상담프로그램 등 지원 테마 여행 : 역사, 문화, 기관방문 등 - 여행지 관광 중심(체험비 가능) 지원 - 여행계획에 따라 참여자 모집
지원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별 비용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 일정 : 75,000원, - 1박 2일 일정 : 150,000원, - 2박 3일 일정 : 240,000원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최대 지원 금액 -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사업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 소요경비가 지원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이용자 실비 부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된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
돌보미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 확보 - 돌보미, 유급 자원봉사자, 무급 자원봉사자 등
휴식 지원 (힐링캠프, 테마여행) 돌보미 지원 방식 (2가지 방식 중 가족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행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지까지는 동반하고, 여행지에서는 가족과 별개의 프로그램 운영 - 별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시 돌보미 기준 확대(자원봉사자 등) - 가족이 보고 싶을 때 즉시 만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지원 거주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보미가 발달장애인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 지원 (동료상담캠프에 발달장애인이 미참여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1:1 지원 가능)

자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 서비스

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과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주간 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근거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은 만 6세~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아동이며,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중복 이용은 안 된다.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 시설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내용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용자는 수급 자격(제공 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에 등록 후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공기관은 취미·여가, 자립 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매월 66시간(월~토, 공휴일 제외)이며,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2) 저소득층 아동 지원

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법」 제52조 8항에 근거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 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4,295 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용 아동 수는 106,746명에 달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지원 대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며, 지원 서비스는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 지원), 문화서비스(체험 활동, 공연), 지역 연계(인적·기관 연계) 등이다(<표 3-2-13> 참조). 현재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프로그램과 가장 활발하게 연계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지역아동센터이며, 이용 대상이 주로 경제적·문화적 취약계층 아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연계·협력해야 할 것이다.

2004년 법제화된 이래 지난 20년간 많은 성과와 변화과정을 거쳐 온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 <표 3-2-14>과 같이 중앙부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지원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와 프로그램 연계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도서관 차원이

아닌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차원의 연계·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3-2-13〉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구분	내용	
기본 프로그램	보호 프로그램	빈곤, 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 지도, 급식 제공, 위생지도 등
	교육 프로그램	학생생활 준비, 숙제 지도, 예체능 교육, 안전교육, 기초학습 부진 아동 특별 지도, 독서지도 등
	문화프로그램	문화 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 적성 등
	복지 프로그램	사례관리, 상담, 정서 지원, 부모 교육, 가정 방문 등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 결연후원, 지역복지 활동 등
특화 프로그램	주말·공휴일 프로그램	평일 진행 불가능했던 프로그램과 주말에 참여가 가능한 체험학습 제공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아동 양육 기술 및 의사소통 증진, 부모집단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 가족 성장 교실, 지역주민 결연 및 멘토링 활동 등
	야간 보호 프로그램	늦은 시간까지 부모의 부재로 방임되는 아동보호
	청소년 프로그램	1:1 학습 멘토,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프로그램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소개

〈표 3-2-14〉 지역아동센터 사업 추진체계

추진 주체	기능 및 역할
보건복지부	- 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법령·제도개선 등 사업총괄 - 국고보조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예산지원·사업총괄 및 평가 등
아동권리보장원	- 종사자 교육 기획,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등 시설 운영지원 - 시도지원단 사업 조정·평가 및 아동복지교사 운영지원 - 중앙부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
시·도청	- 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집행 - 관할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 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 운영지원 - 시설 정보시스템 관리·평가사업 등 지원 - 시·도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지원 등
시·군·구청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관리, 예산지원 등 운영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이용·종결 관리 등
지역아동센터	- 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기관 및 지자체 협조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23 b),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재구성

나 드림스타트 사업

동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취약 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원만한 사회진입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7년 희망 스타트 사업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한 이래,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2023년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팀장과 전담 공무원 2~3인 및 통합사례관리사 기본 4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c).

사업 대상은 임신부와 만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조손가 정 포함), 다문화가정 등이다. 이 외, 만 13세 이상이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연령 도래 종결 시점(만 12세 이후)의 위기, 집중 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경우 만 15세까지 연장 가능하다.

사업내용은 아동에게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가족 지원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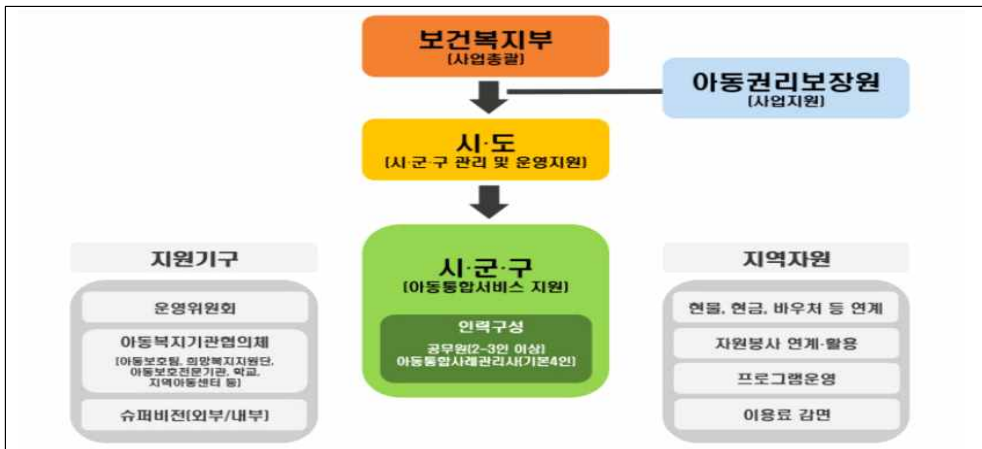
〈표 3-2-15〉 드림스타트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신체·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 검진 및 관련 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 - 건강관리(질병 관련 치료지원 등)
인지·언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 - 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 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
정서·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진로지도 등) - 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중독 상담 및 치료) - 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 문화체험(체험학습, 영화 및 공연 관람, 캠프 등)
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 - 부모지원(취업 지원, 자활 상담, 가계경제 상담 등) - 양육지원(다문화가정 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 산전산후관리 등

자료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소개.

드림스타트 사업의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가 정책을 총괄하고, 시·도는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 총괄 및 지원·관리, 시·군·구는 드림스타트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체계이며, 아동권리보장원이 전체 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 도서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은 많았으나 드림스타트 사업과는 거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취약계층 아동 서비스의 범주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드림스타트와 연계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4)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3) 복지시설 아동 지원

가) 아동양육시설 운영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로 보호 대상 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 양육, 취업 훈련, 자립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3 d).

지원 대상인 보호아동의 범위는 ①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②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③보호자의 학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해당 기관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④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⑤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등이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총 237개 아동양육시설에 10,072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2).

〈표 3-2-16〉 전국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현황(2021. 12월 말)

(단위 : 개소,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7 (시설 수)	35	18	17	9	10	10	1	1	25	8	10	13	14	21	16	24	5
10,072 (아동 수)	1,816	819	569	513	438	343	113	21	959	256	458	562	561	898	701	813	232

자료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현황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의 일환으로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 5일 이내 총 25시간까지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기초학습 등 6개 분야를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표 3-2-17〉 아동복지교사 지원 분야 및 활동 내용

지원 분야	활동 내용
기초학습	- 기초학습 교육 등(학습코칭, 수준별 학습지도)
외국어 지도	- 외국어 기초지도 - 그룹 외국어 지도, 영어 등 활동 프로그램 지도
독서지도	- 독서지도(읽기, 말하기, 쓰기 등) - 그룹 독서지도, 독서 활동 프로그램 지도
예체능 지도	- 예체능 활동 지도(음악, 미술, 체육 등) -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 지도(음악, 미술, 바둑, 컴퓨터, 축구, 로봇과학, 연극, 서예, 손글씨, 한자, 댄스(무용), 요리 등 지역별 수요가 있는 분야 기능)
다문화·장애 아동 지도	- 다문화아동/장애아동 지도
기타	- 시·군·구청장이 지역 수요 등에 따라 아동복지 교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예: 아동 인권, 진로지도, 수학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아동복지교사 지원).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의 문화적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동양육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대단위 집단 아동

으로 양육시설 내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과 도서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강사 파견을 통해 악기,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이들 아동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는 물론 자아존중감 향상 및 심리·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 운영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 유형 중 하나로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23 d). 대규모 집단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 형태 보호로의 전환이 강조되고, 지역 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형태로 논의가 집중되면서, 1995년 3월 23일 ‘국민복지기획단’ (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 복지 기본구상’에 공동생활가정인 그룹홈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96년 12월 그룹홈 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하였다. 2021년 12월 말 현재 전국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수는 3,126명에 달한다.

〈표 3-2-18〉 전국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현황(2021. 12월 말)

(단위 : 명)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26	331	174	64	119	188	124	58	2	922	109	152	176	229	207	69	161	41

자료 : 전민경(2022),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학습지도, 인성 지도, 대인관계, 진로지도, 자립 준비, 원가족 복귀 지원, 문화·여가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 교육, 취업 교육, 비행 예방 교육, 성교육을 비롯하여 교과목 교육과 특기 적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3-2-19〉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및 세부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자립 능력 향상	- 개별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여 과제 해결 중심 접근 - 아동의 학령에 맞는 개별적인 연차 자립 계획 수립 : 매년 아동의 욕구를 점검하여 수정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	-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관계 유지 노력 연 1회 이상 - 가족참여 프로그램(예: 가족 캠프 등) 연 1회 이상 실시 -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 교육 등 연 1회 이상 실시
학교와 관계 형성	- 학교 교사와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에 참여 분기 1회 이상 아동 생활 상황에 대해 교류한 기록 보유
지역 내 자원 활용	- 지역 내 관공서 민간 자원 등 자원 연계 - 자원봉사 및 후원 기관과 관계 형성

자료 : 보건복지부(2022),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양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아동공동생활가정도 아동복지시설 중 하나의 유형으로 각각의 사업 대상은 원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대리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취약계층 아동이다. 따라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아동들도 그룹홈 내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과 도서관의 독서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이곳 아동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와 자아존중감 향상 및 심리·정서적 안정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법무부

법무부에서는 주로 비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교정시설에 있는 아동·청소년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2-20〉 법무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정부 부처	정책/사업	관련 법	사업내용	추진체계
법무부	소년원생 교육	소년법	상담, 생활지도,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특별활동 등	법무부
	소년분류심 사원 운영	소년법	가정환경조사, 신체검사, 행동 관찰, 상담, 정신의학적 진단, 심리검사 등	법무부

1) 소년원생 교육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에서 송치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하는 국가기관이다(법무부, 2023).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하여, 국가가 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상담 및 생활지도와 함께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특별활동 등을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소년원 제도는 1942년 경성소년원(현 서울소년원)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 현재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 교육내용 중 인성교육, 특별활동, 생활지도 등의 영역에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3-2-5> 참조). 학생들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전문화된 인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대구, 광주, 청주, 춘천, 제주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기본교육과정 중 60% 이상을 인성교육 시간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자치활동, 행사, 계발활동, 적응 활동으로 구성되는 특별활동과 원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독서, 영화감상, 레크리에이션 등 생활지도 영역도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다.

한편, 소년원에서는 민관 연계를 확대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소년원 입소 시부터 퇴소 이후까지 민간 자원봉사자와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소년원 학생 멘토링 시스템’도 도서관 사업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2-5) 소년원생 교육프로그램



자료 : 법무부, 「2022 범죄백서, 2023

2) 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소년 분류심사의 목적은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 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함이며,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범죄학, 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 소년 등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여야 한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소년법」 제18조 1항),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49조 2).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나 그 보호자 의뢰에 따른 적성검사 등 진로 탐색을 위한 청소년 심리검사 또는 상담 등 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2022년 12월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1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제주 등 부산소년원 등 6개 소년원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그림 3-2-6) 소년 분류심사 방법



자료 : 법무부, 「2022 범죄백서, 2023

3. 소결 및 시사점

이상에서 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과 중앙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의 정책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며 소결에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중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추세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중·고 재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다문화가정의 학령기 자녀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2년 다문화 학생 수는 46,954명에서 2022년 168,645명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초·중등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도 2012년 0.69%에서 2022년 3.17%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표 3-1-2> 참조, <그림 3-1-2> 참조). 특히, 학령기의 어린이·청소년 비중이 커지고 있고,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큰 중도입국 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동향 변화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에게 특화된 도서관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학업 중단 청소년과 소년원에 감금된 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더욱이 이들의 경우,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학교를 중단한 아동·청소년은 2018년 50,057명에서 2020년 52,261명으로 증가하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던 2021년 32,027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지만, 2022년 42,755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표 3-1-20> 참조). 최근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이외에,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일반 청소년의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수와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4세~19세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7호~10호)을 받고,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소년원(8호~10호)에서 강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은 2022년 기준 5,689명으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표

3-1-16> 참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의 취약 집단과 달리, 범죄 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사업은 거의 전무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 다문화가정 총인구 대비 19세 이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전라남도(34.91%), 전라북도(34.11%)로 전국 평균 29.24%보다 월등히 높으며(<표 3-1-3> 참조), 전국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구 대비 저소득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은 전라북도(8.13%), 광주광역시(6.92%), 전라남도(6.12%) 등이 평균 4.61%보다 높은 지역이다(<표 3-1-5> 참조). 전라북도는 한부모 가정 자녀와 조손 가정 자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농어촌 거주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전남(48.81%), 충남(45.10%), 경북(38.54%)으로 전체 19세 이하 아동 대비 농어촌 거주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비중의 평균 16.52%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3-1-13> 참조). 따라서 도서관 정책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이와 같은 지역별, 대상별 분포의 차이를 고려하여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면 정책적 효과 및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관련 부처와의 연계·협력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장애,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보호 청소년, 한부모·조손 가정 자녀 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였다.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일선 도서관에서도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과 연계하였다. 이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보호 청소년, 한부모·조손 가정 자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하여 도서관 서비스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협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표 3-2-1> 참조). 나아가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에 집중되어 있던 연계·협력 기관을 아동양육시설, 드림스타트,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등

보건복지부 산하의 다양한 유관기관으로 확대하여 연계·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정책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대상에 맞게 도서관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가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생,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한부모·조손 가정 자녀 등으로 확대되면, 관련 부처 산하의 기관에서 수행 하던 사업 및 프로그램에 도서관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접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습공간 제공, 교육프로그램 및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소년원생은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독서지도 및 문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고,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한부모·조손 가정 자녀는 학습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캠프 등 자녀 양육지원 프로그램 등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하여 연계·협력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현황 및 국내외 우수사례

1.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정책 현황
2.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3. 정책시사점

1.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정책 현황⁶⁾

가. 도서관법

『도서관법』 제43조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를 기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 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서관 편의 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의 21조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보호시설 등의 정보 취약계층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으로 기본적인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이는 정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도서관(2021)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취약계층의 범주를 신체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4가지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협의체에 참여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하여 도서관이 취약계층과 만날 수 있는 접근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법령 및 정책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도출되지 않아 사회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에서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구분하여 각 세대에 맞는 서비스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계획하고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정보 취약계층의 ‘중복된 취약성’이다. 우리나라 전체를

6) 4장은 이지연 연세대학교 교수가 집필함

차지하는 등록장애인 가운데 20%가 장애 수당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기 때문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짐과 동시에 경제적 빈곤의 어려움을 동시에 겪는다(국립중앙도서관 2011). 또한 특정한 정보 취약계층이더라도 계층 내 특성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고유한 특성이 가진 집단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계층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 도서관 서비스를 설계해야 한다.

점차 심화되는 소득격차와 지역 격차, 노령인구 증가 등에 대처하여 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법적 책무를 재정비하고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의 개념 및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국립중앙도서관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보 취약계층의 적용 범위를 넓혀 지자체 및 단위도서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조사하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과제를 분석하고 현 정책의 문제점, 보완 사항을 도출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한다.

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1) 취약계층 관련 과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강조한 ‘사람에 대한 포용성’은 발전계획의 3대 핵심 가치 중 하나이며, ‘사회의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라는 전략 방향과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이라는 핵심과제도 모든 사람을 위해 차별 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격차 없이 정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도서관의 역할에 방점을 두고 있다(강지혜, 배경재 2020).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4가지 전략 방향 중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이 하나로 포함되면서 핵심과제로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공간의 개방성 확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가 설정되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의 해소는 도서관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취약계층 관련 과제

전략방향	핵심과제	추진과제
3.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3-2] 공간의 개방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공간 확대
	[3-3]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자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 과제는 총 7개로 도서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 북한이탈주민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군인, 환자, 수용자 등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과제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집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책적인 지원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집하기 위하여 단위도서관 및 대표도서관, 시·도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을 통해 요청하였다. 과반수 이상의 기관에서 자료를 공유해주었으나 자체적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있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기도 부천시, 고양시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단위도서관에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천, 광주, 경기, 충남을 제외한 12곳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집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서울도서관, 강동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양천구), 경기(고양, 과천, 군포,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안산, 안양, 양주, 여주, 오산, 용인, 의정부, 파주, 평택, 포천, 화성), 충북(대전) 강원(강릉, 동해, 춘천), 전남(광양, 나주), 경북(대구) 울산(동구, 북구)의 총 46곳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4-1-2〉 광역자치단체 단위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집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광역자치단체	○	○	○			○	○		○	○		○	○	○	○	○

분석한 결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의 핵심과제 및 추진과제에 맞춰 계획을 수립한 도서관이 대부분이었으며 서울도서관, 고양시, 부천시, 화성시, 춘천시, 파주시, 안산시, 여주시, 수원시, 용인시, 양천구, 도봉구는 자체적으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여 도서관 환경, 지역주민 인식분석을 기반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다음은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중 취약계층 관련 과제인 [전략 방향 3]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현황을 정리하였다. 추진과제 ‘3-1-1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에서는 급변하는 정보기술 발전을 통해 정보 불평등 및 양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정보 불평등 완화 정책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정보 불평등이 발생하는 계층, 지역, 세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소외되는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나 이를 수립한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가 유일하였다.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계획 수립에 포함한 과제는 ‘3-3-1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이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과제는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이다.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도 많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4-1-3〉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중 취약계층 관련 과제의 광역자치단체 수립 현황

구분	광역자치단체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3-1-1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		○	○	○	○	○	○	○	○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 서비스 확대	○	○	○	○		○	○		○	○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	○	○	○		○	○	○	○	○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 공간 확대	○	○	○	○	○		○	○		○
3-3-1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	○	○	○	○	○	○	○	○	○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	○	○	○	○	○	○	○	○

수집된 지방자치단체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3-1-1 정보 불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을 수립한 도서관은 거의 없으며 주로 ‘3-3-1 사회서비스와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와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정보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와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규모가 크고 개별적인 시·구로 구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도서관 인프라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하지만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 및 공간 개선과 아웃리치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은 많은 예산과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4〉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중 취약계층 관련 과제의 지방자치단체 수립 현황

구분	지방자치단체															
	서울			경기								강원	울산		전라북도	
	동대문	강동	동작	의정부	과천	동두천	군포	양주	안양	오산	성남	동해	동구	북구	나주	광양
3-1-1 정보 불 평등 지수 개발 및 활용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	○	○	○	○			○	○	○	○					○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 를 위한 정보서 비스 확대			○										○	○	○	○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 속적 확대	○	○							○					○		○
3-2-1 모두의 접근이 가능한 포용적 개방 공 간 확대					○								○	○		○
3-3-1 사회서비 스와 연계 도서 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	○	○	○	○	○	○	○	○	○	○	○	○	○	○	○
3-3-2 문화정보 서비스의 확대	○	○	○	○	○	○	○	○	○	○	○	○	○	○		○

추가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배포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취약계층 관련 과제인 [전략 방향 3] 내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계획의 포함 여부를 확인한 결과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의 추진과제에서 영유아·어린이·여성 대상 서비스 강화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진과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주로 취약계층 유형인 다문화, 이주민, 장애인, 수용자, 환자 등으로 구분하여 추진과제를 제안하였으며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한부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추진과제 계획이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다.

2)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정책 분석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토대로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을 분석하였다. ‘정책과제 3-1 적극적 정보복지 실현’은 주로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 불평등 및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관 측면에서 서비스 확대, 평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에 최적화된 정보 불평등 지수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원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정보 불평등의 유형과 대상을 파악한 균형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장애인, 군인, 환자, 수용자 등 정보 획득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운영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확대 사업을 제안한다.

각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배포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토대로 개별 계획을 수립하여 단위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략 방향 3]에 대한 광역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검토하고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분석하였다.

가) [3-1-2] 정보 및 매체 이용 교육 강화

정보매체 이용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 기기, AI 등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나타나는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적 약자 집단이 지식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체 활용 교육,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부산,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지방자치단체인 서울(동대문, 강동, 동작), 경기(과천, 양주, 안양, 오산, 성남), 전라북도(광양)로 총 18곳이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미비한 실정이다. 3-1-2 과제의 주된 목적은 정보화 교육으로 인한 정보격차 해소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독서 습관 및 문해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전자책 이용, 매체 이용 교육실시에 초점을 두었다. 취약계층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곳은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강동구, 동작구), 경기도(오산시)로, 울산광역시는 ‘지역 주민 및 지역연계아동센터의 아동’으로 서비스 대상을 설정하여 독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다. 강동구의 경우 세부 추진계획에서 지역 내 저소득층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고 동작구, 오산시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서비스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지역 아동센터와 도서관이 연계하여 공간을 공유하고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상호 협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취약계층의 어린이가 소외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부분 아동, 성인,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표 4-1-5〉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정보 및 매체 이용 강화’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
울산	독서 문해력을 증진을 통한 독서 습관 형성 및 학습능력 향상 독서문화강좌 운영 1일 도서관 체험학습, 1일 독서 교실, 청소년 진로 체험 등 운영	지역주민, 지역 아동센터 아동
강동구	▶ 2023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사업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	지역 내 저소득층 초등학생 및 성인 대상
동작구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 정보 활용 능력 함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오산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가족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및 독서 흥미 유발 프로그램 운영 독서캠핑장에서 책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아동센터 아동 및 가족

나) [3-1-3]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3-1-3 과제는 독서 취약계층인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폭넓은 장서 확보를 기반으로 평등한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고 평등한 독서 기회를 확보하고자 수립된 계획이다. 특수환경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 병원 도서관, 병영도서관, 교도소 도서관의 이용자를 위해 프로그램과 장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었다.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한 자치단체의 비율이 높았지만,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 소외 지역주민 등 취약계층의 유형으로만 설정하여 서비스 수혜를 받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다소 포괄적이다. 해당 과제의 서비스 내용을 보면 주로 독서 프로그램, 자료 확충(큰 글자 도서 구매, 오디오북)에 초점을 두었으며 제주의 경우는 지역 아동센터 대상 어린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제시된 내용이 다른 취약계층에도 적용이 가능한 순회문고 도서 확보 서비스로 제시되었다.

〈표 4-1-6〉 취약계층 대상 ‘특수환경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정보서비스 확대’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
울산	연중 독서 취약계층 대상 장애인 독서회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지역 복지기관과 협약) 등 장애인 자료실 운영 및 독서 보조기기 지원, 대체 자료 확충, 책나래 서비스 운영 등	지역주민 (노년층 및 저시력자, 발달장애인)
전북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장애인) 운영 및 큰 글자 도서 구입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 도서관 이용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 국립장애인도서관 수어영상 도서 등 자료 이용 안내 및 홍보 등	장애인 및 특수계층
대구	장애인 자료실 운영을 위한 편의 시설, 독서 프로그램, 큰 글자 도서 및 오디오북 등 자료 확충	장애인
경남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도서 대출 서비스 및 찾아가는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
제주	지역 아동센터 등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순회 문고 도서 확보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청소년, 성인 장애인은 같은 취약계층으로 포함되지만, 연령별로 필요한 정보요구는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정보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 [3-1-4]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신체적·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도서관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농산어촌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우편 배달 서비스 확대라는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대전, 울산, 전북, 경북, 대구, 동대문구, 강동구, 안양 등에서 본 과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무료 택배 및 대출 서비스 지원을 계획하였다. 대상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구분하기보다 전 연령의 취약계층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계층 유형으로 대상을 설정하였다.

〈표 4-1-7〉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
대전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 및 평등한 독서 서비스를 위한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 및 무료 택배 대출	장애인, 유아, 한 부모, 조손 가정, 임산부, 노인
울산	책나래 서비스 및 독서 취약계층 무료 택배 서비스 운영 확대 및 녹음 도서 우편 대출	장애인 및 독서 취약계층
전북	우편 배달 서비스	장애인
경북	독서자원활동가, 순회 문고, 찾아가는 독서교실, 원거리 도서택배 서비스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기관(학교), 장애인, 노인 및 임산부
대구	장애인 무료 우편 도서 대출 서비스	장애인
동대문구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기관 대상 장기대출 서비스(순회 문고) 지속 운영	취약계층
강동구	대상 기관에 단체대출 실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연계 운영	지역 기관
안양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정보 취약계층의 어린이·청소년은 도서관에 스스로 방문하여 도서관 서비스나 문화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내용이 주로 우편배달로 한정되어 있어 정보 소외 계층의 어린이·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나 혜택을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 받는 데 한계를 가진다.

라) [3-3-1]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개인적 환경으로 인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도서관 프로그램, 서비스 혜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에서 이용자 생애별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영유아·어린이·여성 대상, 노인 대상, 구직자 대상, 소외계층 대상을 구분하여 각 계층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독서 프로그램, 도서 대출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운 자치단체가 다수 있었으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곳은 경상남도, 서울(강동, 동작), 의정부, 안양, 나주 총 6곳이다. 취약계층 어린이는 주로 복지관, 돌봄교실, 특수학교, 지역 아동센터에 소속된 어린이이며 도서관과 기관과의 사회적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8〉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회서비스 연계 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확대'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
전북	다양한 대상 참여를 위한 계층(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영·유아, 특수학급,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병원 등)	영·유아, 어린이, 노인, 소외계층, 사회배려대상
경상남도	장애인, 노인, 지역 아동센터 등 계층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및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운영 (스피치, 공예 등 독후활동)	장애, 저소득층 어린이
강동구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자료구입, 저시력자를 위한 큰 글자 도서 구매, 발달장애 독서프로그램, 여름 책놀이 프로그램	저소득층 및 발달장애 초·중등부 복지관 어린이
동작구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 제공 발달장애 학교, 공동육아나눔터 등 기관과 연계하여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어린이
의정부	지역 아동센터 독후활동, 영유아 대상 놀이랑 과학실험실 장애아동에게 미술활동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아트테라피	돌봄 아동, 특수학교, 영유아, 장애인 아동
안양	정보 소외계층 대상 단체대출 서비스 및 정기독서문화교육 강사 파견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
나주	연령대별 맞춤형 독서지도, 문화 체험 기회 제공	아동양육시설 또는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

본 과제에서는 정보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시켰으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맞춤 도서관 서비스를 설계하고 증설할 필요가 있다.

마) [3-3-2]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국내 이주민, 재외국민이 증가하고 다문화사회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 간의 상호 이해를 위한 도서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다문화서비스에 초점을 두고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다문화 관련 단체와의 연계, 국내 주민들의 포용성과 문화 이해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주로 대상은 국내의 다문화 가정,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시민이며 다문화 자료실, 자료 구입 및 확충,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였다. 대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동작구는 다문화 가족뿐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표 4-1-9〉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문화정보서비스의 확대’ 과제

구분	세부 내용	대상
대전	어린이 독서문화프로그램 전문 강사 파견으로 소외계층(다문화) 아동의 독서 흥미 유발, 다문화자료실 설치 운영 다문화자료 확충,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아동
울산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독서치료, 문화 체험, 동화구연, 이중언어교육 등) 다문화 코너(종합 및 어린이 자료실 내) 운영 다문화 가정의 독서 생활화 지원을 위한 다문화 자료 확충	다문화가정, 이주민, 외국인
전라북도	다문화자료실 운영 및 다문화자료 확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다문화 가족 독서 교육 운영 다문화 도서 활성화 및 소외계층 독서환경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등
경상북도	다문화 자료 구입 및 확충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 사업 교류 협력 추진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독서 논술프로그램, 다함께 즐기는 문화 예술공연	도내 다문화가족 및 어린이, 외국인
대구	다문화자료실(코너) 운영 및 다문화자료 확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다문화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시민의 이해도 제고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
경남	다문화 관련 기관 간의 협력 강화로 다문화 가정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인형극, 다문화교실, 다문화놀이터, 다문화 단체대출)	다문화가정 아동
제주	도민 및 제주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자료실 운영 및 자료, 독서프로그램 제공	다문화가정, 이주민
동대문구	도서관별 다문화자료코너 지속 운영 및 다문화자료 확충 다문화 가정 대상 및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및 지역주민
강동구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다문화 가정 참여 프로그램 및 자료 구입	다문화가정
동작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주민 여성 및 자녀,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독서프로그램 기획 운영	이주민 여성 및 자녀, 다문화 가정

다문화 프로그램은 주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적응 지원, 언어 교육, 독서교육 등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지며 이 두 대상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현황

1)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의 문해력 및 정서적 안정을 돕고 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4,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전국 공공도서관 및 장애인도서관이 참여하여 도서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독서, 독후활동,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지원한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의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는 다음과 같다.

〈표 4-1-10〉 지난 3년(2020-2022년)의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성과

연도	운영횟수	참여자 수	장애유형별 참여기관 수			
			발달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2020	총 437회	3,281명	34	7	6	3
2021	총 363회	3,090명	22	4	2	2
2022	총 816회	7,351명	43	9	4	4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2020-2022년)

지난 3년간의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독서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독서 함양 능력을 기르기 위한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인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이를 기획하고 있는 공공도서관도 소수라는 점에서 소외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독서문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발간한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2020-2022)을 조사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표 4-1-10>을 보면, 2020년에는 발달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일례로 달구벌점자도서관이 주최한 ‘시와 동화가 함께하는 시각장애인-힐링 독서 문학기행’ 프로그램의 대상은 시각 장애인(18명)이며, 남동구소래도서관의 ‘그림책 속 나를 찾아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12명)으로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세분화하여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소수에 불과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전체적인 운영 횟수 및 참여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프로그램 세부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유형도 구분하고 생애주기별로 나이를 설정하여 어린이,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였다.

3개년도를 살펴본 결과, 장애인은 도서관 및 유관기관으로의 이동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부분 대면 교육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시 전담 보조 인력이 부재할 경우,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미술, 요리와 같은 프로그램은 개별 보조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장애인 어린이 대상 서비스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여전히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정되어 있고 다른 장애 유형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시각장애, 청각장애인이 도서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모두가 평등하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표 4-1-11〉 장애인 어린이 대상 서비스 유형

연도	도서관명	대상	기간	협력 유관기관	프로그램 유형			비고
					도서관 교육	독서	문화	
2020	김천시립도서관	발달장애	4개월	어린이집	1	10	1	대면
2021	은평구립도서관	발달장애	5개월	복지관	2	8	2	대면
	울산 동부도서관	발달장애	1개월	복지관	1	8	1	대면
	청주흥덕 도서관	발달장애	3개월	복지관	1	8	1	대면
2022	고척도서관	발달장애	3개월	장애인 부모연대	1	9	1	대면 및 비대면 병행
	울산 동부도서관		3개월	어린이집	1	10	1	대면
	김천 시립도서관		4개월	어린이집	1	10	2	대면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2020-2022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2020년보다 2022년으로 갈수록 점차 독서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이를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의 수도 많아졌다.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2022년에는 도서관, 복지관뿐 아니라 특수학교(학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모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서비스를 살펴보면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수도권에 청소년 수가 많은 것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인력, 유관기관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4-1-12〉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서비스 유형

연도	도서관명	대상	기간	협력 유관기관	프로그램 유형			비고
					도서관 교육	독서	문화	
2020	수양도서관	발달장애	5개월	장애인부모 회	1	15	2	대면
2021	푸른들청소년 도서관	발달장애	4개월	복지관	1	9	2	대면
	송파도서관	발달장애	4개월	-	1	8	1	비대면
	갈산도서관	발달장애	6개월	-	1	10	-	대면
2022	강남도서관	발달장애	4개월	복지관	1	11	1	대면
	정관도서관		3개월	특수학교	2	9	1	대면 및 비대면 병행
	곰달래도서관		6개월	특수학교	1	16	-	대면
	고덕 평생학습관		4개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1	10	1	대면
	김영삼도서관	청각장애	5개월	복지관	1	9	1	대면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2020-2022년)

2) 다문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인 Solomon에서 빅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도서관이 공유한 문화프로그램 및 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으로 조회하여 현재 취약계층을(장애인, 다문화, 저소득, 한부모/조손 등)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았다.

〈표 4-1-13〉 다문화 가정 대상 독서프로그램 현황

지역	2020	2021	2022	2023	합계	운영도서관
서울	8	11	34	11	64	천호도서관, 암사도서관, 강일도서관, 해공도서관, 성내도서관, 대치도서관,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열린도서관, 정다운도서관, 김근태기념도서관, 동대문도서관, 등
대구	-	-	11	4	15	성서도서관, 범어도서관, 수성도서관, 이천어울림도서관, 남부도서관 등
경기	1	12	7	12	31	일동도서관, 덕풍도서관, 봉담도서관, 선단도서관, 의왕시중앙도서관, 삼곡도서관, 장기도서관, 주엽어린이도서관, 덕이도서관 등
전북	-	-	-	13	13	모현도서관
전남	-	1	1	-	2	매천도서관, 광주시립무등도서관 등
경남	2	10	15	9	36	김해도서관,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양산시립중앙도서관, 거제도서관, 경남대표도서관 등

자료 : Solomon 홈페이지(<https://solomon.data4library.kr/>) 및 도서관 홈페이지

서울 지역의 다문화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2023년 현재 접수 및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까지 총 64개 프로그램이었으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작가와의 만남, 영화 상영, 다문화 인문학 강좌 등 다문화 어린이 대상이 아닌 초·중·고등학생, 성인, 가족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64개의 프로그램 중 다문화 가정 대상 프로그램은 7개이며 다문화 어린이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았다.

〈표 4-1-14〉 서울특별시 다문화 아동 대상 프로그램

도서관명	대상	행사명	정원
김근태기념도서관	다문화/비다문화 6~8세	민주주의 놀이터 속 베트남-월남쌈만들기	3명
	다문화/비다문화 6~8세	민주주의놀이터 속 한국-다함께 하는 한국문화 체험	3명
구로도서관	다문화 가정(중국동포 등) 어린이 및 한국 어린이(초등)	2023년 구로도서관 어울림 주말학교	30명
강남구립논현도서관	다문화가정	도서관에서 만나는 한국 전통 매듭공예	10명
강남구립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다문화가족	도서관에 ON 다문화	5명
용산꿈나무도서관	다문화인과 가족	다문화어울림	15명
동대문도서관	다문화 어린이	친구와 함께하는 세계문화여행	15명

자료 : Solomon 홈페이지(<https://solomon.data4library.kr/>) 및 도서관 홈페이지

대구광역시에는 총 15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이 중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성구립 범어도서관에서 진행한 ‘다문화 가족과 책 속에서 어우렁 더우렁’, ‘한국속의 나를 발견하다’ 였으며 이중 ‘다문화 가족과 책 속에서 어우렁 더우렁’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총 39회의 강좌로 진행되고 있다.

〈표 4-1-15〉 대구광역시 다문화 아동 대상 프로그램

도서관명	대상	행사명	정원
수성 구립 범어도서관	다문화가정 아동	다문화 가족과 책 속에서 어우렁 더우렁	10명
	다문화가정 부모	도서관에서 한국 속의 '나'를 발견하다	10명

자료 : Solomon 홈페이지(<https://solomon.data4library.kr/>) 및 도서관 홈페이지

경기도 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도서관은 총 31곳이며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관은 하남시 덕풍도서관, 의정부정보도서관,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관산도서관 등이 있다. 덕풍도서관은 다문화 가정의 5-7세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의정부정보도서관은 2021년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해 다문화 독서교육을 신설하여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결혼이민자인 부모로부터 부족했던 독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은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세계문화교실, 세계요리교실을 실시하여 각 나라별 음식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관산도서관은 지역의 공공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다문화 아동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인 ‘다문화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4-1-16〉 경기도 다문화 아동 대상 프로그램

도서관명	대상	행사명	정원
하남시 덕풍도서관	다문화 가정 아동 및 가족	책놀이 프로그램	6팀
의정부정보도서관	다문화 가정 아동	달라서 특별한 문화이야기	10명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다문화, 비다문화 가정 아동	세계문화교실, 세계문화교실	22명
관산도서관	다문화 가정 아동	독서치료 프로그램	-

자료 : Solomon 홈페이지(<https://solomon.data4library.kr/>) 및 도서관 홈페이지

전라북도는 2022년에 익산시립모현도서관에서 관내 돌봄계층(다자녀, 다문화, 장애아동가정)을 대상으로 책 읽어주는 로봇 및 도서 대출 프로그램을 13회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에서는 구례 매천도서관에서 다문화 15가족을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우리가족 앨범 프로그램’, 광주시립 무등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과 내국인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경상남도의 경우 경상남도교육청에 소속된 도서관에서 경남도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창원도서관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와 자녀를 대상으로 ‘오색빛깔 문화체험놀이터’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신탄진도서관은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부모와 자녀의 이중언어 소통을 위한 독서활동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3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발표하였다. 이에 2023년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는 다문화 가정 및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국내 시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 원서 읽기, 각 나라에 대한 책을 활용한 독서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청소년은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부모에게서 언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고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도서관은 독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서비스 대상을 다문화 가정 아니라 생애주기별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세분화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

3) 저소득한부모·조손가정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장애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의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다문화 서비스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독서 소외계층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단위 도서관은 자관의 예산을 절약하는 동시에 지역 내 독서 취약계층 이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농어촌 주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에 포함되지 않지만 독서취약 계층의 범주에 포함되는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가단위의 공모 지원사업은 미비하다.

지자체 및 단위도서관에서 2023년 수립한 독서진흥계획 데이터와 도서관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한부모, 조손가정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도서관이 많지는 않으나 프로그램 모집 시 우선 선발 자격을 지원하는 혜택, 도서배달서비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기관 대출 시행,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가) 프로그램 모집 시 혜택

단위도서관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시 프로그램 내용, 시기에 따라 신청자의 경쟁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 내 어린이 및 청소년 신청보다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의 아동이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대전의 산성어린이도서관은 정원 내 30%의 비율을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에게 우선 접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증빙서류 확인 과정을 거친다. 성남시 중원도서관은 ‘가정문고 신청 서비스’ 우선 신청 자격을 저소득,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조손가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도서 배달 서비스

공공도서관은 지역의 누구나 정보 접근 및 이용, 독서활동, 평생교육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써 도서관에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도서배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서배달 서비스는 신체적·환경적 어려움으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이메일, 전화 등으로 도서관에 신청하면 책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이다.

군포시 중앙도서관은 2023년 1월부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모, 부자 가정,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층을 대상으로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30가족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매월 책꾸러미에 도서 10권을 포함하여 만들기 키트를 함께 동봉하여 배달한다. 대전 산성어린이도서관은 대전지역 임산부, 한부모, 조손가정, 노인을 대상으로 대출 희망도서를 택배를 통해 배송하고 회수하는 ‘책冊가갈방문서비스’를 2021년 2월부터 시작하였으며 1회 10권을 30일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교통약자 등 독서 취약계층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보편적 정보 접근과 독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어린이가 도서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육자의 돌봄이 필수적이나 저소득층 가정, 한부모, 조손가정의 경우 보육자가 맞벌이 또는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아 어린이들이 물리적으로 도서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정보취약계층 어린이의 독서문화의 환경 조성 and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주제도서 지원, 독서활동,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 구미도서관은 구미시 아동복지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독서자원활동가를 모집하여 ‘찾아가는 나눔독서’ 동아리를 구성하고 직접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독서지도와 낭독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일도서관, 안동도서관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송촌도서관은 보육원에 찾아가 24회의 강좌를 통해 유아들에게 소그룹 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을 지원한다.

라) 기관 대출 실시

독서취약계층의 도서관 방문과 대출기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장기간 도서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독서취약계층의 독서편의를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전 용운도서관은 관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의 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도서를 장기간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취약계층의 어린이의 독서편의를 증진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주선비도서관도 유치원, 병원 등 지역적,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해 순회문고를 통한 기관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마)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체험

정보취약계층 어린이들의 독서흥미를 유발하고 도서관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독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 광역시의 갈마가수원·둔산·월평·어린이도서관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동화구연 및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 둔산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정보취약 어린이를 대상으로 주제도서 지원, 독후활동, 도서관 견학 및 문화 탐방, 작가초청 등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새빛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으로 사서 체험, 정보 활용 교육, 연극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국내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우수사례

가. 국내 우수사례

1) 신체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참여와 독서인지능력 함양을 위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독서생활화 및 독서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에 따르면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서울 소재 학교의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특수학급에 독서지도 전문 강사를 두어 점자 및 음성도서, 수어 영상도서, 읽기쉬운 도서 등을 활용한 장애유형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이후에는 코로나 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온라인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22년에는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여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특수학교까지 포함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매년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올바른 정서 함양을 지원하고자 전국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독후감 대회를 개최하고 상을 수여하고 있다. 2022년 제15회 독후감 대회에서는 4개의 장애유형을 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수상자를 선정하여 상을 수여하였으며 작품은 목점자 혼용도서로 제작하고 발간하여 특수학교 및 장애인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공유하고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를 조사·평가하여 우수한 장애인 도서관 서비스를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집을 책자,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기관에 배포한다. 제작된 우수사례집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현장의 공공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담당 사서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집」에 포함된 서비스 운영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인 ‘시각장애 어린이 대상 책소리 여행’을 운영하여 시각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킴으로써, 즐거운 독서체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바른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 및 독서를 통한 사고력 증진, 자아 존중감 향상과 독자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1) 운영기간 : 2019.3.11.-11.25 (총16회)
- (2) 운영장소 : 인천해광학교 (시각장애학교)
- (3) 운영대상 : 유아. 초등 19명
- (4) 운영내용 : 동화책 함께 읽기 및 생각나누기 후 독후활동

〈표 4-2-1〉 인천광역시교육청 화도진도서관 소외계층 위한 독서프로그램 내용

회차	일자	강의내용	선정자료
1	3/11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김수한무와 두루미 삼천갑자 동방삭
2	3/25	우리는 모두 친구예요	까마귀 소년
3	4/8	편견은 좋지 않아요	초코곰과 젤리곰
4	4/22	기분을 표현해보기	기분을 말해봐
5	5/13	뒷이야기 상상하기	슈퍼거북
6	5/27	오래 살면 행복할까요?	100만 번 산 고양이
7	6/10	작품 속 주인공이 되어봐요	돼지책
8	6/24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요	종이붕지 공주
9	7/8	서로 돕고 살아요	섬
10	7/22	욕심 부리지 말아요	색깔을 훔치는 마녀
11	9/9	송편 만들고 추석에 관해 알아보기	술이의 추석
12	9/23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
13	10/14	모험을 떠나요	벽장속의 모험
14	10/28	영화보고 대본 만들어 역할극 해보기	무화과와 소년
15	11/11	나도 할 수 있어요	개구리합창단
16	11/25	다음에 또 만나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제13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집(2020)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노원평생학습관은 3가지 테마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이 중 시각장애아동 독립보행교육을 시행하여 시각장애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시각장애인 자립의 기본은 지팡이를 사용하여 혼자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2008년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해 치료교육과정이 삭제되어 보행훈련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노원평생학습관은 시각장애인이 혼자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행지도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국립장애인도서관 우수사례집 2020).

또한 발달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꿈을 빛는 장애아 도예반, 꿈을 빛는 아이들’과 ‘흙으로 빛는 세상’ 등 도예프로그램 기획하여 운영하였다. ‘꿈을 빛는 장애아 도예반, 꿈을 빛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장애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활동 참여를 통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노원평생학습관에서는 (사)함께가는 노원 장애인 부모회 회원 자녀 대상으로 학교 활동뿐 아니라 문화프로그램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학생의 소근육 발달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10년간 장애아 도예반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초등과정과 중고등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중계 2, 3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학습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노원평생학습관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연합전시회를 통해 장애학생의 성취감 향상에 기여하였다. ‘흙으로 빛는 세상’ 프로그램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동천학교와 협력하여 흙놀이 도예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지도 교사와 함께 개별학생이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표 4-2-2〉 서울특별시교육청 노원평생학습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독립보행교육	2018.3.9. - 5.25.	시각장애 어린이	노원평생학습관	92명
꿈을 빛는 장애아 도예반	2018.3.7. - 12.19.	발달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	중계 2,3동 주민센터	278명
흙으로 빛는 세상	2018.4.10. - 11.27 (총20회)	발달장애어린이	서울동천학교	480명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제13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집(2020)

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은 장애 아동 가족의 장애를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슬픔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겪는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복공작소’ 사업을 실시하였다. 장애아동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어려움, 긍정적인 정서발달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하여 예림학교와 협업하여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발달, 정서 장애를 가진 아동이 미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미술치료사를 채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장애 청소년을 위한 ‘그림으로 세상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서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 청소년들의 정보 이용을 지원하고 사회적·정서적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타인의 의견에 경청하는 능력을 함양하고자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주제 그림책에서 전하고자 하는 주제를 찾고 이를 공유하면서 스스로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희망! BOOK 돈음’ 사업도 진행하였는데 이는 교육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독서권리를 보장하고 교육복지실현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장애 유형별로 구분하여 다양한 놀이 활동을 기반으로 신체 발달을 돕고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3가지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야기로 만나는 연극놀이’, ‘책놀이 동화구연’, ‘독서교육 특강’으로 전문 강사가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의 학생까지 모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표 4-2-3〉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평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행복공작소	2018. 5. - 6.	발달장애아동 6명	예림학교	8회 48명
	2019. 5. - 7.	발달장애아동 10명		10회 70명
	2020. 11. - 12.	발달장애아동 10명		4회
그림책으로 세상 읽기	2019.6. - 10.	청각, 발달장애 중학생 7명	성동학교	10회 70명

이야기로 만나는 연극놀이	2018. 6. - 7.	청각장애 유치원생 12명	성동학교	3회 36명
	2018. 6. - 7.	청각장애 초등 저학년 13명		3회 39명
	2019. 5.	청각장애 초등 고학년 14명		3회 42명
책놀이 동화구연	2018. 6. - 7.	청각장애 초등 고학년 18명	성동학교	4회 72명
	2019. 5.	청각장애 초등 고학년 13명	예림학교	4회 52명
	2020. 9. - 10.	청각장애 초등 고학년 14명	성동학교	6회 42명
독서교육 특강	2019. 5. - 10.	시각장애 중등 12명, 고등 18명	혜광학교	2회 60명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제13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집(2020)

사업성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도서관 및 책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였고 수업 내용 또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발판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도서관과 연계하여 독서프로그램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어려움과 경험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상식과 정보도 제공하였다. 도서관에서 장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기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인지하였다. 더불어 향후 수강생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도서관 시설 접근성 확대, 장애인 학습자끼리의 소통 공간 및 기회 확대 등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라) 은평구립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은 장애인 서비스 발전 방안을 총 5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계획 아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첫째, 물리적 환경 개선으로 자유로운 자료 이용공간을 확대하고 서가의 접근성 강화, 직관적인 안내 시설을 마련하기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용공간조성, 출입구 이동 과정에서

장애물이 없도록 출입구를 여닫이문에서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通行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다. 둘째, 정보서비스의 확대로 독서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을 확충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 이용자의 수준 및 연력에 맞춰 영상자료, 점자도서, 수어영상도서, 읽기쉬운 도서, 촉각도서, 그림 및 만화 도서 등 다양한 장서를 확보하였다. 셋째,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에서는 도서관 아웃리치 확대를 목적으로 발달장애인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령대별(성인, 아동)으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발달 아동인 만 6-9세는 2명, 청소년인 10대는 4명이 참여하여 선정도서를 함께 읽고 대화를 하여 사용 어휘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협력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연령대별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 결과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만족감을 인식하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추가 참여를 희망하였다. 또한 ‘책과 함께 행복 자라기’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를 통한 인지능력과 자기표현능력, 문제해결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포용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사서의 전문성 강화와 장애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인지하여 장애인 서비스 담당사서의 워크숍, 세미나를 지원하였다. 또한 은평구 공론장을 운영하여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는데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의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은평구립도서관이 자치구 대표 지식정보 소외계층의 지원센터로서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조사, 연구를 통한 서비스 방향 설정, 보편적 서비스 기반 마련, 특성화 서비스 기반 마련 등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향후 도서관 자체 예산뿐 아니라 외부 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소통창구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마)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듯 도서관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수성도서관에서는

글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료 선정, 찾아가는 독서 및 인문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회, 문화유적답사, 아로마 라이프 등의 프로그램과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독서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과 광명학교가 연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소통하는 토론’이다. 그림책을 읽고 독후활동으로 꽃꽂이, glue pen 찍기, 인형만들기, 말린꽃 장식하기, 과일꼬지 만들기 등 소근육 발달과 더불어 창의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5회 진행하였다. 향후 발전방향으로 시각 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령별 프로그램으로 기획되기보다는 장애유형(시각장애)에 맞춘 프로그램 기획으로 어린이·청소년 이용자 세분화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표 4-2-4〉 대구광역시립 수성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소통하는 토론	2018.5.24. - 6.21.	시각장애학생 7명	대구광명학교	5회 35명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제13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집(2020)

바) 거제시립 수양도서관

거제시립 수양도서관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찾아가는 장애인 서비스 운영사례이다. 수양도서관은 거제에 거주하는 1만명의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균등한 독서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즐거운 독서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도서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다. 이에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방과 후 북적북적 독서클럽’,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2-5〉 거제시립 수양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방과 후 북적북적 독서클럽	2020. 5. - 10.	청소년 발달장애인 10명	거제시장애인부모회	16회 160명
견학프로그램	2020.8.21	청소년 발달장애인 10명	거제포로수용소	1회 10명

자료: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제14회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집(2021)

‘방과 후 북적북적 독서클럽’ 프로그램은 장애인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상생활에 지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거제시장애인부모회와 협력하여 독서를 접목한 역사수업, 미술수업을으로 구성되었다. 독서 역사와 독서 미술 강사를 채용하여 흥미롭게 도서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독서미술은 요리수업, 비즈보석 십자수, 경계표현하기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으며 독서역사 프로그램은 역사 사실에 대한 토론을 통해 역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견학프로그램’은 평소 도서관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장애인들의 편견을 깨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닌 문화복합공간으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제포로수용소 견학을 진행하여 6.25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 하였던 역사 현장을 체험하였다.

사) 순천시립 삼산도서관

순천시립 삼산도서관은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던 3강의실을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간으로 기획하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큰글자도서, 점자도서, 전자책, 오디오북, 그림책, 빅북, 쉬운글 도서, PC를 비치하였으며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 전기판넬 설치, 바닥재 시공 등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 하였다. 보호자를 동반한 개인·학교·단체로 10명 이하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느린학습자가 도서를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오디오북, 쉬운동화 등을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강사의 추천을 받아 적합한 도서를 구입하여 제공하고 있다. 삼산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 견학, 그림 독후활동, 읽기, 미술 활동 등 다양하지만 참여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기보다는 대부분 발달장애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새로운 대상자 탐색, 참여 제안 등 많은 제약이 발생하여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추후 특수학교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신문 등의 홍보를 통해 소외 계층이 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아) 성남 중원도서관

성남 중원도서관은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보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 기획,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해답을 관내 장애인 유관기관과의 협력, 독서 인권 향상에서 찾고자 하였다. 2005년 특수학급의 지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도서관 이용교육을 시작으로 회원카드 만들기, 견학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문화교실을 포함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독서활동과 독서 편의를 제공하였다.

성남중원도서관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상 세계에서의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전 학습자를 망라하기 위하여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 뿐 아니라 방학특강을 개설하여 초등학생 대상으로 메타버스와 코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관내 학교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실’ 프로그램도 실시하였다. 또한 저소득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원도심으로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청소년 대상의 메타버스, 카드뉴스 제작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21년 1년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방안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술,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거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감독 관리할 수 있는 장애인 단체 또는

전문 시스템 구축이 가능해야 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대부분의 콘텐츠가 시각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장애인 편의성 결여를 사회적인 문제로 공론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집」에 포함된 서비스 운영사례를 종합한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공공도서관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 및 청소년이 독서 소양을 함양하고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림책 활동, 동화구연, 독서교육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찾아가는 도서관, 도예 등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도서관 시설 측면에서는 장애인 전용 열람실, 화장실, 휠체어 통행 경로, 점자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휠체어 열람석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서관 접근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정보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독서보조기기 확충, 영상자료, 점자도서, 큰글자 도서 등의 장서를 비치하였다.

프로그램은 단일 도서관에서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도서관은 지역 내 장애인 부모회, 학교 내 특수학급, 장애인 종합복지관, 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20년 이전의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연령별(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세분화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보다 장애 유형별(시각, 청각, 발달장애)로만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도서관들은 장애유형별과 연령별 서비스를 모두 고려하여 서비스를 개발하였기 때문에 장애인 어린이·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수는 시각, 발달장애 대상 프로그램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다. 장애유형별, 연령별로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신체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내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이들의 정보요구와 독서역량 강화에 적합한 서비스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운영사례 이외에 개별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 장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 조사하기 위하여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 및 도서관 종합 발전계획, 통계 등의 자료를 살펴보았다.

조사한 결과, 장애유형에서 발달장애는 연령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대상을 선정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전체 발달장애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모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 은평구립 은뜨락도서관, 김포시 장기도서관, 김천시립도서관은 발달장애 어린이·청소년에 초점을 두어 지식정보 접근과 활용에 대한 기초적 독서 활동을 제공하고 있었다. 은평구립 은뜨락도서관은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하여 「발달장애아동·청소년들과 함께 놀이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장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고 또래와의 긍정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서대문 아동발달센터의 강사를 초빙하여 발달장애 어린이와 청소년 각 5명씩 모집하여 총 2회 진행하였으며 1:1로 자원봉사자를 지원하여 대면 놀이치료를 진행하였다. 김포시 장기도서관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발달장애 어린이 10명을 대상으로 '빛나는 나, 건강한 우리! 함께 떠나는 그림책 여행'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전화, 방문,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상담학을 전공한 강사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장애 어린이가 자기 주도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협동 독후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천시립도서관은 효동어린이집의 발달장애 아동들을 대상으로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꿈꾸는 우리가 함께 펼치는 책 날개' 프로그램을 총 13회 진행하였다. 동화구연지도사와 함께 책을 매개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음식만들기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시각장애 어린이들의 건강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 센터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부평 기적의 도서관은 20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정보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스토리텔링과 원예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그 중 '오! 해피데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 전문학교인 인천혜광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활동과 관련된

그림책을 사서가 읽어주고 시각장애 학생들이 직접 원예활동에 활용되는 재료와 생화,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브드, 조화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은 후 느낌을 공유하도록 유도하였다.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는 도서관에 비치된 점자도서를 함께 읽어보고 도서관 주변을 탐방하면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추진한 「시각장애아동용 점자라벨도서 보급사업」에 선정된 울산 북구 명촌어린이도서관, 파주시 한울도서관, 교하도서관, 탄현도서관은 도서관 내에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약 20권의 그림책을 비치하였다.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라벨도서는 동화책에 점자투명라벨을 붙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독서를 할 수 있는 도서로, 시각장애인만 읽는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기반으로 상호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시각장애 아동의 점자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울도서관은 점자도서 비치뿐 아니라 시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ON가족 낭독 챌린지’를 운영하였다. 참여 자격은 어린이 포함 2인 이상의 가족 단위이며 참여 방법은 가족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대출하여 가족 소개 멘트, 가족이 돌아가며 낭독한 녹음파일을 제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우수가족 10가족을 선정하여 지역서점 이용권과 우수가족 목소리를 도서관에 전시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창원의 봉립평생학습센터의 작은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 아동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학습교구인 점자 동화책 만들기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봉사단 회원 10명이 참여하여 투명한 스티커 용지에 점자를 새겨 일반 동화책에 점자 스티커를 붙여 점자도서를 제작하여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 기증하였다.

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어린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2022년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진행한 온라인 교육인 ‘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독서프로그램- 인사할까, 말까?’가 있으며 동영상 2종 총 8차시(수어용 4차시, 구어용 4차시)로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에 접속하여 동영상을 시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수어용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수어 구연가가 진행하며 구어용은 구어적, 청각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구어로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막, 음성을 사용한 약 15분의 영상으로 책 내용 이해, 사회성 기르기, 세계 여러 나라의 인사법, 감정 표현 및 상상력 키우기, 낱말

익히기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공공도서관에서 진행된 청각장애 어린이 프로 그램보다 장애인 협회나 사회복지관의 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사단법인 영릉회의 영릉 농문화 도서관은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의 지원을 받아 농인,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의 날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나를 돌볼 그림과 책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글쓰기를 진행하였다.

2)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사회적 취약계층은 한부모 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취약성이 결합되어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을 말한다(서울도서관 2021). 한부모 가족 부모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가 제한됨으로써 한부모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교육 기회가 양부모 가정에 비해 결여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기도 한다(김경년 2010). 이에 국내 공공도서관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서관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운영평가를 통해 발굴한 현장의 창의적인 서비스와 혁신사례를 자치단체 등 도서관 운영기관 및 도서관 현장과 공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이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발간된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취약계층 프로그램 사례 및 개별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수집된 우수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군포시립 중앙도서관

군포시립 중앙도서관은 2023년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관내 한부모 가족(모, 부자 가정,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을 대상으로 무료 책배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신청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6개월간 서비스를

진행한다. 매월 제공되는 책꾸러미에는 도서 10권(부모 1권, 자녀 9권)과 만들기 키트를 배송하여 원하는 책을 신청하여 배달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서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독후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대구광역시립도서관

2021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과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를 실시한 대구광역시립 북부도서관은 코로나19에 도서 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복지시설·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였다. 특히 온라인 수업을 확대하여 보육 취약계층 초등학생과 지역 대학생(예비교사)을 1:1로 매칭하여 학습과 독서코칭 지도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주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 초등학생들의 학습 공백 해소와 독서 생활 지원을 위해 KT, 지역아동센터대구지원단, 지역 사범대학 등과 연계하여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과 취약계층 초등학생이 주 2회 30분씩 전화 또는 화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년별 수록도서를 함께 읽고 소통하는 독서코칭 및 학습코칭 등을 지원하여 정보 접근, 활용에 대한 고립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2022년에는 시공간 제약없는 메타버스 도서관 ‘메타북스’를 개관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였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도서관 추천 도서 및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접근이 떨어지는 취약계층도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환경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공지능 기초 소양과 활용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다) 대전광역시립 산성어린이도서관

대전광역시립 산성어린이도서관은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설 기관으로 학생의 창의성과 문화 감수성 향상 및 우선배려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하였고 2021년에는 독서 소외계층 대상 ‘책冊가家방문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가 가정에서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택배를 활용하여 대출과 반납을 지원하는 무료서비스이며 한부모, 조손 가정을 대상으로 1회 도서 10권, 30일간 대출할 수 있다.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 확대와 평등한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경제활동으로 인해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한부모, 조손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표 4-2-6〉 대전광역시립 산성어린이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내용
책가방문 택배서비스	2021.02-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노인, 임산부	도서관 및 가정	1회 도서 10권, 30일간 대출

자료: 산성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https://sslib.djsch.kr/sanseong/>)

라) 강남 구립 정다운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정보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소통의 장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운영사례집에 따르면, 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에서는 강남교육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어린이 등 1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활용수업, 도서관 견학, 독후활동(제빵, 동시수업),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강사와 어린이들이 함께 시를 창작하여 창작시 모음집을 제작하였으며 작가선생님에게 쓰는 편지 등 프로그램 참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도서관을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부모님들과 함께 자신의 앞날을 응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들의 마음을 부모님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사업 종료 후, 어린이들은 책에 대한 애정이 높아졌고 앞으로 도서관 수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후기를 남겼으며 이를 진행한 사서도 더욱 많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표 4-2-7〉 강남구립 정다운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내용
책속 마음속	2022.05.14.-8.20 매주 토 10시	초등 1~3학년 10명	도서관	총 15회

자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2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사례집

마) 부천시립 원미도서관

원미도서관은 학교 밖 청소년, 방과 후 청소년, 쉼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독서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참여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참여기관의 성격,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을 조사하여 책을 매개로 하는 교육, 특강, 활동 연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청소년 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정서적 안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우선과제이다. 이에 원미도서관은 동네 친한 언니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라포를 형성하고 글쓰기 기초 특강, 캘리그래피 교육, 책갈피 제작 등 도서관과의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3D펜을 통한 작품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흥미를 끌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 스스로가 내면의 부정적 요인, 불안, 회의감 등을 글쓰기와 감정관리를 통해 감정을 분출하는 올바른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참여 청소년은 일상의 대화법을 배우면서 책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알게된 점을 매우 만족한다는 후기를 남겼다.

〈표 4-2-8〉 부천시립 원미도서관 취약계층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내용
각양각색 모퉁이들	2021.6-10(매주 화)	학교 밖 청소년 (11명)	부천시 단기청소년 쉼터	총 14회

자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1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사례집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사례 프로그램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의 경제활동으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이 시공간을 막론하고 도서를 제공 받을 수 있는 택배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주목할 점은 지역 사범대학,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좀 더 많은 소외계층을 적극적으로 모집한 것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린이·청소년은 스스로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연계는 더 많은 소외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독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직된 기관에서의 활동이 아닌 자신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했다는 점은 청소년뿐 아니라 도서관의 역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3) 문화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문화적 취약계층은 외국인, 다문화 가정 등 언어·문화 다양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이다(서울도서관 202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이질감 해소를 위하여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공공도서관은 다문화 서비스를 계획, 개발, 운영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제출된 사례들을 평가하여 우수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공공도서관에서의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래는 2022년 다문화 프로그램 우수사례집에 소개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도서관 문화프로그램을 조사한 사례이다.

가)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

이주민의 다양성을 위한 세계동화책 콘텐츠 라디오 방송 프로젝트 ‘Liferay Radio’는 다문화 어린이·청소년, 성인, 가족,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인의 모국 동화책 콘텐츠를 활용하여 라디오로 방송 제작 및 송출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디오는 이주민 3명과 함께 진행되며 다문화 가족의 차별, 문제 등을 다루며 다문화 가족을 위해 낭독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청소년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화구연 전문가를 섭외하여 동화책을 소개하고 라디오 방송을 위한 준비, 대본 리딩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이 도서관 접근과 우리나라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4-2-9〉 달서다문화가족작은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Liferay Radio On Air	2022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인, 가족), 내국인	달서다문화가족 작은도서관, 성서 FM 라디오 스튜디오	7회 7,000명
이주민 세계동화책 낭독교육				21회 63명
세계동화책 읽어주는 라디오 전시관			홈페이지 전시 페이지	1회 5,000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도서관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집(2022)

나) 마포중앙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은 다문화가정 이용자의 도서관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상호문화 이해와 국내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그림책으로 읽는 세계시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작가를 섭외하여 세계시민으로서 인권, 불평등, 평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다. 또한 ‘음악으로 만나는 다문화 세상’을 통해 각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4-2-10〉 마포중앙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내용	대상	장소	실적
그림책으로 읽는 세계시민	교육	다문화(아동청소년)	도서관 세미나실	7회 7,000명
음악으로 만나는 다문화 세상	음악			21회 63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도서관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집(2022)

다) 남구도서관

상호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에 대해 알아보고 만들면서 그 나라의 식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감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맛보고 세계를 맛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我웅多웅 도서관 세계미술여행’을 통해 세계의 미술에 관련된 다양한 책을 함께 읽고 관련된 독후 활동을 함으로써 미술양식에 대해 학습하고 이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뿐 아니라 내국인 어린이·청소년도 함께 모집하여 각자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표 4-2-11〉 남구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도서관에서 책을 맛보고 세계를 맛보다	2022.10.7.-11.25	다문화(아동청소년), 내국인	남구도서관 채움실	8회 96명
我웅多웅 도서관 세계미술여행	2022.8.6.-10.1			8회 112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도 도서관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집(2022)

라) 광진정보도서관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인 ‘두리하나 국제학교’ 청소년과 사업을 진행하였다. 북한이탈자 청소년들은 환경이 달라 정서와 문화에서 차이를 느끼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진학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공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폭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다양한 주제를 토대로 다양한 사진을 찍는 활동으로 사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발견을 통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막연하게 진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감정을 함께 느끼고 사회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총 11회 대면으로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총 10명이 참여(누적 74명)하였다.

〈표 4-2-12〉 광진정보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나를 찾는 카메라	2021.08.30.-11.10 (매주 월)	북한이탈가정 청소년	두리하나 국제학교	11회 10명
꼬적꼬적 인문학				

자료: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21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사례집

마) 양천도서관

서울양천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이어온 다문화가정으로 찾아가는 그림동화 방문교육을 2023년에는 확대 운영하여 비대면(온라인)과 대면(방문)교육 방식을 모두 실시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은 다문화 협의체인 협력기관을 통해 프로그램을 접수할 수 있으며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도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자녀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그림책 봉사단 양성과정 ‘책놀이 지도사(3급)’ 자격 과정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의 독서프로그램 지원, 자격증 취득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일반 지역주민인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책놀이를 진행하는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 시민 모두가 독서지도사로서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다문화 독서지도 선생님은 ‘다문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계동화 속으로’를 통해 세계 여러나라의 전래동화 구연, 전통 놀이 체험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로 강의를 진행하는 기회를 얻는다.

〈표 4-2-13〉 양천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기간	대상	장소	실적
책놀이 지도사 자격과정	2023.4.4.-4.26	다문화인 및 일반인(자원활동가)	양천도서관 다모아방	8회
다문화 선생님이 들려주는 세계동화 속으로	2023.08.26.-9.16	다문화인 및 일반인 유아, 초등, 저학년 20명		4회

자료: 양천도서관 홈페이지(<https://yclib.sen.go.kr/>)

문화적 취약계층이 도서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통불편, 도서관 이용의 어려움으로는 한국말에 대한 이해부족이며 개설된 프로그램에 대한 종류와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은 한국어에 대한 이해, 문화, 부모 교육 등에 대한 것이다. 또한 도서관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은 자녀교육프로그램이 연령별에 의한 체계적인 독서지도 프로그램, 교과연계 학습지도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이에 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경험하는 고충과 어려움, 요구에 대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독서문화서비스를 살펴보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다문화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문화 가정 및 일반 유아, 초등, 청소년과 같이 대상을 함께 설정하고 있다.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자체에서 소극적으로 모집하는 것보다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홍보를 통해 상호협력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4)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사례

경제적 취약계층은 소득격차 및 실업·실직 등으로 발생하는 정보접근 취약계층(서울도서관 2021)으로 저소득층 가정이 대표적이다. 「2020년 서울 서베이 가구조사」에서 나타난 각 자치구의 학력 수준별 비율과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을 비교 분석 결과 학력과 대출 실적(대출 권수, 대출자 수)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층의 도서관 방문 비율이 낮으며 도서관에서는 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소득 계층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격차는 사회환경, 교육, 문화복지 등 다각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서관은 저소득 계층을 위한 양육지원, 사회적인 지지, 문화적 박탈감 해소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보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안인자, 노영희, 장로사 2018).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우수사례는 2021년과 2022년 「전국도서관 운

영평가 우수사례집」에서 소개된 도서관이 제공한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토대로 설명하고자 한다.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도서관

강동도서관은 소외계층에 찾아가는 맞춤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내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길동초 돌봄교실’과 협력하여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장맞춤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9회 운영, 총 128명이 참가하였다. 거점기관인 도서관과 협력기관이 연계하여 민관협력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정보소외계층의 도서관 접근 및 이용 제한이 증가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의 포용적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사회적 플랫폼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021년에는 저소득층 대상 지원 및 주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현아동센터와 협력하여 별문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돌봄센터를 대상으로 단체 대출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어린이집 연계동화구연(7년), 찾아가는 작가와의 만남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정보소외계층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진관아동 센터 협력 책 읽기 사업’은 진관아동센터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미디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총 165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초등 책 읽기 사업’은 동주민센터, 동자치위원회, 초등학교 도서관, 관내 작은도서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초등학생 책 읽기 지속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33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다) 대구광역시립 북부도서관, 서부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주관한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공모사업’을 통해 저소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활용, 책읽어주기 및 독후활동을 지원하여 14회 136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찾아가서 함께 읽는 독서프로그램인 ‘그림책은 내 친구’에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그림책 읽어주기 및 독후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총 14회, 110명이 참여하여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학습공백 및 독서활동을 지원하였다.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북대구지역아동센터와 협력한 ‘다육이 품은 검정고무신’, ‘사탕 나와라 똑딱’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서부도서관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이, 책으로 내일의 꿈을 함께 키우다.’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지역의 아동센터를 조사하여 공동 운영하였으며 북아트, 그림책 읽기, 독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프로그램 진행 후, 마을공동체 기관 발굴 및 협의체 구성을 통한 커뮤니티 활성화, 예산확보를 위한 지속적 공모사업 적극 발굴 및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대문도서관

저소득층 맞춤지원을 위하여 계층별(어린이, 중장년, 어르신) 효과적인 콘텐츠 및 역량을 개발하고 정서적인 위로를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다각도로 개발하였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집에 쿡! 책이 쓱! 씨가 뽕!’은 서대문교육복지센터의 가정방문과 연계하여 도서 꾸러미와 씨앗을 심고 성장과정을 SNS 채팅창에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12회차 진행되었으며 15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대면서비스는 서대문 교육 복지센터에 취약계층 청소년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16권의 도서를 기증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지적 탐구와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는 독서문화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대다수의 공공도서관들에서 저소득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도서관

내에서 운영하기보다는 저소득계층 관련 복지관이나 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관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안인자, 노영희, 장로사 2018).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문화프로그램, 독서교실 등 독서능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소득, 학력과 상관없이 평등한 정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때 이용 실적이 저조한 이용자와 소외되는 계층을 고려하여 서비스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국외 우수사례

미국의 공공도서관은 정보, 교육, 기술, 기타 자원에 대한 접근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외된 개인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전역의 개별 도서관마다 서비스의 대상, 유형,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 가출청소년, 수감자 가족, 이민자 등이며 각 커뮤니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맞춤 서비스 지원에 전념하고 있다.

1) 장애인 대상 서비스

미국 의회도서관의 National Library Service for the Blind and Physically Handicapped(NLS)는 지역의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참여 도서관에 신청하면 전자 및 이야기 도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성인을 위한 도서도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지만 어린이를 위한 도서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수준의 난이도를 갖춘 그림책, 인기소설, 비문학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잡지와 음악 교육 자료도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시카고 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은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서관 자원을 활용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 내에 장애 보조 장치를 구비하고 있으며 오디오북, 점자자료 등 자료를 토대로 책 읽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시각, 신체, 청각장애인을 위해 보조자료와 도서, 장비, 기술, 자원을 제공하는 ‘Assistive Resources and Talking Book Center’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있어 도서관 자체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장애인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 사서와 독서자문가가 자료 선택을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 장치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리소스와 플레이어 제공은 물론이고 일대일 대화를 통해 태블릿이나 웹캠을 통한 수화도 지원한다. 또한 청각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향유를 위해 오디오로 설명해주는 영화 DVD와 같은 디지털 자료를 비치하고 있으며 홈바운드 서비스를 통해 시공간 제약없이 장애인들이 정보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표 4-2-14〉 시카고 공공도서관의 장애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유형

서비스 유형	내용
보조 기술 제공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해 화면 판독기, 돋보기, 컴퓨터 등과 같은 보조기술 제공
사회 적응 프로그램	감각 친화적 토론, 실습 워크숍 등
도서관 자원 활용	다양한 읽기 선호도와 요구 충족위해 대형화자 책, 오디오북, 점자자료 제공
홈바운드(Homebound)서비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책 배달 서비스
디지털 정보 접근	전자책, 디지털 오디오북 제공
기술 활용 교육	보조기술, 디지털 정보활용을 위한 교육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	지역 장애인 단체와 협력하여 요구 파악
접근 용이한 시설	경사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장애인 맞춤 시설 지원

자료: 시카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chipublib.org/faq/services/#people-with-disabilities>)

브루클린 공공도서관(Brooklyn Public Library)은 양육, 발달장애, 정신건강 등의 문제를 가진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일대일 전문가를 지원하여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인력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브루클린 내의 플랫랜드 도서관(Flatlands Library)에서는 매주 화요일 신생아부터 5세까지의 ADHD, 자폐성, 발달장애 어린이 12명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 노는 독후활동인 ‘Read and Play’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Los Angeles Public Library)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이 요청 시 수화 통역사, 보조 청취 장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로 오디오 북, 큰 활자 도서, 확대경 대여, 디지털 컬렉션, 우편배달, 참고서비스, 관련 서비스 단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ZoomText’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시각 장애인이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지원하고 ‘Video Remote Interpreting Services’를 통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과 직원이 즉각적인 온라인 수화 통역을 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및 기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해 일반대중의 소란함 속에서 벗어나 도서관을 즐길 수 있도록 도서관 개관 시간보다 2시간 일찍 조기 개관하여 신청한 가족이 조용하고 차별하게 도서관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년 11월 5일 9시부터 11시까지 신청한 가족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메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캐나다의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공공도서관(Newfoundland & Labrador Public Libraries)에서는 시각, 신체 또는 학습 장애로 인해 도서를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Centre for Equitable Library Access’와 협업하여 CELA의 컬렉션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컬렉션에 대해 오디오, 점자, 전자책 형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어 및 프랑스어로 제공되지만 다른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 장애를 가진 이용자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DAISY 플레이어에 책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가까운 지점을 통해 오디오 CD나 점자 도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 다른 서비스로는 ‘Home Reader Service’로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거나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 요양시설 등 도서관 이용에 물리적 어려움을 가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무료로 자료를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장애인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쿄도립도서관은 지적 장애 아동과 청소년 학교에 추천도서 리스트를 선정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오사카시립도서관은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위하여 대면 낭독 서비스, 우편 대출 서비스, 팩스를 통한 문의 서비스, 장애인을 위한 편의 시설, 기기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 증명 서류 또는 수첩을 통해 인증이 되면 도서는 20권, CD, DVD 등의 오디오 자료는 10개까지 대출이 되며 기간은 32일로 약 한달 간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면 낭독 서비스는 사전 예약을 통해 대면 낭독 자원봉사자가 2시간 동안 낭독해주며 도서관에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1권의 녹음된 음성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 오사카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은 음성자료도 일본 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면 무료로 주문하여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청각장애인은 전화 및 대면으로 문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팩스를 활용한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자료 신청을 팩스로 받거나 자료 조사, 문의 등 팩스로도 접수를 받고 있다. 장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해서 점자 그림책, 카세트 테이프 목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토시립도서관은 장애를 가진 어린이·청소년이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활자본, 점자도서, LL북 등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LL북은 지적장애, 독서장애 등의 활자 도서에 대한 이용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사용하여 제작된 책이다. 제작된 책은 무료로 제공해주며 도서 리스트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녹음 도서의 국제 표준규격을 기반으로 제작된 음성자료인 데이지도서(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오디오 전용 도서와 오디오를 들으면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자료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데이지 도서 재생기를 한 달 동안 무료로 대출할 수 있다. 또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시스템, 듣고 말하는 것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팩스 등의 시설을 도서관 내에 설치하여 대출 카운터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주목할 서비스 중 하나는 장애인의 홈페이지 접근성 도구를 도입한 점이다. 누구나 쉽게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읽기, 문자 사이즈, 색을 이용자에게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으며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능, 문자와 이미지 확대, 행 사이의 너비 변경, 배경 색상, 문자 색상 변경, 홈페이지 이미지의 흑백 반전 등 장애인뿐 아니라 온라인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용자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2)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서비스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에서 연령별(생후 5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 고령자)로 카테고리를 구분하여 각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 도서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유아는 책을 읽고 노래와 운율을 배우는 동시에 다른 가족을 만나는 기회의 장으로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아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을 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온라인 리소스를 공유하여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학교의 과제, 숙제를 도서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로 ‘After School Homework Help’ 서비스를 제공하고 ‘Reading Coach’ 프로그램을 통해 기본적인 읽기, 토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Kidsmobile’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어린이집, 공원, 특수 교육 기관에 방문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 사회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 워크스테이션, 기술 장비, 협업공간, 녹음 스튜디오 공간을 갖춰 양방향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Teen Tech Centers’를 운영하고 ‘Bklyn Future Blog’ 서비스를 개발하여 청소년이 선호하는 도서, 예술, 글쓰기,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십대를 위한 블로그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San Francisco Public Library)은 ‘Youth Coordinated Entry Access Point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노숙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노숙 청소년의 주거 문제 해결,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 섭티, 지역 사회 서비스를 소개하며 위협에 처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는 기관을 게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

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개별 학생에게 맞는 정보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 학교생활, 학업, 취업, 영상편집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서비스가 있다.

〈표 4-2-15〉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무료 온라인 튜터링	학생을 위해 40개 이상의 과목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주 7일 학교 공부에 대한 일대일 실시간 도움 제공
숙제 도움	학교 과제 지원하고 도서관 온라인 리소스 탐색 교육
대학 및 경력 지원	학생들이 대학 지원 절차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워크샵, 모의 시험
E-media	디지털 서적, 음악, 영화, 잡지, 신문, 강의 이용
활용 교육	무료 온라인 튜터링, 전자책, 온라인 리소스 활용에 대한 동영상 교육
사서 질의 서비스	정보 요구 해결을 위한 사서 질의

자료: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lapl.org/studentsuccess>)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서 대학 및 경력 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소외계층 청소년이 스스로 정보를 검색하고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관 및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도서관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학 진학 준비, 대학 입학 개요, 등 워크숍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사서 질의 서비스에서는 ‘어떠한 질문이나 어려움에도 사서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노숙을 경험하는 가출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 주거 및 고용 지원 접근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출 청소년을 위한 복지기관의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클리블랜드 공공도서관(Cleveland Public Library)은 유아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율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The Literacy Cooperative’ 를 운영한다. 2gen summit 행사를 주최하여 가족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 리터러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형 읽기 및 쓰기 활동, 자녀 교육에 있어서 완

전한 파트너로서의 부모 역할 교육, 경제적 자립을 돕는 부모 문해력 훈련 등 정보 취약계층의 어린이·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특히 부모가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배움으로 자녀에게 혜택이 증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에 대한 교육 지원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BridgeUp: STEM’을 포함하여 취약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BridgeUp: STEM’은 뉴욕시의 빈곤 퇴치 프로그램으로 학생 1인당 연간 \$20,000로 지원되고 있고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있는 9학년~12학년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매년 250명의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학이나 전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5년 동안 학업 지원, 대학/중등 교육 이후 준비, 자기 발견, 열정 프로젝트 4개의 범주에서 함께 교육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숙제 지원, 과외, 읽기·쓰기, 학습에 대한 워크숍, 시험준비 등 학업을 지원한다. 또한 2021년부터 연체료 감면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진행 목적이 연체료는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도서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캐나다의 토론토 공공도서관(Toronto Public Library)은 최근 몇 년간 토론토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노숙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토론토 시내의 도서관에서 사서들은 많은 노숙자들과 교류하고 있다.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노숙자가 가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규직 사회복지사를 고용하였다. 도서관에 고용된 사회복지사는 정신건강문제, 마약중독, 노숙자로 고통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및 그 가족을 위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한다.

영국국립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은 작가와의 온라인 스트리밍 토론, 스토리텔링, 국립도서관 내부 건축물과 공공장소 탐방, 시인 글쓰기, 텍스트 탐구, 다양한 소리 학습, 책 제작, 정보발견 및 질문 방법 교육, 지도 교육 등이며 이는 미리 신청하면 무료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판타지 작가와의 만남, 글쓰기 개발, 역사 교육, 디지털 스토리텔링, 흑인 영국 문학 탐구, 구술 교육 등 창의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KidsRead’는 소외된 가정의 4~8세 어린이들에게 독서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국적인 독서 프로그램이다.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되며 독서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소외 가정의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이야기하고 활동한다. 각 세션을 진행한 후 부모에게 수업 정보를 전달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Tweenkerama’로 10대 청소년들이 미술, 로봇공학 등 STEAM 과목과 관련된 일련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접 탐색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도서관에 직접 찾아오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홈페이지의 ‘pop-up Tinkering’ 메뉴에 DIY활동을 할 수 있는 템플릿과 STEAM 콘텐츠와 팝업활동이 가능한 워크시트 시리즈 시트를 업로드하여 청소년들이 다운받아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3) 수감자 가족 대상 서비스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에서는 장애인, 학습 취약계층인 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뿐만 아니라 수감자 가정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인 ‘Telestory’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영상통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감된 부모와 아이들을 연결하여 교도소 수감자의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뉴욕주 교도소에 수감된 수감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수감자의 어린 자녀가 통화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의 책, 장난감, 직원을 지원하여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그림 4-2-1〕 수감자 가정 대상 ‘telestory service’



또한 장애를 가진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기본적인 장비, 우편 배달, 청각장애 인 서비스 센터, 음성 책 및 점자자료, 온라인 자료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의 특화 서비스로 ‘Jail and Reentry Service’와 ‘Youth Coordinated Entry Access Points’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Jail and Reentry Service’는 Francisco Sheriff’s Office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2018년부터 수감자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로써 Juvenile Justice Center에서 청소년 대상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사서들은 교도소에 보관할 새 책을 선택, 구입하고 방문하는 수감 청소년에게 도서를 추천하며 영어수업 일환으로 매주 도서관에 방문하여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Hoopla Digital 플랫폼을 활용하여 샌프란시스코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 사서가 선별한 전자책, 엔터테인먼트 및 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무료 미디어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Reference by Mail’을 통해 교도소 내에서 주택, 문화, 직업 준비 등 다양한 정보를 사서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매달 약 300통의 편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인기있는 프로그램이다.

수감자의 자녀와 가족을 위해 고품질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라델피아 도서관(Free Library of Philadelphia)은 필라델피아 교도소와 파트너십을 맺어 교도소 내 여러 시설에 도서관 자료를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수감된 부모와 자녀가 면회실에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도소와 인근 도서관에 설치된 실시간 화상 회의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읽고 말하고, 노래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화상통화 방법은 Skype나 FaceTime을 활용한다. 자녀가 있는 수감자와 자녀가 함께 독서하는 방법에서 나아가 찰스 카운티 공공도서관(Charles County Public Library)은 실시간 독서가 어렵거나 자녀가 어릴 경우를 대비하여 StoryBook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관 직원은 수감자를 만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녹음기에 동화책을 녹음할 수 있도록 돕고 도서관에서 녹음된 책과 인형, 자료를 함께 포장하여 수감자 가정에 제공하여 언제든지 부모님 목소리로 녹음된 책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감자 가족 대상뿐 아니라 청소년 수감자의 지역사회 회복, 취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에 ‘Decarceration Resources’ 메뉴가 포함되어 있으며 수감된 학생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입학, 졸업, 전학 등의 학업을 지원하는 restoring our communities, 캘리포니아 공립도서관에서 제공되는 공인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장 및 직업 프로그램, 커뮤니티, 외부 교육기관 등의 링크를 통해 지원 기관,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4) 이민자 대상 서비스

캐나다의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이민자 어린이·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워크숍, 자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 프로그램의 예로 ‘LSP 도서 일러스트레이션 워크숍’을 보면 우크라이나 신규 이민자 어린이(6~14세) 대상으로 스토리타임을 진행하여 작가들이 이야기를 읽고 참가자들이 자신의 스타일로 캐릭터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한다.

브루클린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시민권 수업, 법률서비스, 다양한 언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문화프로그램, 가족문화행사, 직업 및 경력 지원 서비스

등 이민자 대상 서비스 메뉴를 개별적으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위한 인터뷰 및 시험 준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영어뿐 아니라 다국어 스토리타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알링턴 도서관의 ‘Bilingual Storytime’ 프로그램은 신생아부터 5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 공공도서관은 난민, 이민자들을 위해 홈페이지를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구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언어를 포함하는 인쇄자료(도서, 잡지, 신문)와 미디어(CD, DVD), 온라인 리소스,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하트포드 공공도서관(Hartford Public Library)은 젊은 이민자 여성의 대학 진학을 돕는 것을 목표로 이민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방과후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 계속 다니고 대학 학위를 이수할 수 있도록 외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었으며 고등교육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 이민자 여성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지역사회와 고등교육을 연결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인 이민자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 전문가를 만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내 사서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이에 캔자스시티 공공도서관(The Kansas City Public Library) 이민자 난민 커뮤니티 서비스를 도와줄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이들은 도서관의 RISE 자원봉사자 팀에 합류하여 이민자와 난민이 영어를 배우거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며 일주일에 2~4시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이민자의 영어 실력 향상, 귀화 시험 공부, 인터뷰 연습 등을 돕는다. 자원봉사자는 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영어, 시민권을 위한 영어 강사, 인터뷰 실습 멘토, 영어 대화 스킬 전수, 직업을 위한 영어, 대화 클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표 4-2-16〉 캔자스시티 공공도서관의 이민자 대상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영어 교육	기본 동사 시제와 문법 교육 진행 강사 보조 목 오후 7시-8시 30분, 토 오후 1시-2시 30분
영어 스피킹 능력 개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 필요한 영어 능력 개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수 오후 6시-8시) 강사 보조 시민 문제의 90%를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시민권을 위한 인터뷰 실습 멘토	자격을 위한 인터뷰에 중점을 두고 1:1 실습 모의 인터뷰 질문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문화 교류	자원봉사자와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 문화 교류
직원을 위한 영어	목공 강사 수업을 지원
대화 클럽	매주 1시간동안 영어 대화 코스를 진행하는 강사 지원 어휘, 문법, 발음에 중점을 두고 편안한 대화 연습

자료: 캔자스시티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kclibrary.org/community-services/immigrant-services/rise-volunteer>)

취약계층별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도서관에 쉽게 접근하여 공간, 자료, 데이터베이스 등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를 구축한 사례가 다수 있다. 시카고 공공도서관(Chicago Public Library)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위한 기술, 멘토링, 창의적인 자원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YOUmedia’는 시카고 공공도서관 내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 디지털 미디어, 기술, 창의적 표현에 대한 관심을 탐색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픽 디자인, 음악 제작, 비디오 편집 등과 같은 분야에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컴퓨터, 소프트웨어, 멘토링을 지원하여 청소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청소년 개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자신에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도서관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 어린이·청소년이 정보 획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프라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공간에 초점을 두고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이 도서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정보 활용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토론토 도서관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화되어 있는데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도 자유롭게 쉽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 숙제 지원, 도서 리뷰, young voices magazine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청소년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4-2-17〉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청소년 대상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청소년 허브	학습과 워크숍을 준비하기 위한 노트북, 디지털 기기 사용
도서 리뷰	독서 후 리뷰를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고 토론
Live & Onlines	실시간 및 온라인으로 숙제 지원, 작가와의 만남, 지역내 아티스트와의 만남을 게시
TPL Teens	도서관 자체 youtube 개설하여 도서관 서비스 공유

자료: 토론토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

밴쿠버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숙제 지원, 독서 프로그램, 학습,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의 경우 ‘Reading Buddies for Kids’ 를 통해 친구와 함께 읽기, 쓰기를 연습하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및 게임 활동에 참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 내에 ‘Community Resources and Social Services’ 를 통해 밴쿠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서비스 페이지에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과의 연결, 의료서비스, 약물 남용 서비스, 정부 소득 지원, 학교폭력 피해 등 취약계층(성인, 어린이, 청소년)이 궁금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정보를 지원한다.

〈표 4-2-18〉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Reading Buddies for Kids	2-4학년과 10대 청소년들 간 멘토링을 통한 독서 프로그램
Community Resources and Social Services	밴쿠버시 지원, 의료서비스, 가족 서비스, 피해자 서비스, 약물 남용 서비스 등 취약계층(어린이, 청소년, 성인)에게 필요한 정보 및 지원 기관 안내
STEAM Buddies for Kids	멘토링을 통해 LEGO, Osmos, Spheros등을 사용하여 STEAM 실험 제공

자료: 밴쿠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s://www.vpl.ca/program/reading-buddies-kids>)

국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취약계층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어린이·청소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어린이 및 청소년이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독서프로그램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현재 청소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미디어공간, 동영상 편집, 음악 창작 등의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서 국내의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3. 정책시사점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인문·문화·예술·체험 등 문화서비스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 강화’ 등의 핵심과제는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여 시민의 역량 발전과 발달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생애 초기 독서 습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내 공공도서관들은 생애주기별 대상을 구분하고 각 세대에게 적합한 정보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개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 도서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을 검토한 결과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서비스 개발 계획은 추진과제를 기반으로 추진방향(사업목표, 사업내용, 기대효과), 세부추진계획(배경, 내용, 일정, 성과, 예산) 등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은 주로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에 취약계층 내에서의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개발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공공도서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정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취약계층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고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법에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보호시설, 환자 등의 정보취약계층이 제외되어 있어 이들이 정책적인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보 소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인 정보 소외 계층의 범위를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보호시설, 환자, 한부모를 포함하여 재설정하고 각 계층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각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집된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에서 특수 환경 이용자를 위한 프로그램 대상은 취약계층으로만 명시되거나 다문화,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유형으로 제한되었다. 취약계층 내에서도 각 연령별로 필요한 정보요구와 어려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주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각 계층과 관련된 기관과 협력을 통해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다문화 프로그램 사례를 살펴보면, 프로그램 대상이 다문화 가정(어린이) 및 내국인이었으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다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국인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도서관이 다수 있었다. 서비스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

하면 많은 인원을 모집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이 겪고 있는 정보획득 및 활용과 같은 정보문제와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소통, 학업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도움을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미국의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캐나다의 토론토 공공도서관,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연령별(취학전 아동, 초등, 청소년, 성인, 노인, 이민자 등)’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서비스를 하나의 메뉴로 제시하기보다는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무료로 도서관의 스튜디오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멘토링을 통해 학교 숙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서비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 및 청소년의 도서관 서비스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도서관이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현 상황과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적소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전시, 책바다, 문화행사, 상호대차 등 ‘서비스 유형별’로 나열되어 있어 연령별 맞춤 서비스를 찾는 데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따라서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용자 기반의 홈페이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의 활성화의 확대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운영활성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각 자치단체나 단위도서관에서 인력, 시간,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 부담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나 법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부모, 저소득층, 수용자 가정 등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진행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고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는 자치단체 또는 단위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획득한 후 공모사업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식정보서비스 혜택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정부의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폭넓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예산을 획득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에서 나아가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이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민간기관과 공공도서관의 연계사업 사례는 매우 부족하였으나 실제로 진행한 도서관을 조사한 결과 강남못골도서관, 양천구립도서관 등에서 장애인 가정,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강남못골도서관은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비대면 재활 교육시즌’으로 선정하여 인지장애, 인지재활이 필요한 가정 및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인지재활, 느린아이와 함께 살아가기, 보호자가 알아야 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감각통합치료 4개의 주제로 운영되며 각 파트의 주제와 관련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첫 번째 인지재활 주제는 누리이음아동발달센터와 연계하여 아동의 인지재활 이해, 경계선 지능학생을 위한 이해와 인지재활의 필요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며, 두 번째 주제인 느린아이와 함께 살아가기(장애보호자를 위한 교육)에서는 (주)더느린걸음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주)더느린걸음은 가정에서 치료를 통해 아이들의 일상과 지원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으로 가치소비 참여형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못골도서관과 협력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 어린이, 청소년의 보호자를 위한 교육으로 재활, 정보교류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확인, 아동과 보호자의 자립을 위한 준비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수정삼성아동발달클리닉 센터장을 초청하여 장애인의 자립에 대한 의미와 자립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

항에 대해 교육하였다. 마지막으로 서희아동청소년발달센터와 협력하여 발달단계별 자극 방법, 감각통합 의미, 인지능력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못골도서관은 발달장애, 재활이 필요한 아동 등을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지역 내 아동발달센터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립도서관은 2005년부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일자리를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와 봉사 등 장애 가정과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전국의 도서관 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과의 연계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조사하여 향후 도서관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정리하였다.

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 중 특히 시각장애인은 도서관 방문, 독서에서 많은 제약을 가진다. 이에 하트하트재단은 시각장애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서관 모듈을 구성하고 도서관리시스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색각 이상자를 배려한 색상으로 도서관을 디자인하고 정보에 취약한 시각 장애인 아동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도서(촉각, 점자, 음성)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국공립도서관에 배부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공공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장애인 자료실을 디자인하거나 자료를 비치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복지재단과의 소통을 통해 도서관의 장애인 열람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청소년, 미혼한부모와 장애인,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기가정, 미혼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빈곤가정, 장애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정서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 중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정 아동 지원사업’은 소외계층 어린이를 위해 심리치료와 심리상담을 지원하는데 향후 도서관과 연계한다면 독서지도 사서가 도서관의 장서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청소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진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프로그램 사업’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시설청소년 자립지원사업 : 과랑새, 꿈날 6기 멘티 모집’ 프로그램에서 시설퇴소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학금, 계획, 경제지원, 정서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을 기반으로 도서관에서 진로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질적으로 진로에 필요한 정보제공, 정보리터러시 교육, 전문가 연결, 멘토링 사업 등으로 확장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KB국민카드의 후원을 받아 농산어촌 지역 소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총 3회기 6차시로 진행하는 디지털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4차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 능력 강화가 중요함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단체의 사업과 연계하면 도서관 측면에서는 일반 가정의 어린이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 어린이를 모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 측면에서도 도서관 공간 활용, 홍보, 도서 지원 등의 지원을 받아 상호협력 관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동복지 영역에서도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의 인권옹호를 위해 해외의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와 연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나누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움의 사업 중 ‘찾아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부모의 수감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가지지 못하는 자녀들이 또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3-5명의 소그룹이 청소년 활동전문가와 다양한 활동과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사업과 공공도서관의 연계 방법은 문화향유의 공간인 도서관을 활용하여 수감자 자녀로 이루어진 독서동아리, 전문

가 초빙을 통한 독서교육, 멘토링 서비스, 도서관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사회의 편견으로 고통받는 수감자 자녀들이 눈치 보지 않고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정책과 계획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각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프로그램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취약계층의 범위를 취약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각 계층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 소외를 해소하고 지식정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1. 설문조사 결과 분석
2. 초점 집단면접 조사(FGI) 결과 분석

1. 설문조사 결과 분석⁷⁾

가. 조사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조사는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식정보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자 실시되었다.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도서관 운영현황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을 개발하여 국가 대표 도서관의 중장기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2) 조사 기간

본 설문조사 기간은 2023년 7월 26일 ~ 2023년 8월 7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전국 공공도서관 1,236개 관에 근무 중인 사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3) 조사 방법

조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협조를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 협조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조화된 설문지가 업로드된 인터넷 주소를 통해 조사에 응하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개인별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회수하였다. 전체 회수된 설문지 중 오류 검증을 통해 80% 이상 표기가 되지 않은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7) 5장 1절(설문조사)은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2절(FGI)은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가 집필함

4) 예비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설문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해 한국 도서관협회 종사자 의견수렴 및 사서 대상 예비조사 과정을 거쳤다. 여기서 제기된 보완사항들은 설문 내용상의 수정·보완사항으로 세부적으로는 공공 도서관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설문지 구성, 특정 부문에 대한 설문 문항 삭제 검토, 문구 수정 등이 있었다. 이러한 수정 및 보완사항들은 연구진 회의 및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과의 협의를 통해 본 설문조사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5) 조사 내용

조사 도구는 선행연구의 설문지를 검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작성 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련 문항을 신규 개발하였다. 조사 영역은 일반 문항과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문항, 시설환경 및 공간 구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 사항 및 정책 욕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문항이며,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선택하거나 척도를 묻는 등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한편, 분석과정에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과 그 외 광역 시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교차분석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1-1〉 설문조사 영역 및 조사내용

영역	문항
일반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연령, 성별, 직업무 - 도서관 근무경력,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경력, 자격증 등
도서관 운영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및 인프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장서 확보 - 최신 장비 및 설비 구비 여부 -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 ○ 인력 및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예산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 서비스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기관과 연합 서비스 유무 -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 여부 - 프로그램 확대 계획
시설 환경 및 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실 환경 및 공간에서 중요한 것 - 어린이·청소년 공간 내 각종 시설 유무 (서가, 전용 열람 공간, 휴식/놀이공간, 위생시설, 동아리 공간, 창작·체험 공간) - 어린이·청소년 공간 내 각종 시설 설치의 필요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 - 서비스 기획/운영과정에 어린이·청소년 참여 여부 - 3년 이상 지속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중요 고려사항 - 현재 제공 중인 프로그램 관련(프로그램 유형/편성 비중/이용률/필요성이 높은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 사항 및 정책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이용에서 중요한 것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 중요 고려사항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 사항 -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우선순위 -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활성화 방안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유형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여부/필요성 인식 - 문제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사업 시행 여부 및 필요성 - 제공 중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형태 -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계획 여부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이유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방안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심 정도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유형별 필요성

나. 일반적 특성

1) 조사 참여 도서관 일반 현황

도서관의 설치 지역에 대해 살펴보면,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서관 307개 관 중 서울에 위치한 도서관이 88개 관(28.7%)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경기 37개 관(12.1%), 강원 25개 관(8.1%), 경북 22개 관(7.2%), 인천 21개 관(6.8%), 전북 18개 관(5.9%), 부산 15개 관(4.9%), 충북 13개 관(4.2%), 충남 13개 관(4.2%), 대구와 전남이 각각 11개 관(3.6%), 대전 9개 관(2.9%), 광주 7개 관(2.3%), 경남 6개 관(2.0%), 제주 5개 관(1.6%), 울산 4개 관(1.3%), 세종 2개 관(0.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도서관들은 대부분 동단위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으며(232개 관, 75.6%), 일부 읍단위 지역(59개 관, 19.2%)과 면단위 지역(16개 관, 5.2%)에 위치한 시설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5-1-2〉 도서관 위치에 관한 사항

(단위 : 개 관, %)

구분(N=307)		빈도(비율)	구분	빈도(비율)
도서관 지역	서울	88(28.7)	충남	13(4.2)
	부산	15(4.9)	충북	13(4.2)
	대구	11(3.6)	세종	2(0.7)
	인천	21(6.8)	전남	11(3.6)
	광주	7(2.3)	전북	18(5.9)
	대전	9(2.9)	경북	22(7.2)
	울산	4(1.3)	경남	6(2.0)
	경기	37(12.1)	제주	5(1.6)
	강원	25(8.1)	합계	307(100.0)
지역 구분	동단위 지역	232(75.6)	면단위 지역	16(5.2)
	읍단위 지역	59(19.2)		

2) 응답자의 일반 현황

응답자의 대부분인 254명(83.0%)이 여성이었으며, 남성은 52명(17.0%)에 불과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가 126명(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75명,

24.4%), 20대(68명, 22.1%), 50대 이상(38명,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도서관 근무 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83명(27.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년 이상~3년 미만 78명(25.4%), 3년 이상~5년 미만 48명(15.6%), 10년 이상~15년 미만 41명(13.4%), 20년 이상 39명(12.7%),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8명(5.9%) 순이었다.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99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년 이상~5년 미만이 69명(22.5%), 1년 미만이 41명(13.4%), 10년 이상이 38명(12.4%), 5년 이상~8년 미만이 36명(11.7%), 8년 이상~10년 미만이 22명(7.2%) 순으로 나타났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근무 경력이 없는 응답자는 2명(0.7%)으로 매우 적어, 응답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증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부분 2급 정사서 자격증(240명, 78.2%)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외 준사서 자격증은 32명(10.4%), 1급 정사서 자격증은 25명(8.1%), 사서 교사자격증은 1명(0.3%)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이긴 하지만 사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9명, 2.9%) 있었다.

응답자들의 주 담당 업무는 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142명, 46.3%)이었으며, 다음으로 자료실 운영 및 참고 서비스 77명(25.1%),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58명(18.9%), 수서 25명(8.1%), 분류 및 목록 5명(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단위 : 명, %)

구분		빈도(비율)
성별(N=306)	남성	52(17.0)
	여성	254(83.0)
연령대(N=307)	20대	68(22.1)
	30대	126(41.0)
	40대	75(24.4)
	50대 이상	38(12.4)
도서관 근무 경력 (N=307)	1년 이상~3년 미만	78(25.4)
	3년 이상~5년 미만	48(15.6)
	5년 이상~10년 미만	83(27.0)
	10년 이상~15년 미만	41(13.4)
	15년 이상~20년 미만	18(5.9)
	20년 이상	39(12.7)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경력 (N=307)	1년 미만	41(13.4)
	1년 이상~3년 미만	99(32.2)
	3년 이상~5년 미만	69(22.5)
	5년 이상~8년 미만	36(11.7)
	8년 이상~10년 미만	22(7.2)
	10년 이상	38(12.4)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근무 경력 없음	2(0.7)
사서 자격증 (N=307)	준사서	32(10.4)
	2급 정사서	240(78.2)
	1급 정사서	25(8.1)
	사서 교사자격증	1(0.3)
	자격증 없음	9(2.9)
주 담당 업무 (N=307)	수서	25(8.1)
	분류, 목록	5(1.6)
	자료실 운영 및 참고 서비스	77(25.1)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142(46.3)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58(18.9)

다. 도서관 운영 전반

응답자가 현재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 전반 상황에 대한 10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동의 정도(평균 3.8점)를 보였으며, 어린이·청소년 장서의 충분성(평균 3.7점),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충분성(평균, 3.5점) 등도 대체로 높은 동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서관 내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평균 3.1점)과 관련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의 충분성(평균 3.0점), 지역 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평균 3.2점)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동의 정도를 보였다. 그 외 도서관 내 어린이·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장비의 충분성(평균 2.7점),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평균 2.7점)이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충분성(평균 2.6), 도서관 내 어린이·청소년으로 이루어진 동아리(평균 2.5) 등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보통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5-1-4〉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관련 도서관 운영 상황

(단위 : 명, %, 점)

구분 (N=30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만점
1)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장서가 충분하다.	2 (0.7)	19 (6.2)	102 (33.2)	135 (44.0)	49 (16.0)	3.7
2)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장비(PC, 3D 프린터기 등)가 충분하다.	33 (10.7)	116 (37.8)	95 (30.9)	43 (14.0)	20 (6.5)	2.7
3)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은 충분하다.	14 (4.6)	80 (26.1)	109 (35.5)	77 (25.1)	27 (8.8)	3.1
4)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은 충분하다.	25 (8.1)	103 (33.6)	122 (39.7)	51 (16.6)	6 (2.0)	2.7
5) 우리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	13 (4.2)	72 (23.5)	138 (45.0)	67 (21.8)	17 (5.5)	3.0
6)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있다.	46 (15.0)	111 (36.2)	93 (30.3)	50 (16.3)	7 (2.3)	2.5
7)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가 충분하다.	39 (12.7)	114 (37.1)	95 (30.9)	47 (15.3)	12 (3.9)	2.6
8) 지역 내 타 기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11 (3.6)	56 (18.2)	112 (36.5)	104 (33.9)	24 (7.8)	3.2
9)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충분하다.	5 (1.6)	27 (8.8)	116 (37.8)	127 (41.4)	32 (10.4)	3.5
10) 우리 도서관은 향후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1 (0.3)	8 (2.6)	86 (28.0)	161 (52.4)	51 (16.6)	3.8

한편,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재 도서관의 운영 상황을 비수도권과 수도권 등 도서관 소재 지역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5-1-5>에 제시되어 있다. 어린이·청소년 장서, 최신 장비, 전용 공간, 담당 인력, 예산,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의 충분성에 있어 지역에 따른 동의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어린이·청소년 동아리 다양성, 재능 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충분성,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비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자원봉사자/재능기부자 등 지역사회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1-5>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관련 도서관 운영 상황(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분 (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1)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장서가 충분하다.	비수도권	161	3.68	.817	-.018
	수도권	146	3.68	.861	
2)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장비(PC, 3D 프린터기 등)가 충분하다.	비수도권	161	2.70	.967	.421
	수도권	146	2.65	1.142	
3)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은 충분하다.	비수도권	161	3.17	.995	1.676
	수도권	146	2.97	1.044	
4)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은 충분하다.	비수도권	161	2.64	.891	-1.363
	수도권	146	2.78	.921	
5) 우리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	비수도권	161	2.99	.884	-.319
	수도권	146	3.03	.961	
6)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다양하다.	비수도권	161	2.40	.971	-2.649**
	수도권	146	2.71	1.025	
7)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가 충분하다.	비수도권	161	2.47	1.013	-2.553**
	수도권	146	2.76	1.006	
8) 지역 내 타 기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비수도권	161	3.10	.963	-2.743**
	수도권	146	3.40	.936	
9)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충분하다.	비수도권	161	3.49	.845	-.235
	수도권	146	3.51	.873	
10) 우리 도서관은 향후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161	3.81	.726	-.258
	수도권	146	3.84	.761	

라. 시설환경 및 공간 구성

응답자가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환경 및 공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표 5-1-6>)은 ‘충분한 공간 확보 및 공간 구분’ (166명, 54.1%), ‘자유로운 활동 공간(소음 허용 등)’ (107명, 34.9%)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어린이·청소년에게 적합한 안전한 가구’ 15명(4.9%), ‘책 읽기에 적합한 환경(온도, 조명 등)’ 12명(3.9%), ‘열람 좌석 수’와 ‘컴퓨터(인터넷) 및 자료검색 장비’가 각각 3명(1.0%), 기타 1명(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내문 및 사인물’과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의 편리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없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에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5-1-6>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환경 및 공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① 충분한 공간 확보 및 공간 구분	89(55.3)	77(52.7)	166(54.1)
② 자유로운 활동 공간(소음 허용 등)	51(31.7)	56(38.4)	107(34.9)
③ 열람 좌석 수	1(0.6)	2(1.4)	3(1.0)
④ 안내문 및 사인물	0(0.0)	0(0.0)	0(0.0)
⑤ 어린이·청소년에게 적합한 안전한 가구	11(6.8)	4(2.7)	15(4.9)
⑥ 컴퓨터(인터넷) 및 자료검색 장비	2(1.2)	1(0.7)	3(1.0)
⑦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의 편리성	0(0.0)	0(0.0)	0(0.0)
⑧ 책 읽기에 적합한 환경(온도, 조명 등)	7(4.3)	5(3.4)	12(3.9)
⑨ 기타	0(0.0)	1(0.7)	1(0.3)

한편, <표 5-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청소년 서가(299명, 97.4%), 어린이·청소년 전용 열람 공간(264명, 86.0%), 어린이 위생시설(213명, 69.4%) 등은 대부분 응답자가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179명, 58.3%)이나 어린이·청소년 휴식/놀이 공간(155명, 50.5%)은 전체 응답 도서관의 절반 정도가 공간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페이스)(71명, 23.1%)을 갖춘 도서관은 많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비수도권과 수도권 도서관 소재 지역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위생시설, 동아리 공간, 창작·체험 공간 등은 수도권 소재 도서관에서 공간을 갖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5-1-7〉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유무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합계(있음)
	비수도권	수도권	
1) 어린이·청소년 서가	157(97.5)	142(97.3)	299(97.4)
2) 어린이·청소년 전용 열람 공간	139(86.3)	125(85.6)	264(86.0)
3) 어린이·청소년 휴식/놀이 공간	84(52.2)	71(48.6)	155(50.5)
4) 어린이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104(64.6)	109(74.7)	213(69.4)
5) 어린이·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	91(56.5)	88(60.3)	179(58.3)
6)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페이스)	35(21.7)	36(24.7)	71(23.1)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5-1-8〉), 각 문항별로 5점만점에 평균 4점 내외로 응답하여 시설, 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서가(평균, 4.2점), 전용 열람 공간(평균, 4.2점)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이어 휴식/놀이공간(평균, 4.1점), 어린이 위생시설(평균, 4.1점), 동아리(모임) 공간(평균, 4.0),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페이스)(평균, 3.8점)의 순이었다.

한편,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표 5-1-9〉), 어린이·청소년 휴식/놀이 공간, 어린이 위생시설, 동아리(모임) 공간, 창작·체험 공간 등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지역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어린이·청소년 서가나 전용열람공간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비수도권 보다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동의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린이·청소년 전용 서가와 열람공간의 확보에 대한 욕구가 크고, 특히 상대적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 이에 대한 욕구가 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1-8〉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

(단위 : 명, %, 점)

구분(N=307)	전혀 필요하 지 않다	필요하 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하 다	매우 필요하 다	5점 만점
1) 어린이·청소년 서가	0 (0.0)	7 (2.3)	36 (11.7)	157 (51.1)	107 (34.9)	4.2
2) 어린이·청소년 전용 열람 공간	0 (0.0)	8 (2.6)	46 (15.0)	139 (45.3)	114 (37.1)	4.2
3) 어린이·청소년 휴식/놀이 공간	0 (0.0)	10 (3.3)	57 (18.6)	142 (46.3)	98 (31.9)	4.1
4) 어린이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0 (0.0)	9 (2.9)	49 (16.0)	146 (47.6)	103 (33.6)	4.1
5) 어린이·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	2 (0.7)	13 (4.2)	62 (20.2)	142 (46.3)	88 (28.7)	4.0
6)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페이스)	5 (1.6)	21 (6.8)	65 (21.2)	142 (46.3)	74 (24.1)	3.8

〈표 5-1-9〉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분(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1) 어린이·청소년 서가	비수도권	161	4.11	.747	-2.046*
	수도권	146	4.27	.690	
2) 어린이·청소년 전용 열람공간	비수도권	161	4.06	.780	-2.574**
	수도권	146	4.29	.752	
3) 어린이·청소년 휴식/놀이 공간	비수도권	161	4.00	.798	-1.586
	수도권	146	4.14	.788	
4) 어린이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	비수도권	161	4.07	.755	-1.015
	수도권	146	4.16	.797	
5) 어린이·청소년 동아리(모임) 공간	비수도권	161	3.93	.848	-1.194
	수도권	146	4.04	.846	
6)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페이스)	비수도권	161	3.81	.963	-.597
	수도권	146	3.88	.878	

마.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111명, 36.3%)’, ‘매우 필요하다’(185명, 60.3%) 등으로 응답하여 응답자 대부분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공감(평균, 4.6점/5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지역

별로 살펴본 결과,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0〉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필요성

(단위 : 명, %, 점)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5점 만점
0(0.0)	0(0.0)	11(3.6)	111(36.2)	185(60.3)	4.6

〈표 5-1-11〉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분(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필요성	비수도권	161	4.50	.593	-2.309*
	수도권	146	4.64	.522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공간 구성, 서비스 기획, 서비스 운영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5-1-12〉에 제시되어 있다. 서비스 대상인 어린이·청소년들은 서비스 운영(104명, 28.1%), 서비스 기획(73명, 19.7%) 또는 공간 구성(39명, 10.5%) 등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았으며, 참여가 없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154명, 41.6%)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간 구성, 서비스 기획 및 운영과정에 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소재한 도서관의 경우 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참여가 없음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2> 공간 구성, 서비스 기획 및 운영 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여부(복수 응답)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① 어린이·청소년이 공간 구성에 참여	16(8.6)	23(12.5)	39(10.5)
② 어린이·청소년이 서비스 기획에 참여(북 큐레이션, 문화프로그램 등에 청소년 아이디어 반영 등)	33(17.7)	40(21.7)	73(19.7)
③ 어린이·청소년이 서비스 운영에 참여(북 큐레이션, 사서 체험, 독서동아리 진행, 운영위원 등)	42(22.6)	62(33.7)	104(28.1)
④ 어린이·청소년의 참여 없음	95(51.1)	59(32.1)	154(41.6)

다음으로 응답자들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3년 이상 지속해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수는 1~3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24명, 40.4%). 그 외 4~6개 96명(31.3%), 7개 이상 55명(17.9%), 1개 이하 32명(10.4%)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응답 도서관 중 절반 이상(50.8%)이 3개 이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3> 3년 이상 지속적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단위 : 명, %)

① 1개 이하	② 1~3개	③ 4~6개	④ 7개 이상
32(10.4)	124(40.4)	96(31.3)	55(17.9)

한편, 응답자들이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하는 부분(<표 5-1-14>)은 ‘가시적 성과(양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행사 위주의 진행(이벤터성)’으로 나타나, 성과 위주의 이벤트성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 미흡(유연성 결여)’,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확일성)’, ‘일시적 유행이나 관행적 대응(비체계성)’, ‘기타’, ‘일관성 결여(일회성)’,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 미반영(관계성 결여)’ 등의 순이었다.

〈표 5-1-14〉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단위 : 명, %)

구분	1순위(N=306)	2순위(N=307)	종합순위(N=919)	
① 행사 위주의 진행(이벤트성)	59(19.3)	48(15.6)	166(18.1)	2순위
② 도서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 미흡(유연성 결여)	48(15.7)	46(15.0)	142(15.5)	3순위
③ 프로그램의 다양성 결여(획일성)	49(16.0)	35(11.4)	133(14.5)	4순위
④ 일시적 유행이나 관행적 대응(비체계성)	24(7.8)	38(12.4)	86(9.4)	5순위
⑤ 일관성이 결여(일회성)	14(4.6)	30(9.8)	58(6.3)	7순위
⑥ 지역사회의 기대와 요구 미반영(관계성 결여)	14(4.6)	16(5.2)	44(4.8)	8순위
⑦ 가시적 성과 집착(양적 성과 집착)	65(21.2)	59(19.2)	189(20.6)	1순위
⑧ 본질을 외면한 프로그램 구성(본질성 결여)	11(3.6)	20(6.5)	42(4.6)	9순위
⑨ 기타	22(7.2)	15(4.9)	59(6.4)	6순위

※ 종합순위는 1순위 응답자에 2배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도출하였음

다음으로 <표 5-1-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자료, 예산 등의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 (115명, 37.5%)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프로그램의 내용’ 94명(30.6%), ‘수강생의 만족도’ 44명(14.3%),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21명(6.8%), ‘강사의 자질’ 14명(4.6%), ‘담당자의 전문성’ 10명(3.3%), ‘운영 시기’ 5명(1.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도 일부(4명, 1.3%) 있었는데, 실적 위주의 압박 문제, 프로그램과 독서 인문교육과의 연관성, 수강생의 참여 유도, 지속 유인을 위한 인식 등을 언급하였다. 한편,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이나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5〉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필요 요소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① 운영 시기	5(3.1)	0(0.0)	5(1.6)
② 강사의 자질	9(5.6)	5(3.4)	14(4.6)
③ 프로그램의 내용	52(32.3)	42(28.8)	94(30.6)
④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7(4.3)	14(9.6)	21(6.8)
⑤ 수강생의 만족도	25(15.5)	19(13.0)	44(14.3)
⑥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시설, 자료, 예산)	57(35.4)	58(39.7)	115(37.5)
⑦ 담당자의 전문성	4(2.5)	6(4.1)	10(3.3)
⑧ 기타	2(1.2)	2(1.4)	4(1.3)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조사 결과는 〈표 5-1-1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현재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독서 관련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고, 첨단기술이나 진로 그리고 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비중이 높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독서교육 프로그램’ (226명, 10.8%)을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책 소개, 북 큐레이션’ 220명(10.6%),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과 ‘독후활동(독서 연계) 프로그램’ 이 각각 216명(10.4%)으로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그 외 ‘문화강좌강연’ 206명(9.9%), ‘문화예술 전시 및 행사’ 198명(9.5%), ‘책 읽기 프로그램’ 174명(8.3%), ‘독서 동아리’ 172명(8.3%), ‘도서관 봉사 동아리’ 96명(4.6%), ‘진로 지도’ 94명(4.5%),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75명(3.6%), ‘창작·체험 활동’ 71명(3.4%), ‘외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61명(2.9%), ‘모바일 서비스’ 59명(2.8%) 순이었다.

다음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편성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독서교육 프로그램(86명, 17.6%)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독후활동(독서 연계) 프로그램’ 67명(13.7%), ‘문화강좌강연’ 49명(10.0%), ‘책 읽기 프로그램’ 46명(9.4%), ‘책 소개, 북 큐레이션’ 43명(8.8%), ‘문화예술 전시 및 행사’ 35명(7.2%), ‘독서 동아리’ 29명(5.9%),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25명(5.1%), ‘진로지도’ 23명(4.7%), ‘창작·체험 활동’ 21명(4.3%),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와 ‘모바일 서비스’ 각각 17명(3.5%), ‘도서관 봉사 동아리’ 16명(3.3%), ‘외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15명(3.1%) 등의 순으로 편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이용도가 높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독서교육 프로그램(78명, 12.9%)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독후활동(독서 연계) 프로그램’ 66명(10.9%), ‘문화·예술 전시 및 행사’ 58명(9.6%), ‘문화강좌강연’ 52명(8.6%), ‘외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47명(7.8%), ‘책 소개, 북 큐레이션’ 46명(7.6%), ‘책 읽기 프로그램’ 44명(7.3%), ‘이용자 교육프로그램’ 37명(6.1%), ‘도서관 봉사 동아리’ 36명(6.0%), ‘모바일 서비스’ 35명(5.8%), ‘독서 동아리’ 32명(5.3%), ‘창작·체험 활동’ 27명(4.5%),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24명(4.0%), ‘진로 지도’ 22명(3.6%) 순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필요성이 가장 높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103명, 12.3%)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창작·체험 활동’ 85명(10.1%), ‘진로지도’ 72명(8.6%), ‘독서교육 프로그램’ 71명(8.5%), ‘모바일 서비스’ 70명(8.4%), ‘외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66명(7.9%), ‘독서 동아리’와 ‘도서관 봉사 동아리’가 각각 60명(7.2%), ‘책 읽기 프로그램’ 51명(6.1%), ‘이용자 교육프로그램’과 ‘독후활동(독서 연계) 프로그램’이 각각 48명(5.7%), ‘문화강좌강연’ 37명(4.4%), ‘책 소개, 북 큐레이션’ 35명(4.2%), ‘문화·예술 전시 및 행사’ 32명(3.8%) 순으로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종합하면,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중 독서 관련 프로그램(책소개·북큐레이션, 독서교육 프로그램, 독후활동 프로그램 등)과 교양 문화 관련 강좌 등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현재 많이 제공 중이며, 도서관 내 편성 비중이 높고 이로 인해 이용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나 진로지도, 그리고 창작·체험 활동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현재 잘 제공되지 않거나 편성 비중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의 필요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표 5-1-16〉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편성 비중, 이용률, 필요성(복수 응답)

(단위 : 명, %)

구분(N=307)		현재 제공 중	편성 비중이 높은 것	이용도가 높은 것	필요성이 높은 것
교육	1) 이용자 교육프로그램(도서관 견학투어,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 등)	216 (10.4)	25 (5.1)	37 (6.1)	48 (5.7)
	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75 (3.6)	17 (3.5)	24 (4.0)	103 (12.3)
	3) 외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61 (2.9)	15 (3.1)	47 (7.8)	66 (7.9)
독서	4) 책 소개, 북 큐레이션(권장 도서 선정 및 전시)	220 (10.6)	43 (8.8)	46 (7.6)	35 (4.2)
	5) 책 읽기 프로그램(스토리텔링, 동화구연)	174 (8.3)	46 (9.4)	44 (7.3)	51 (6.1)
	6) 독서교육 프로그램(독서 관련 강좌, 작가와와의 만남 등)	226 (10.8)	86 (17.6)	78 (12.9)	71 (8.5)
	7) 독서 동아리(독서 토론 등)	172 (8.3)	29 (5.9)	32 (5.3)	60 (7.2)
	8) 독후활동(독서 연계) 프로그램((예: 독서 후 만들기 등 독서 체험활동, 독서신문, 독서 논술 등)	216 (10.4)	67 (13.7)	66 (10.9)	48 (5.7)
문화	9) 문화강좌강연(교양, 문화 관련 강좌, 인문학 강연, 작가초청 강좌)	206 (9.9)	49 (10.0)	52 (8.6)	37 (4.4)
	10) 문화예술 전시 및 행사(영화 상영, 전시회, 공연, 연극 놀이 등 문화프로그램)	198 (9.5)	35 (7.2)	58 (9.6)	32 (3.8)
진로	11) 진로 지도(진로 체험, 취업 및 대입 정보 지원 등)	94 (4.5)	23 (4.7)	22 (3.6)	72 (8.6)
첨단기술	12) 창작체험 활동(AR/VR, 메이커스페이스, STEAM 등)	71 (3.4)	21 (4.3)	27 (4.5)	85 (10.1)
	13) 모바일 서비스(게임, 코딩 등)	59 (2.8)	17 (3.5)	35 (5.8)	70 (8.4)
기타	14) 도서관 봉사 동아리(청소년 사서체험, 청소년 진행 도우미 등)	96 (4.6)	16 (3.3)	36 (6.0)	60 (7.2)

바. 운영상 애로 사항 및 정책 욕구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표 5-1-17〉)은 먼저 ‘도서관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 (95명, 30.9%)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서의 최신성과 다양성’, ‘독서프로그램’ 이 각각 70명

(22.8%)으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어 ‘문화프로그램 및 행사’ 49명(16.0%), ‘도서 관련 정보(권장도서목록 및 주제별 도서 리플릿 등)’ 21명(6.8%), ‘컴퓨터(인터넷) 및 자료검색 장비’ 2명(0.7%) 순이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도서관에서는 독서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소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안내문 및 매뉴얼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7〉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① 도서의 최신성과 다양성	37(23.0)	33(22.6)	70(22.8)
② 도서 관련 정보(권장도서목록 및 주제별 도서 리플릿 등)	7(4.3)	14(9.6)	21(6.8)
③ 독서 프로그램	33(20.5)	37(25.3)	70(22.8)
④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28(17.4)	21(14.4)	49(16.0)
⑤ 도서관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	55(34.2)	40(27.4)	95(30.9)
⑥ 컴퓨터(인터넷) 및 자료검색 장비	1(0.6)	1(0.7)	2(0.7)

한편,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표 5-1-18〉)으로는 ‘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이용자 확보’, 3순위는 ‘이용자 요구(만족도)’ 등이 높게 나타났고, 이어 ‘인력’, ‘서비스 공간’, ‘시설 및 설비’, ‘타 기관 간 네트워크’, ‘사무실 면적’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수행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1-18〉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수행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

(단위 : 명, %)

구분(N=307)	1순위	2순위	종합순위(N=921)	
① 예산	75(24.4)	79(25.7)	229(24.9)	1순위
② 인력	38(12.4)	51(16.6)	127(13.8)	4순위
③ 서비스 공간	36(11.7)	51(16.6)	123(13.4)	5순위
④ 사무실 면적	0(0.0)	1(0.3)	1(0.1)	8순위
⑤ 시설 및 설비	11(3.6)	19(6.2)	41(4.5)	6순위
⑥ 타 기관 간 네트워크	6(2.0)	4(1.3)	16(1.7)	7순위
⑦ 서비스 이용자 확보	67(21.8)	59(19.2)	193(21.0)	2순위
⑧ 이용자 요구 (만족도)	74(24.1)	43(14.0)	191(20.7)	3순위

※ 종합순위는 1순위 응답자에 2배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도출하였음

〈표 5-1-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애로 사항으로는 ‘전문 인력(사서)의 부족’ (70명, 22.8%)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이어서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58명(18.9%), ‘외부 강사 선정 및 수급의 어려움’ 과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 이 각각 49명(16.0%), ‘예산 부족’ 43명(14.0%), ‘프로그램 홍보 활동의 어려움’ 17명(5.5%), ‘담당자(사서)의 전문성 부족’ 10명(3.3%), ‘기관장의 의지 부족(인식 결여)’ 7명(2.3%), ‘기타’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전문 인력 부족과 외부 강사 선정 및 수급 등 인력 관련 애로 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시설 및 설비 노후화이나 예산 부족 등에 대한 애로 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표 5-1-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에 향후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새로운 공간 확보 및 공간 리모델링’ (103명, 33.6%)과 ‘인력 충원’ (93명, 30.3%), ‘예산 증가’ (45명, 14.7%) 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 ‘프로그램 지원’ 29명(9.4%), ‘신기술 적용 설비 구축(인공지능, AR, VR, 1인 미디어실 등)’ 20명(6.5%),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16명(5.2%), ‘기타’ 1명(0.3%) 등의 순이었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인력 충원 관련 지원이,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새로운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관련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1-19〉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 사항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①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28(17.4)	30(20.5)	58(18.9)
② 전문 인력(사서) 부족	41(25.5)	29(19.9)	70(22.8)
③ 예산 부족	18(11.2)	25(17.1)	43(14.0)
④ 담당자(사서)의 전문성 부족	4(2.5)	6(4.1)	10(3.3)
⑤ 기관장의 의지 부족(인식 결여)	4(2.5)	3(2.1)	7(2.3)
⑥ 외부 강사 선정 및 수급의 어려움	33(20.5)	16(11.0)	49(16.0)
⑦ 프로그램 홍보 활동의 어려움	7(4.3)	10(6.8)	17(5.5)
⑧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	24(14.9)	25(17.1)	49(16.0)
⑨ 기타	2(1.2)	2(1.4)	4(1.3)

〈표 5-1-20〉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우선하여 필요한 부분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빈도(비율)
	비수도권	수도권	
① 예산 증가	23(14.3)	22(15.1)	45(14.7)
② 새로운 공간 확보 및 공간 리모델링	40(24.8)	63(43.2)	103(33.6)
③ 인력 충원	60(37.3)	33(22.6)	93(30.3)
④ 프로그램 지원	19(11.8)	10(6.8)	29(9.4)
⑤ 신기술 적용 설비 구축(인공지능, AR, VR, 1인 미디어실 등)	10(6.2)	10(6.8)	20(6.5)
⑥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9(5.6)	7(4.8)	16(5.2)
⑦ 기타	0(0.0)	1(0.7)	1(0.3)

한편,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활성화(〈표 5-1-21〉)를 위해서는 ‘어린이·청소년 이용자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그 외에는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 확보 또는 확대’(종합 2순위), ‘어린이 전담 인력(사서 및 사서 보조

등) 지원' (종합 3순위), '지자체(교육청)의 예산지원' (종합 4순위), '지역주민(학부모)의 관심' (종합 5순위), '외부 전문가 및 강사 지원' (종합 6순위),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종합 7순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 자료' (종합 8순위)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표 5-1-21〉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구분(N=307)	1순위	2순위	종합순위(N=921)	
① 어린이·청소년 이용자의 관심	96(31.3)	48(15.6)	240(26.1)	1순위
② 지역주민(학부모)의 관심	29(9.4)	34(11.1)	92(10.0)	5순위
③ 지자체(교육청)의 예산 지원	28(9.1)	46(15.0)	102(11.1)	4순위
④ 어린이 전담 인력(사서 및 사서보조 등) 지원	60(19.5)	51(16.6)	171(18.6)	3순위
⑤ 외부 전문가 및 강사 지원	21(6.8)	42(13.7)	84(9.1)	6순위
⑥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 확보 또는 확대	61(19.9)	63(20.5)	185(20.1)	2순위
⑦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 자료	3(1.0)	10(3.3)	16(1.7)	8순위
⑧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9(2.9)	13(4.2)	31(3.4)	7순위

※ 종합순위는 1순위 응답자에 2배수를 가중치로 부여하여 도출하였음

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해서(〈표 5-1-22〉),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에서는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192명, 62.5%),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155명, 50.5%)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장애 어린이·청소년(118명, 38.4%), 한부모/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57명, 18.6%),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45명, 14.7%),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38명, 12.4%)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대체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지역별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그동안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주로 장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상대적으로 그 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추후 한부모/조손가정, 보호시설,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5-1-22〉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유무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제공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1) 장애 어린이·청소년	46(28.6)	72(49.3)	118(38.4)
2)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95(59.0)	97(66.4)	192(62.5)
3)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64(39.8)	91(62.3)	155(50.5)
4) 한부모/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	22(13.7)	35(24.0)	57(18.6)
5)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 (소년원, 그룹홈, 고아원 등)	14(8.7)	24(16.4)	38(12.4)
6)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 등)	20(12.4)	25(17.1)	45(14.7)

한편, <표 5-1-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대부분 모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적으로 4.0 내외의 점수를 보여 대체로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장애, 다문화가정 등 기존에 주 서비스 대상이었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높았으나, 한부모, 보호시설, 학교밖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제공 필요성에도 평균 이상 동의하고 있었다.

한편,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표 5-1-24>),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향후 제공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1-2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향후 제공 필요성

(단위 : 명, %, 점)

구분(N=30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만점
1) 장애 어린이·청소년	2 (0.7)	8 (2.6)	56 (18.2)	170 (55.4)	71 (23.1)	4.0
2)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1 (0.3)	7 (2.3)	50 (16.3)	162 (52.8)	87 (28.3)	4.1
3)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2 (0.7)	4 (1.3)	65 (21.2)	161 (52.4)	75 (24.4)	4.0
4) 한부모/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	3 (1.0)	14 (4.6)	63 (20.5)	153 (49.8)	74 (24.1)	3.9
5)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 (소년원, 그룹홈, 고아원 등)	4 (1.3)	19 (6.2)	81 (26.4)	143 (46.6)	60 (19.5)	3.8
6)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 등)	5 (1.6)	13 (4.2)	91 (29.6)	131 (42.7)	67 (21.8)	3.8

〈표 5-1-24〉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향후 제공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분(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1) 장애 어린이·청소년	비수도권	161	3.84	.803	-3.256***
	수도권	146	4.12	.684	
2)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비수도권	161	3.95	.781	-2.845**
	수도권	146	4.19	.698	
3)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비수도권	161	3.86	.762	-3.058**
	수도권	146	4.12	.723	
4) 한부모/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	비수도권	161	3.80	.872	-2.509*
	수도권	146	4.04	.795	
5)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소년원, 그룹홈, 고아원 등)	비수도권	161	3.66	.894	-2.193*
	수도권	146	3.88	.851	
6)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학업 중단, 가출 청소년 등)	비수도권	161	3.68	.933	-2.322*
	수도권	146	3.91	.821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5-1-25〉),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181명, 59.0%), ‘책읽어 주세요’ (148명, 48.2%) 사업을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나, 컴퓨터/청소년수련관/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이외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소재 도서관에서 사업 시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25〉 문화체육관광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 시행 여부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시행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1)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지원	39(24.2)	47(32.2)	86(28.0)
2)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독서 및 독후활동, 공연 관람 등)	25(15.5)	40(27.4)	65(21.2)
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지역아동센터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96(59.6)	85(58.2)	181(59.0)
4)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찾아가는 프로그램)	54(33.5)	64(43.8)	118(38.4)
5) 컴퓨터,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19(11.8)	16(11.0)	35(11.4)
6) 책 읽어 주세요 (일반/취약계층 아동 책 읽어 주는 자원봉사활동)	70(43.5)	78(53.4)	148(48.2)
7) 초·중학생 청소년 북토크(독서교환권) 지원 사업	6(3.7)	10(6.8)	16(5.2)
8)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소년원과 자립시설 등 위기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문화예술치료 프로그램)	8(5.0)	7(4.8)	15(4.9)
9) 농산어촌 청소년도서관의 보물상자	4(2.5)	4(2.7)	8(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대부분의 사업 필요성(〈표 5-1-26〉)에 대해서는 평균 4.0점 내외로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평균 4.0점), ‘문화예술교육 지원’ (평균 4.0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5-1-26〉 문화체육관광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의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N=30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만점
1)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지원	1 (0.3)	12 (3.9)	90 (29.3)	150 (48.9)	54 (17.6)	3.8

2)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 및 독후활동, 공연 관람 등)	1 (0.3)	17 (5.5)	83 (27.0)	148 (48.2)	58 (18.9)	3.8
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지역아동센터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2 (0.7)	8 (2.6)	50 (16.3)	169 (55.0)	78 (25.4)	4.0
4)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청 소년 찾아가는 프로그램)	1 (0.3)	9 (2.9)	54 (17.6)	167 (54.4)	76 (24.8)	4.0
5) 쉼터,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 독서프로그램	4 (1.3)	14 (4.6)	86 (28.0)	148 (48.2)	55 (17.9)	3.8
6) 책 읽어 주세요 (일반/취약계층 아 동 책 읽어 주는 자원봉사활동)	2 (0.7)	10 (3.3)	73 (23.8)	152 (49.5)	70 (22.8)	3.9
7) 초·중학생 청소년 북토크 (독서교환 권) 지원 사업	2 (0.7)	15 (4.9)	89 (29.0)	148 (48.2)	53 (17.3)	3.8
8)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소년원과 자립시설 등 위기청소년 대상 독서 치료, 문화예술치료 프로그램)	2 (0.7)	19 (6.2)	73 (23.8)	153 (49.8)	60 (19.5)	3.8
9) 농산어촌 청소년도서관의 보물상자	5 (1.6)	25 (8.1)	92 (30.0)	136 (44.3)	49 (16.0)	3.6

한편, 이를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표 5-1-27>), ‘농산어촌 청소년도서관의 보물상자’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업에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1-27> 문화체육관광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업의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 분(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1)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지원	비수도권	161	3.66	.774	-3.098**
	수도권	146	3.94	.772	
2)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 및 독 후활동, 공연 관람 등)	비수도권	161	3.66	.814	-3.036**
	수도권	146	3.95	.803	
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지역아동센터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비수도권	161	3.94	.788	-1.980*
	수도권	146	4.11	.725	
4)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찾아가는 프 로그램)	비수도권	161	3.91	.762	-2.209*
	수도권	146	4.10	.740	
5) 쉼터,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 독 서 프로그램	비수도권	161	3.68	.841	-2.016*
	수도권	146	3.87	.833	
6) 책 읽어 주세요 (일반/취약계층 아동 책 읽어 주는 자원봉사활동)	비수도권	161	3.81	.768	-2.112*
	수도권	146	4.01	.835	

7) 초·중학생 청소년 복토콘(독서교환권) 지원 사업	비수도권	161	3.68	.787	-2.007*
	수도권	146	3.86	.836	
8)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위기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문화예술치료 프로그램)	비수도권	161	3.71	.862	-2.203*
	수도권	146	3.92	.806	
9) 농산어촌 청소년도서관의 보물상자	비수도권	161	3.63	.857	-.299
	수도권	146	3.66	.949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한 사업 이외에,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이 생활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장애, 저소득층, 다문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많았다.

〈표 5-1-28〉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자체 서비스나 프로그램

구분	서비스 및 프로그램 내용
① 장애 어린이·청소년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도서관 서비스 개선사업(장애아동 대상 독후활동 실시) 장애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동화와 함께하는 연극 놀이 장애인시설 방문하여 책 읽기 프로그램 진행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복지관,지역아동센터)- 장애우 대상 힐링 미술, 칼림바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지역 내 학교 특수학급 독서프로그램 지원 사업 치유형 대안학교 등 정서 행동 장애 어린이, 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프로그램 인근 고등학교 특수반 대상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사서 직업 체험 형태) 지역아동센터 연계, 장애인보호센터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마술쇼 & 버블벌룬쇼 다문화 및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특수학급)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장애아동학교 연계 프로그램, 장애인학교로 찾아가는 책읽기 프로그램 장애/아동복지 관련 기관 연계 프로그램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 활동 프로그램 행복 전하는 동화배달부(지역 내 지적 장애아동, 고등학교 특수학급, 노인요양원) 장애 아린이청소년 독후감대회/공모 느린 학습자를 위한 독서콘텐츠 개발, 장애 청소년대상 도예 교실 운영
②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소외계층 지원 독서프로그램 저소득층 어린이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역아동센터 대상 도서관 견학 지역아동센터-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프로그램 저소득층 어린이 관내 문화 탐방 지원 지역아동센터를 찾아가 역사 교실, 쿠키 아트 등 프로그램 진행

	청소년 공간 영상동아리: 지역아동센터 대상 동아리 운영 방학 중 독서 교실 및 특강 시 취약계층 어린이 우선접수 어린이 대상 정규강좌 프로그램 기초생활수급자 수강료 무료 경남교육청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영어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③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다문화학교로 찾아가는 책 읽기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의 다문화책 단체 대출 이중언어교육(다문화 어학교실) 및 문화 다양성 관련된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참여아동 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하반기 예정) 다문화 유아 대상 그림책 활동 관내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장애가 있는 학생에게 찾아가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제공 다문화아동을 위한 다양한 국가의 책 구비
④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	-
⑤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	-
⑥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토론, 독후활동 등)
⑦ 기타	돌봄 지원 사업 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돌봄 키움센터 연계 프로그램 운영, (돌봄교실 어린이 대상) 단체대출서비스 등 이야기 로봇 루카 대출서비스, 아이꿈누리터 단체대출(취약기관에 도서 장기대출)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일반 독후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협력망프로그램 찾아가는 도서관(책배달), 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일반청소년 프로그램 NIE,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동지원, , 동화구연, 체험 활동, 전시 사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책놀이(돌봄센터 아동들 대상) 소외계층 지원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텃밭 가꾸기, 독서 교실, 만들기 체험프로그 램, 그림책 전시, 농어촌 어린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지원프로그램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책놀이 프로그램 제공 및 도서 연계 활동 제공

다음으로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계획 여부와 관련해서(〈표 5-1-29〉), 장애 어린이·청소년(82명, 22.1%)이나 저소득층(74명, 19.9%), 다문화가정(61명, 16.4%)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16명, 4.3%),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14명, 3.8%),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7명, 1.9%)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계획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도 112명(30.2%)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향후 취약

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과적으로 현재 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계획은 기존 서비스 제공과 유사하게 장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부모/조손가정, 보호시설,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 계획은 매우 미미하거나 심지어 도서관의 여건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계획이 없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 관련 제약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29〉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계획 여부(복수 응답)

(단위 : 명, %)

구분(N=307)	지역		합계
	비수도권	수도권	
① 장애 어린이·청소년	26(15.3)	56(27.9)	82(22.1)
②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30(17.6)	44(21.9)	74(19.9)
③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21(12.4)	40(19.9)	61(16.4)
④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	3(1.8)	11(5.5)	14(3.8)
⑤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	3(1.8)	4(2.0)	7(1.9)
⑥ 학교 밖 청소년	5(2.9)	11(5.5)	16(4.3)
⑦ 계획 없음	78(45.9)	34(16.9)	112(30.2)
⑧ 기타	4(2.4)	1(0.5)	5(1.3)

한편, 〈표 5-1-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전문 인력(사서) 부족’ (평균 3.9점) ‘예산 부족’ (평균 3.8점), ‘시설 및 설비 부족’ (평균 3.7점) 그리고 ‘이용 대상자 부족’ (평균 3.6점) 등의 항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대부분의 항목들도 일정부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제약요인으로 언급되었으나, ‘기관장의 의지 부족(인식 결여)’ (평균 2.6점) 은 제약요인으로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1-30〉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 점)

구분(N=30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만점
1) 시설 및 설비 부족	10 (3.3)	23 (7.5)	70 (22.8)	142 (46.3)	62 (20.2)	3.7
2) 전문인력(사서) 부족	6 (2.0)	14 (4.6)	65 (21.2)	139 (45.3)	83 (27.0)	3.9
3) 예산 부족	5 (1.6)	13 (4.2)	83 (27.0)	138 (45.0)	68 (22.1)	3.8
4) 담당자(사서)의 전문성 부족	13 (4.2)	41 (13.4)	113 (36.8)	113 (36.8)	27 (8.8)	3.3
5) 기관장의 의지 부족(인식 결여)	42 (13.7)	81 (26.4)	141 (45.9)	33 (10.7)	10 (3.3)	2.6
6) 장서 및 콘텐츠 부족	13 (4.2)	66 (21.5)	115 (37.5)	85 (27.7)	28 (9.1)	3.2
7) 프로그램 홍보 활동의 어려움	16 (5.2)	40 (13.0)	105 (34.2)	109 (35.5)	37 (12.1)	3.4
8) 이용 대상자 부족	9 (2.9)	24 (7.8)	95 (30.9)	121 (39.4)	58 (18.9)	3.6
9)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	11 (3.6)	42 (13.7)	139 (45.3)	84 (27.4)	31 (10.1)	3.3
10) 취약계층 노출에 대한 우려	13 (4.2)	42 (13.7)	118 (38.4)	93 (30.3)	41 (13.4)	3.3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표 5-1-31〉), 대다수 항목에서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간에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나,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 시설 및 설비 부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반면,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 기관장의 의지 부족을 제약요인으로 언급한 비중이 높았다.

〈표 5-1-3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이유(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분(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1) 시설 및 설비 부족	비수도권	161	3.60	1.014	-2.367*
	수도권	146	3.86	.914	
2) 전문인력(사서) 부족	비수도권	161	3.93	.912	.335
	수도권	146	3.89	.918	
3) 예산 부족	비수도권	161	3.73	.871	-1.773
	수도권	146	3.91	.886	
4) 담당자(사서)의 전문성 부족	비수도권	161	3.40	.944	1.379
	수도권	146	3.25	.972	
5) 기관장의 의지 부족(인식 결여)	비수도권	161	2.78	.906	2.851**
	수도권	146	2.47	.991	
6) 장서 및 콘텐츠 부족	비수도권	161	3.16	.997	-.079
	수도권	146	3.16	1.010	
7) 프로그램 홍보 활동의 어려움	비수도권	161	3.35	.944	-.246
	수도권	146	3.38	1.109	
8) 이용 대상자 부족	비수도권	161	3.58	.972	-.971
	수도권	146	3.69	.972	
9)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	비수도권	161	3.27	.967	.000
	수도권	146	3.27	.919	
10) 취약계층 노출에 대한 우려	비수도권	161	3.33	.980	-.351
	수도권	146	3.37	1.051	

결과적으로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인력, 예산, 시설 및 설비 등의 부족으로 나타났고, 이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외 이용 대상자 부족과 관련된 제약요인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요인으로 수도권의 경우 시설 및 설비 부족을, 비수도권의 경우 기관장의 의지를 언급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표 5-1-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항목에서 평균 4.0점 내외의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문 인력(사서) 충원’ (평균 4.2점), ‘예산 증가’ (평균 4.1점), ‘담당자(사서) 전문교육’ (평균 4.1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1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외 ‘새로운 시설 및 설비 구축’, ‘장서 및 콘텐츠 확보’, ‘추가 공간 확보’ 등도 4점 이상 비슷한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표 5-1-32>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단위 : 명, %)

구분(N=30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만점
1) 새로운 시설 및 설비 구축	1 (0.3)	6 (2.0)	69 (22.5)	157 (51.1)	74 (24.1)	4.0
2) 전문인력(사서) 충원	1 (0.3)	2 (0.7)	45 (14.7)	159 (51.8)	100 (32.6)	4.2
3) 예산 증가	2 (0.7)	2 (0.7)	47 (15.3)	160 (52.1)	96 (31.3)	4.1
4) 담당자(사서) 전문교육	1 (0.3)	3 (1.0)	43 (14.0)	170 (55.4)	90 (29.3)	4.1
5) 장서 및 콘텐츠 확보	1 (0.3)	5 (1.6)	62 (20.2)	171 (55.7)	68 (22.1)	4.0
6)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 (0.3)	1 (0.3)	46 (15.0)	170 (55.4)	89 (29.0)	4.1
7) 추가 공간 확보	1 (0.3)	7 (2.3)	65 (21.2)	158 (51.5)	76 (24.8)	4.0

이를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표 5-1-33>),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항목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위치한 도서관 간에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5-1-33〉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분(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1) 새로운 시설 및 설비 구축	비수도권	161	3.91	.705	-1.474
	수도권	146	4.03	.809	
2) 전문인력(사서) 총원	비수도권	161	4.14	.679	-.349
	수도권	146	4.17	.746	
3) 예산 증가	비수도권	161	4.09	.684	-1.001
	수도권	146	4.17	.782	
4) 담당자(사서) 전문교육	비수도권	161	4.08	.642	-1.125
	수도권	146	4.17	.755	
5) 장서 및 콘텐츠 확보	비수도권	161	3.94	.704	-1.004
	수도권	146	4.02	.738	
6)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비수도권	161	4.10	.614	-.649
	수도권	146	4.15	.755	
7) 추가 공간 확보	비수도권	161	3.92	.707	-1.480
	수도권	146	4.05	.816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심 정도에 대해서는(〈표 5-1-34〉), 관심있다(138명, 45.0%), 매우 관심있다(56명, 18.2%)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체로 높은 관심(평균 3.8점/5점)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은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관심도가 보다 높았다(〈표 5-1-35〉).

〈표 5-1-34〉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N=307, 단위 : 명, %)

전혀 관심없다	관심없다	보통이다	관심있다	매우 관심있다	5점 만점
1(0.3)	6(2.0)	106(34.5)	138(45.0)	56(18.2)	3.8

〈표 5-1-35〉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비수도권	161	3.60	1.014	-2.367*
	수도권	146	3.86	.914	

다음으로, 〈표 5-1-3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로 교육, 독서, 문화 관련 서비스 분야에 대한 동의 정도가 평균 4.0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 관련해서는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평균 4.0점), 독서 상담/독서 치료(평균 4.0점), 도서관이용 및 정보검색 교육(평균 3.9점) 등 평균 4.0 내외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독서 관련해서는 독서 및 독후(독서연계)활동(평균 4.1점), 독서모임/토론동아리 활동(평균 3.9점)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으며, 문화 관련해서는 음악, 미술, 영화 등 전시/공연 관람(평균 3.8점/5점), 문화강좌/강연 (평균 3.9점점)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높았다.

반면, 학습/진로 관련 체험 또는 활동이나 첨단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의 경우 평균적으로 3.5점 내외의 점수를 보여 상대적으로 동의 정도가 낮았다.

〈표 5-1-36〉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추가 제공 필요 서비스

(단위 : 명, %)

구분(N=30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 만점
교육	1) 도서관 이용 및 정보검색 교육	1 (0.3)	3 (1.0)	78 (25.4)	166 (54.1)	59 (19.2)	3.9
	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1 (0.3)	2 (0.7)	73 (23.8)	166 (54.1)	65 (21.2)	4.0
	3) 독서 상담/독서치료	3 (1.0)	7 (2.3)	56 (18.2)	162 (52.8)	79 (25.7)	4.0
독서	4) 독서 지원(독서교환권 등)	4 (1.3)	23 (7.5)	82 (26.7)	139 (45.3)	59 (19.2)	3.7
	5) 독서 및 독후(독서 연계)활동	1 (0.3)	4 (1.3)	49 (16.0)	173 (56.4)	80 (26.1)	4.1

	6) 독서 모임, 토론동아리 활동	2 (0.7)	9 (2.9)	84 (27.4)	150 (48.9)	62 (20.2)	3.9
문화	7) 음악, 미술, 영화 등 전시/공연 관람	4 (1.3)	9 (2.9)	86 (28.0)	143 (46.6)	65 (21.2)	3.8
	8) 문화강좌/강연	3 (1.0)	6 (2.0)	72 (23.5)	152 (49.5)	74 (24.1)	3.9
	9) 대학생 도서 도우미 연계	8 (2.6)	24 (7.8)	126 (41.0)	120 (39.1)	29 (9.4)	3.4
학습/진로	10) 학습지원	8 (2.6)	24 (7.8)	100 (32.6)	135 (44.0)	40 (13.0)	3.6
	11) 진로 지도/직업 체험	6 (2.0)	13 (4.2)	95 (30.9)	143 (46.6)	50 (16.3)	3.7
	12) 방과후 활동	9 (2.9)	22 (7.2)	111 (36.2)	127 (41.4)	38 (12.4)	3.5
첨단기술	13) 체험 프로그램 (AR/VR, 메이커스페이스 등)	5 (1.6)	17 (5.5)	96 (31.3)	146 (47.6)	43 (14.0)	3.7
	14) 모바일 서비스(게임, 코딩 등)	5 (1.6)	24 (7.8)	117 (38.1)	128 (41.7)	33 (10.7)	3.5
	15) 기자재 대여 서비스(태블릿 PC 등)	8 (2.6)	23 (7.5)	113 (36.8)	120 (39.1)	43 (14.0)	3.5
기타	16)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4 (1.3)	12 (3.9)	112 (36.5)	131 (42.7)	48 (15.6)	3.7
	17) 대상별 장서 개발 및 제공	1 (0.3)	11 (3.6)	91 (29.6)	147 (47.9)	57 (18.6)	3.8

이외, 이상으로 언급된 서비스 이외에 기타 서비스로는 도서관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 취약계층의 낙인감 감소를 위한 정보보호, 문화 활동 지원, 봉사 인력 및 활동 지원, 인력 및 예산 등에 대한 지원 등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공공도서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타 서비스로 언급되었다.

〈표 5-1-37〉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기타 항목

⑦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도서관 존재 여부 및 이용법 등에 대한 인식 부족, 도서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가입과 이용안내교육 등이 필요 느린학습자 독서 지원 독서를 통한 공동체 및 사회 적응 능력 강화 취약계층만이 아닌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청소년 전문 도서관 인력 외국어 가능한 봉사자 봉사활동 지원 문화활동 지원 취약계층 정보 보호상태에서 신청가능한 사이트나 방법 기관 간의 협력관계 구축 및 지원(예산, 프로그램 가이드 등) 도서관 밖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이동수단 필요 예산, 인력, 프로그램 등 지원 (대학생) (1:1) 멘토링 서비스 서울지역 도서관은 과밀된 상태로 도서관별로 서비스 특화를 통해 역할 분담이 필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국가적 네트워크 구축
------	---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추가적으로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역 별로 나누어 살펴보면(<표 5-1-38>), 대부분 항목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다만, 교육 영역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독서 상담/독서치료, 첨단기술 영역에서 모바일 서비스, 기자재 대여 서비스, 기타 영역에서 대상별 장서 개발 및 제공 등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상대적으로 추가 제공 필요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표 5-1-38〉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추가 제공 필요 서비스(수도권/비수도권)

(단위 : 명, 점)

구분(N=307)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통계치(t)
교육	1) 도서관 이용 및 정보검색 교육	비수도권	161	3.84	.679	-1.821
		수도권	146	3.99	.743	
	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비수도권	161	3.83	.673	-3.123**
		수도권	146	4.08	.729	
	3) 독서 상담/독서치료	비수도권	161	3.88	.745	-2.786**
		수도권	146	4.13	.816	
독서	4) 도서 지원(독서교환권 등)	비수도권	161	3.65	.882	-1.723
		수도권	146	3.83	.912	
	5) 독서 및 독후(독서 연계)활동	비수도권	161	4.00	.725	-1.702
		수도권	146	4.14	.681	
	6) 독서 모임, 토론동아리 활동	비수도권	161	3.80	.799	-1.278
		수도권	146	3.91	.787	
문화	7) 음악, 미술, 영화 등 전시/공연 관람	비수도권	161	3.77	.793	-1.402
		수도권	146	3.90	.881	
	8) 문화강좌/강연	비수도권	161	3.90	.800	-.862
		수도권	146	3.98	.801	
	9) 대학생 도서 도우미 연계	비수도권	161	3.40	.824	-1.104
		수도권	146	3.51	.912	
학습 / 진로	10) 학습지원	비수도권	161	3.55	.858	-.476
		수도권	146	3.60	.958	
	11) 진로 지도/직업 체험	비수도권	161	3.63	.827	-1.647
		수도권	146	3.79	.886	
	12) 방과후 활동	비수도권	161	3.47	.888	-1.326
		수도권	146	3.60	.921	
첨단 기술	13) 체험 프로그램(AR/VR, 메이커스페이스 등)	비수도권	161	3.61	.800	-1.288
		수도권	146	3.73	.889	
	14) 모바일 서비스(게임, 코딩 등)	비수도권	161	3.43	.796	-2.017*
		수도권	146	3.62	.896	
	15) 기자재 대여서비스(태블릿 PC 등)	비수도권	161	3.42	.841	-2.595**
		수도권	146	3.68	.974	

기타	16)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비수도권	161	3.60	.816	-1.593
		수도권	146	3.75	.843	
	17) 대상별 장서 개발 및 제공	비수도권	161	3.71	.811	-2.358*
		수도권	146	3.92	.747	

종합하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추가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도서관에서 수행해 왔거나 도서관의 본 기능 및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습이나 진로지도, 첨단기술 활용 체험 등과 같은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의 욕구는 있을 수 있지만 도서관의 기본 기능이나 역할과 다소 괴리가 있어 지역사회 관련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된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추가 서비스 중 일부 서비스의 경우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지역별로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관련 수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아. 소결 및 시사점

○ 도서관 운영 전반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장서의 충분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다양성, 그리고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최신 장비의 충분성, 담당 인력 확보, 자원봉사자 확보 등에서는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동아리 다양성,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충분성,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다양성에 있어 동의 수준이 높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시설 환경 및 공간 구성

어린이·청소년 자료실의 경우, 충분한 공간 확보와 공간 구분, 자유로운 활동 공간 등을 환경 및 공간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역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경우, 서가, 전용열람공간, 위생시설 등은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창작·체험 공간을 갖춘 도서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으나, 위생시설, 동아리 공간, 창작·체험 공간 등은 상대적으로 수도권 소재 도서관에서 공간을 갖춘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가, 전용 열람공간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도서관에서 필수 공간으로 전용 서가와 열람공간 확보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다.

○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매우 공감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어린이·청소년이 도서관의 공간 구성, 서비스 기획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와 어린이·청소년의 도서관 기획 및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 가시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이벤트성 행사 위주의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설, 자료, 예산 등과 같은 기본 인프라 확보와 프로그램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 수도권의 경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이나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많이 제공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독서 관련 프로그램(책소개·북큐레이션, 독서교육, 독후활동 등)과 교양

문화 관련 강좌 등이며, 이들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도서관 내 편성 비중도 높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나 창작·체험 활동, 그리고 교육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현재 잘 제공되지 않거나 편성 비중은 높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성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운영상 애로 사항 및 정책 욕구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 도서관 이용안내문/메뉴얼, 도서관의 최신성과 다양성, 독서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독서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이용안내문 및 메뉴얼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도서관에서 서비스 수행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예산과 서비스 이용자 확보 그리고 이용자 요구 등으로 나타나, 서비스 수행을 위한 적절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고려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 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도서관에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인력 관련 애로사항이, 수도권 소재 도서관의 경우 시설 및 설비 문제나 예산 부족 등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사자인 어린이·청소년의 관심뿐 아니라 전용 공간 확보, 전담 인력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경우 인력 충원 관련 지원, 수도권의 경우 새로운 공간 확보 및 리모델링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 앞에서 언급한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주로 장애, 저소득,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한부모/조손가정, 보호시설,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응답자의 경우, 대부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고 관심도 높지만, 인력, 예산, 시설 및 설비 등의 부족이나 이용 대상자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유관 기관과의 연계 협력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도서관의 소재 위치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관심이나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원인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이 필요하다.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추가 서비스의 경우, 도서관의 본 기능 및 역할과 관련된 교육, 독서, 문화 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 이를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학습/진로 지원, 첨단기술 활용한 활동 등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나 협력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부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별로 추가 서비스에 대한 동의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2. 초점 집단면접 조사(FGI) 결과 분석

가. 조사개요

1) 조사 대상 및 응답자 특성

초점 집단면접(FGI)은 도서관장, 광역시·도 단위 사서 및 농촌 지역 사서 등으로 구분하여 전국 단위 도서관장 5명, 도시지역 도서관 사서 5명, 농촌 읍면지역 도서관 사서 4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의 경우 교육청 산하 도서관과 지자체 산하 도서관,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하여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표집은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가장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업무 유경험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GI 참여자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협의회 등의 협조를 통해 섭외하였다. FGI는 도서관장, 광역시·도 단위 도서관 사서, 농촌 지역 도서관 사서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전국 단위로 흩어져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회의로 각 회당 2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조사는 8월 3일(목), 8월 4일(금), 8월 8일(화) 총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집단별 FGI 참여자의 주요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면, 도서관장의 경우 서울과 전남 지역의 교육청 산하 도서관장 총 2인과 서울, 청주, 인천 지역 도서관장 총 3인이며, 도서관 근무 경력은 6년~29년 4개월이다.

도시지역 도서관 사서는 세종시립도서관, 경남 대표도서관, 전북 정읍 기적의 도서관, 경기도 의왕시 중앙도서관, 남양주시 공공도서관 등 다양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각각의 도서관 유형에 따른 운영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도서관 총 근무 경력은 한 명(4년 8개월)을 제외한 4명은 14년~29년으로 오랜 근무 경험이었으며,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도 5년 내외의 경력을 갖추고 있었다.

농촌 읍면지역 도서관 사서의 경우는 경북 2곳과 충북, 제주의 읍면 지역에서

참여한 도서관 총 근무 경력 4년~20년,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경험 3년~20년의 사서들로 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FGI 참여자 현황은 <표 5-2-1>과 같다.

<표 5-2-1> 초점 집단면접(FGI) 조사대상자 현황

직위	연번	지역	도서관 근무 경력	어린이 · 청소년 서비스 경력	주 담당 업무
도서관장	(#A01)	서울(교육청)	23년 10개월	5년 10개월	도서관 업무 총괄
	(#A02)	서울 마포	6년	6년	도서관 업무 총괄
	(#A03)	충북 청주	23년 7개월	19년 1개월	도서관 업무 총괄
	(#A04)	전남(교육청)	29년 4개월	16년 8개월	도서관 업무 총괄
	(#A05)	인천	24년 6개월	13년 7개월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 (도시지역)	(#B01)	세종시립	21년 6개월	10년	도서관 정책 수립,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운영 등
	(#B02)	경남	4년 8개월	2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B03)	전북 정읍시	18년 3개월	6년 1개월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공모사업
	(#B04)	경기도 의왕시	14년		자료실 운영 및 참고 서비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B05)	경기도 남양주시	29년 2개월	16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사서 (농촌 읍·면 지역)	(#C01)	경북 고령군 다산면	4년	4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C02)	경북 달성군 다사읍	14년 5개월	9년	업무 총괄
	(#C03)	충북 괴산군 괴산읍	20년 1개월	20년 1개월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C04)	제주시 조천읍	6년	3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2) 조사내용 및 분석 방법

FGI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현황, 운영상의 어려움 및 애로 사항,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정책 욕구,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책무성,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등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집단면접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에게 사전에 질문지 초안을 공유하여 면접 대상자가 연구진이 제공한 질문지를 검토한 후 면접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FGI 진행 시 사회자는 참여자에게 FGI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비밀보장 및 익명성에 관해 확인해 주었으며, 녹음에 대한 동의를 구두로 받고 FGI 내용을 녹취하였다. 조사 결과 분석에 있어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녹취된 모든 인터뷰 내용을 전사하고 반복적으로 읽어가며 유목화 작업을 하였다. 각 유목화 내용에서 도출된 주제에 맞는 분석 용어 및 단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FGI 내용을 보고서에 인용할 때는 부여된 고유 숫자를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였다(예시 : (사례#A01). (사례#B03) 등).

〈표 5-2-2〉 초점 집단면접(FGI)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혹은 최근 2년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학교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 포함) 운영현황, 서비스나 프로그램 내용 - 중점대상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중 어느 대상을 중심으로? - 예산 : (자체 예산 수립/정부 공모사업 신청), 서비스의 필요성 및 향후 확대에 대한 의견 등 - 프로그램 우수사례 소개
운영상 어려움 및 애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시설 및 설비, 전문인력, 예산, 기관장 의지, 장서 및 콘텐츠, 프로그램 홍보, 이용 대상자, 관계기관 협조, 취약계층 노출 문제 등의 관점) - 현장에서 느꼈던 업무상 애로 사항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안
향후 운영 계획 및 정책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 -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 지원 방안(새로운 시설 및 설비 구축, 전문인력, 예산, 장서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추가 공간 확보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중 특히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대상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하거나 시급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1)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

각 도서관에서 관심을 지닌 특정 대상에 따라 혹은 다문화가족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대상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주로 저소득층이나 다문화아동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책과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드물게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취약계층의 경우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도서관과 협력하는 기관으로는 학교나 대안학교, 취약계층 초등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꿈드림 센터, 장애인복지관, 아동양육시설 등이 있으며 그 중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도서관의 자체 공간을 이용하거나 도서관과 협력 기관을 모두 이용하기도 하지만, 협력 기관의 공간을 활용해 진행하는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저희 도서관은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4년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전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다들 비슷하게 독후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C01)

특정 대상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 장애 친화적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중략) 모두의 도서관이라는 컨셉으로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교재나 책 전시**와 같은 것을 진행했습니다. (#A02)

취약계층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지역아동센터가 있었고, 그중에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꿈드림 센터와 연계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A04)

우리 도서관에서는 관 내에 중학생 아이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와 연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15회차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지금 7회차 정도 진행된 상태입니다. (#C02)

우리 도서관에서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두 가지를 운영 중이에요 인근 **초등학교 내에 방과후학교를 신청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과 양육시설에 찾아가서**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나 하고 있어요. (#A01)

프로그램의 내용 혹은 종류는 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며, 주로 초등학교 연령대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독서와 독후활동으로 신체활동이나 만들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 외 컴퓨터 리터러시와 같은 IT 활용 프로그램이나 직업 연계와 같은 특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강사를 섭외하고 파견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여 특별하게 진행하는 곳도 있었다.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정 회기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해당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역으로 가르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하기도 한다. 스스로 지도하는 입장에 놓였을 때 아이들의 만족감이나 교육의 효과성이 높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연속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견이다. 한편, 다문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했는데, 책과 함께하는 언어 교육이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으로 자연스럽게 한국문화나 한글에 익숙해지도록 하며, 한글 자격증 과정도 지원하고 있었다.

그 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독서나 심리치료, 최근에는 패드나 컴퓨터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많이 진행하는 등 컴퓨터 리터러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었고, 대안학교 학생에게 특화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했다. 특히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학교에는 진로나 취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 웹툰 작가, 유튜버, 과학자, 환경운동가, 진로 상담가, 샌드아트 등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섭외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고 해당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 관심을 보인다. 이처럼 대상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지원의 내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총 15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처음 3회는 도서관 사서가 진행하는 도서관 체험 ‘도서관 탐험, 이용법’, ‘책읽고 독후활동하기’, ‘도서관 모야체험’을 진행하고, 2회는 작가와의 만남, 10회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독서 및 독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B01)

지역아동센터 두 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방식이에요. 다문화 아이들이 모여 있는 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수준을 많이 낮춰야 해서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역아동센터장의 의견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이 좌우되는 게 있어요. (#C03)

강사를 섭외한 후에 매주 주제를 정해 프로그램을 짜두고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서 관련된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체활동 등을 하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말 좋아해요. 그렇게 선정하면 한곳에서 프로그램을 20회 정도 진행합니다. (#B03)

‘책 읽어 주세요’ 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경찰이나 보건소 선생님들같이 특정 직업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그 직업에 관련된 책을 읽어주는 활동입니다. 친구들 눈높이에 맞춰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했고 그분들이 직접 본인 직업과 관련된 책을 선정해서 경험담과 함께 이야기해 주는 방식이에요. (#C01)

공공도서관 중에는 특수성을 갖고 만들어진 도서관이나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 글로벌 영어 전문 도서관으로 ‘영어 장서로 전문화’ 되어 있고, ‘독서·문화 프로그램도 영어 위주의 활동’ 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지역 내 다른 공공도서관과 장애인, 다문화로 취약계층을 나누어서 해당 도서관이 담당하는 취약계층에 특화 주제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섬에 있는 분교로 찾아가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다. 성인지예산을 활용해서 성인지 관련 프로그램을 특화해서 운영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도서관들이다.

저희 ○○시 중앙도서관은 글로벌 영어전문 도서관인데 다문화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스토리텔링이나 인형극을 운영**하면서 흥미롭게 독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과 함께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진행하는데 책을 통해서 교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B04)

저희 도서관은 특화 주제가 장애인이고 근처 다른 도서관에서는 다문화를 특화로 진행하고 있어요. (중략) 인근 고등학교에는 **발달장애인 특수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학교에 방문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휴관일에 도서관에 와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B05)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협업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했는데 처음 5년을 성인지예산으로 하다 보니 성인지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소득이나 다문화,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성평등, 나다움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독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04)

2) 예산 확보

취약계층 서비스와 프로그램은 도서관의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하기도 하지만 국가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및 시·도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다문화 공모사업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도 있다. 교육청 사업별로 다문화, 소외계층, 어린이 프로그램과 같은 분야가 있고 그중 일부 예산을 활용하여 운영하게 된다. 자체 예산 책정에 한계가 있어 공모사업 위주로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공모사업 운영에는 사서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이다. 공모사업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이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자체 예산 프로그램 정도만 해도 되지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기반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업이 많으므로 사서의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공모사업의 경우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는 회기가 많지 않아 자체 예산을 투입하기도 한다. 예산 자체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10회나 12회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인데, 프로그램을 하나 하려면 20회기 정도는 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문화 서비스 지원 예산이나 성인지예산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특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산은 자체 예산 중에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예산을 20% 정도 잡아서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 **사서 선생님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A04)

경기도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문체부 국비 사업인**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을 조달해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B04)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7년째 진행하는데 5년 정도는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진행했어요**. 성인지예산을 선정해 줘야 되는 것이 있어서 성인지 사업으로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C04)

2019년 서울시에서 느린학습자 관련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다가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속하지는 못하기도 했어요**. (#A02)

3) 프로그램 우수사례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적 효과가 큰 우수사례도 확인되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과 함께 독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책 마을을 방문하여 ‘출판 과정을 경험하고 책 관련 프로그램을 체험’ 하는 활동이다. 도서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이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책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다음은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강사 양성 과정과 봉사활동 과정을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도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문화된 독서지도 강사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강사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강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봉사 인프라도 확보되는 부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책에 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거나 책에 등장하는 인물과 사물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책에서 얻은 정보를 현실화함으로써 책의 유용성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 등 프로그램의 효과와 성과가 높은 현장의 우수사례들이 공유되었다. 발달장애인과 같은 특수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기획부터 사회복지사와 협업하면서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회차, 참여자들의 요구사항 반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는 사례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 센터와 연계해서 도서관으로 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갔었는데 **책마을 헤이리에 가서 출판 과정을 경험**하고 책에 관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기도 했는데 만족도가 높고 보람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지속하고 싶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A04)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사과 김장 담그기’를 운영해서 한국의 맛 ‘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김치 담그는 방법과 순서를 익혀 김장을 완성하는 과정을 가족이 함께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C03)

청소년 발달장애인 대상 그림책 클레이아트 수업을 진행했어요. 4회의 짧은 수업이었지만, 책을 읽은 뒤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중요한 사물 등을 함께 만들어 보면서 독서에 대한 흥미가 확대되기도 했고, 전체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B02)

다.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및 애로 사항

1)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단계의 어려움

○ 강사 섭외 및 수당 문제

인력 문제는 사서 직원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강사를 섭외하지 못해서 대상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아동센터마다 로봇 강좌를 하고 싶어 하는데 강사를 수급하지 못해서 우선으로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배정하지 못하고 클레이 수업으로 대체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강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문제도 있다.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는 거의 없어서 도심지에서 강사를 섭외해야 하는데, 같은 금액의 수당을 받으며 외곽 지역까지 이동하는 것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에 투입할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강사를 직접 차량으로 이동시켜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기도 한다. 향후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농어촌을 고려하고, 강사수당을 책정할 때도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이다.

모집할 때 1순위 2순위 3순위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강사를 수급하지 못해서 우선으로 하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다른 수업으로 대체하는데 그런 것에 아쉬움이 있어요 (#B01)

시·군 지역에 강사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외곽 지역까지 이동하는 경우 이동 수당도 포함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은 정해져 있고 추가로 수당을 줄 수 없으니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려워요 (#B02)

○ 공간 확보의 어려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한계가 있다. 공간이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문제도 그중 하나이다. 일부 시골이나 외곽 지역은 도서관과의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골 지역에 위치한 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 도서관은 읍 지역에만 있어서 면이나 리 지역에는 공공도서관이 없고 학교 도서관만 있어요.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은데도 방치되고 있는 **시골 학교 도서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과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A04)

○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과 낙인 문제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서관에서 서비스하기에 가장 어려운 대상인데, 나아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은 더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도서관에 오는 주 연령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특히 중학생이 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이 적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를 따라 이용하다 중학교 가면서부터 학교생활이나 사교육을 하다 보니 도서관 이용이 줄고, 시험 기간과 같은 특정 기간을 제외하면 잘 오지 않고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과 입시로 도서관 이용이 거의 드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다가 대상자 섭외를 하지 못해 일반인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자 모집에 애로가 컸다.

작년에는 국비 사업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한국어능력시험’ 과정과 도서관에서 한국문화 소개 프로그램을 모집했는데 **참여가 저조해서 중간에 프로그램을 변경했어요.** (#B02)

초등학교 저학년은 도서관이 부모와 함께 오고 편안하고 즐거운 곳이지만 고학년부터는 도서관 방문 빈도가 낮아지고 중학교부터는 도서관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은 책과 멀어지게 돼요. (#B01)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는 대상자들이 가질 수 있는 낙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정 계층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낙인 문제가 발생하여 대상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를 고려해 취약계층을 일정 인원 정해서 우선 선발하고 다른 일반 대상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협력해서 저소득층 명단을 받기도 하지만 그 아이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낙인효과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시간인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일반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다. 저소득층 대상자 모집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애인과 다문

화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 한부모 가정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작년에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하려고 방법을 논의했는데 기준이 법적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고 수급 증명서를 떼올 수 있는 경우에만 되다 보니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상처가 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한 프로그램은 장애인과 다문화 사례밖에 없어요 (#B02)

프로그램 운영할 때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해요 저희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배려로 강좌 인원의 30%는 취약계층을 우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후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출석부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명단을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B01)

○ 보호자의 관심 부족과 기관 연계의 어려움

특히 어린이 서비스는 보호자의 관심이나 도움이 필요한데, 취약계층 어린이들은 이 점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저소득층 혹은 농어촌 자녀는 흔히 가정에서의 관심도가 낮거나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은 문해력이 부족한 부분도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가 많지 않아 지역아동센터에서 전 학년이 모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수준에 맞춰서 수업해야 할지 난감하고 중간 학년을 기준으로 수업하는데 어려워하기도 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다.

아동 프로그램은 보호자의 관심이 수반되어야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거든요 그런데 **농어촌 지역은 아이들이 방치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과제 같은 것도 해오는 경우가 적어요 **가정의 관심도가 낮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요** (#A04)

한편, 대상자 섭외를 위해서는 기관과 연계하게 되는데 기관에서 반가워하지 않거나 협조를 잘해주지 않는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 도서관이 온전히 주체가 되어 운영할 수 없고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기관의 선호도나 견해에 따라 프로그램에 제약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관에서는 아이들을 학교급이나 연령, 개인의 관심사 등을 반영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통합으로 운영해야 하고 대상자가 매회 참여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우선 다양한 연령층의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하교 시간의 차이, 개별 학원 등에 따라 양질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센터 원장님과 담당 선생님의 교육적 견해, 선호도 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현장에서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C04)

취약계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취약계층 아이들을 모집하는 게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센터와 연계를 해야 하고, 학교와 연계를 할 때도 따로 아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C03)

○ 기타

이 외, 예산 부족과 인력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우선 공모사업에서 나오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데, 공모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외곽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거리에 따라 강사수당에 차이를 둘 수 없어 예산 부족과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이므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를 주로 하게 되는데, 이때 강사비 외에도 간식비와 수업재료비까지 도서관에 요청하는 편이라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상대적으로 크다.

저희도 예산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모 선정이 안 되면 예산 문제로 지속적인 사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C01)

사실 저희도 예산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예산 절감할 때 제일 먼저 줄이는 사업이 아이들 대상 사업이었습니다. (#C04)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공모사업을 4년째 하고 있는데 내년에 배제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배제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해요. (#C01)

인력의 문제도 있다. 취약계층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닌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모를 신청하고, 강사를 섭외하거나 기관을 찾아 연계하는 과정들이 모두 사서의 업무 영역이 된다. 특히 취약계층 서비스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업무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인력은 자료실 운영, 프로그램 진행, 시설 관리 등으로 담당 업무가 구분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담당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에 응하는 등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학교나 기관에서 계속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인력 부족으로 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사서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인력 충원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조가 안 되면 진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경우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고려해야 하므로 현재 배치되어 있는 도서관 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크므로 인력 확충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꾸준히 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하고, 사서의 애정도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 환경이 그러기에는 어려워요 (#A02)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서관 사서의 정원이 늘어나야 해요. 프로그램의 양적 확장도 중요하지만, **인력 충원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도서관이 건강한 어른이 존재하는 믿음직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03)

2)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확대

도서관에서 운영하려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대상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서관에 대한 경험을 늘리기 위해 학교를 통해서 도서관 이용 교육을 하거나 참여 인원을 학교나 기관에서 추천하는 방식 등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은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효과를 없애기 위해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보다 일반 어린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하고,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나 우선권을

관련 학교나 기관에 줌으로써 취약계층이 자연스럽게 많이 추천되어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이면 참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다.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그룹들이 **도서관 이용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도서관 참여가 낮아요. 과거 도서관 이용 경험이 없어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경험을 많이 시켜주고** 싶어요. 학교를 통한 도서관 이용 방법 교육 및 도서관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시켜주어서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공공도서관으로 관심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C03)

○ 농어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농촌이나 외곽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곽 지역 아이들은 한부모 가정이나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책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도서관 이용을 통해 책을 접할 기회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서관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과 시외 지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극이나 오페라 등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문화 체험은 접근이 어려우므로 문화 행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한편, 농촌 지역 공공도서관의 경우 도서관 접근이 어려워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한정된 예산과 총 예산제로 인해 교통비 지원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토로하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극이나 오페라 같은 문화 체험도 도서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페라 공연을 초청해서 진행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 공연은 부모님들이 예약이나 예매해주는 게 보통인데 취약계층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C01)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버스비를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버스비를 많이 지원해줄 수가 없어요. 시골이라 아이들 학교에서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데 통학을 지원하는 차량이라 도서관에 오는 것은 지원할 수 없다고 하고, 예산을 더 세우고 싶어도 총 예산제에 걸려서 할 수도 없어요. (#C03)

○ 어린이·청소년 눈높이를 반영한 공간 확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들이 도서관에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계하는 것

보다 도서관에 공간을 마련하고,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도서관에 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과 대상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부분이 도서관의 한계이므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도 도서관이 온전히 주체가 되지 못하고, 기관의 선호도나 견해에 따라 프로그램에 제약이 생기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도서관에서 우선 아이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주고 대상자가 스스로 도서관을 오고 싶어 하게 됐을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도서관은 **우선 아이들이 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이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취약계층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그런 아이들도 선뜻 올 수 있고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A02)

○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 및 사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서들이 콘텐츠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타 도서관을 방문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을 견학하거나 워크숍과 같이,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사서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장에서는 콘텐츠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다.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공유해주는 사이트가 있고, 매뉴얼이 책자로 오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매뉴얼이나 책자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우수 콘텐츠를 직접 견학하거나 워크숍 같은 형태로 접해 보고 아이디어를 짤 수 있도록 사서의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서비스 대상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는 사서인데, 다른 도서관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벤치마킹하거나 견학하는 것과 같은 지원은 현재 없는 실정이다.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도록 리스트 업 해주거나 다른 도서관 견학과 같이 현장에서 사서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사서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현장에서는 콘텐츠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문체부에서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고 알고 있고, 매뉴얼이 책자로 오기도 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매뉴얼이나 책자를 보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 **우수 콘텐츠 같은 것을 직접 견학하거나 워크숍 같은 형태로 만나서 보고 아이디어를 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B04)

결국은 모든 프로그램이 사서에게 나오다 보니 사서를 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세미나나 포럼이나 견학과 같은 다양한 사서 연수 경로가 필요**해요. 적은 인원의 사서가 많은 프로그램을 해야되다 보니 사서들의 역량을 올리는 것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B04)

○ 치료 및 전문적 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은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정서 지원이나 언어치료와 같이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방과 후 돌봄 기관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의 아이들이 있다 보니 학교와는 다른 아이들 간의 소통 문제가 있다. 그 안에서 다문화나 가정 환경을 놓고 서로 계층을 나누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때 아동 심리를 전공한 강사가 프로그램 진행하고 아이들을 1:1 면담하면서 아이들 관계가 좋아졌던 경험을 공유하며, 정서 지원이나 언어치료와 같은 전문가를 도서관에 파견하여 도서관 내에서 활동과 함께 전문적 부분까지 도와주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 마련을 장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정서적 문제나 태도적 문제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 사서나 강사 선생님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런 아이들을 고려했을 때 **독서치료사나 심리 정서적 도움을 함께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아이들에게는 정서적 연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B03)

라. 향후 운영 계획 및 정책 요구

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지역의 특성이나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심사나 계획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다문화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중고등학생 대상의 대안학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꼭 취약계층 대상이 아니라, 도서관에는 한국인이든 다문화든 저소득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부담 없이 도서관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해서 찾아가는

도서관 교육, 독서교육과 같이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도서관을 경험시켜주고, 학교 도서관을 넘어서 공공도서관을 알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취약계층이라고 일컫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보다 사교육에 덜 노출되어 있으므로 공공도서관을 활용하기에 어찌면 가장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아이들이 부담 없이 도서관을 찾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공연이라던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 단기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연령별로 도서관 방문 코인을 만들고, 해당 코인을 지역사회에서 공연이나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보통 다문화 프로그램은 강사가 활동하기보다는 한국 선생님이 진행하고 다문화 선생님이 보조하는 형태가 더 많아요. 글로벌 도서관에서 하는 영어 스토리텔링 강사 과정처럼 **다문화 전문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B04)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아이들을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다 보니 직접 학교에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거든요. **대안학교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해보니 학생들의 참여나 관심, 만족도가 높았고**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보람이 느껴졌어요. 내년에는 관 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형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지원받아서 운영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C02)

저희 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는 꿈드림 센터 그리고 다문화센터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합니다. (#C04)

2)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욕구

○ 공간 마련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된 것은 공간 마련이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이미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전용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오래된 도서관은 컴퓨터실을 나눠서 청소년 공간을 마련해주고 공간에 대한 활용이나 꾸미는 것들을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더니 학업 목표가 있는 홈스쿨링하는 청소년이 오전에 그 공간을 이용하러 오기 시작한 곳도 있었다. 작은 공간이고 설비가 많지 않은데도 아이들은 그 공간을 활용하러 오는 것을 보면, 도서관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편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드나들고 이용하고 싶은 공간 마련에 대한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정책으로 도서관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근 도서관에는 청소년 대상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른들 간섭없이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만들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평일 오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홈스쿨링 청소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사를 넓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진하게 되기 때문에 진로 탐색의 기회를 위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공간 이용을 하러 왔다가 책에도 관심갖고 진로 탐색과도 연결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아이들이 우선 와서 자신들이 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찾아오다 보면 요구사항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A02)

저희 지역에 있는 교육도서관은 10개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마쳤어요. 아동·청소년 아이들이 머물고 싶은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문화 복합공간 리모델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하교 후에 건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도서관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 변화를 주었어요. 하교 후에 선생님이 인솔해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간다거나 함께 체험하고 간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교육문화 복합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C03)

○ 최신 시설 및 설비

공간 마련 다음으로 관심을 유도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대상자에게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데 4차 산업과 관련한 디지털 기기나 VR, AR, 유튜브 등과 같이 시대적 흐름과 대상자들의 관심 영역을 반영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장 체험이나 창작, 제작과 같은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적이다. 아이들이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면서 책에 관심을 끌게 되는 방식처럼 시대적 흐름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데 예산이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재밌어질 수 있는 포인트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공공도서관의 역할이고, 이런 측면으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좋아하고 자주 이용하도록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차 산업 관련해서 디지털 기기나 이런 것들이 언론이나 주변에서는 떠들썩하지만, 아이들이 이러한 시설을 접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거예요. 공공도서관에 이런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흥미를 느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B05)

미래세대를 위해 도서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리터러시 환경도 변하고 매체도 변하기 때문에 **매체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매체의 맥락과 매체를 활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종합적 리터러시**가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제공하기에 학교나 가정보다 도서관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A02)

○ 전문인력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도 지원되어야 한다.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방이나 소도시에 대상에 맞는 전문가나 연계된 인력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대도시 지역은 인력 수급이 원활한 편이지만 지방이나 소도시는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에 맞는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이나 소외계층은 심리 정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수반되어야 서비스의 효과가 제고될 것이다.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이 즐겁고 친숙한 공간이며, 언제든지 와서 책을 읽고 관련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이에요. 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을 해주어야 해요. (#B02)

마.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책무성

1)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다양성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해서 향후 공공도서관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선 프로그램이 지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대다수 프로그램은 1년을 운영하고

다음 해는 같은 프로그램을 다른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아이들의 성장에 반영되는 데 1년은 부족함이 있다. 다문화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하는데, 도서관 프로그램 특성상 해가 넘어가면 또다시 같은 학년을 대상으로 그 프로그램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단계와 함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대상자와 함께 성장하며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나 공연과 같이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하고,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별로 도서관에 찾아오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도서관에 와보거나 공연을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도서관에서 제공한다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1년만 하고 다시 선정하는 문제가 좀 애매한 게 1년으로는 사실 부족해요. 책이라는 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엔 어려움이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거든요. (#B03)

취약계층 아이들은 도서관에 대한 경험, 독서에 대한 경험이 적어서 이런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늘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C03)

2) 정책적 우선 고려가 필요한 대상 선정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초점 집단면접에서는 도서관을 경험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과 보호시설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이 거론되었다. 농촌 지역 아이들이 도서관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소년원, 그룹홈, 양육 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므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진행된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 경험이 어려운 **농촌 지역의 어린이들이 우선적 고려** 되어야 하고, 농촌 지역 아이들의 도서관 접근과 이용을 돕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B03)

소년원, 그룹홈, 고아원 등과 같은 보호시설이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사례가 없고, 전반적으로 보호시설의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보호시설 대상 프로그램 사례를 도서관대회, 세미나 등을 통해 공유하고 배포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B02)

한편,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지만,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활동함으로써 낙인이나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포괄적인 프로그램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선 걸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말하기 조심스러운 대상인 취약계층 어린이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이들이 일반 학생들과 어울려 함께 참여함으로써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들이 낙인되지 않도록 그들만 따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누구나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주제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공공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정책은 취약계층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B01)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사업이지만,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을 **취약계층만으로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대상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이지만, 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C04)

바.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

1) 단기 핵심과제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기 위해 가장 관심을 두고 추진해야 할 중요 정책으로 **언론홍보나 캠페인 진행**을 언급하였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 과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와 같이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알려주어야 하고, 나아가 관계기관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수 있도록 언론을 통한 홍보나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중앙 차원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광고 방식으로 홍보하고, 취약 계층을 떠나 모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계기관에 도서관이 협력을 위한 필수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아동센터나 관련 기관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면 도서관이 기관들을 찾아다니기에 앞서, 기관이 먼저 도서관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사회적 변화의 속도로 볼 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적어지고 있으나, 반대로 도서관은 자료도 많고 서비스 인력도 있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만나는 장소가 되는 장점이 있다. 요즘 언론에서 진행 중인 ‘노답 캠페인’ 과 같이 도서관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 도서관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캠페인을 국가 차원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A02)

도서관은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한다면 도서관 이용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언론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A01)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 학교 도서관에서 이미 다양한 사회적 계층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소외계층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체류하고 생활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가야 하는 장소가 있다면, 이러한 곳에 **정책적 홍보나 캠페인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A03)

다른 시급한 정책으로 **사서 대상 교육**을 들었다.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사서들이 다양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서 교육에 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도서관 사서가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장애아동이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보 제공 혹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양한 취약계층과 같은 서비스 대상과 관련한 사서 교육이 필요해요. 대상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모집하고, 진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거든요. 사서들이 프로그램 대상에 대한 이해와 **대상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사서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B02)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의 제공**이다.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비롯해 연계될 수 있는 여러 기관 및 강사를 쉽게 찾아보고 ‘우수사례’나 ‘노하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루트가 만들어져야 한다. 온라인 전국 도서관지도처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각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모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개별 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각 기관과 연계하려면 직접 찾아서 접촉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관이나 강사들을 찾기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지역 내에 연계할 수 있는 기관, 분야별 전문가나 강사들을 찾아서 섭외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재 협업 기관 공모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기관 연계가 쉽지 않으므로 협업 기관과 도서관을 각각 공모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 매칭해주는 시스템도 정책적으로 지원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정부에서 일반 아이들과 취약계층 아이들이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모델이나 프로그램의 방향, 커리큘럼 샘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면** 좋겠습니다. (#C02)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우수사례를 배포하고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B02)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대상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보니 기존 다른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검색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보거나 기본적인 자문을 하고 관련된 인력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A01)

2)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과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으로 **서비스의 중복 문제해결**을 고려해야 한다. 프로그램 대상자 특성상 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하거나 대상자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 모집단계부터 도서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의 다문화센터나 어린이복지 기관을 찾아가서 서비스를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할 때 반가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을 어디로 해야 하는지도 모호하여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나 여성가족부나 문제로까지 이어지니 정부 위에서부터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사업 추진의 주관을 나누는 부분에서부터 ‘예산 중복이라거나 타 기관과의 중복 사업’이 문제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중앙 센터 역할’ 혹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 설치가 거론되기도 하였다.

정책적으로 취약계층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문제는 취약계층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정말 많은데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예산 중복이라거나 타 기관 전문 사업인데 **중복 사업이라거나 이런 것으로 문제** 삼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C02)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양성평등진흥원처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센터 역할이** 필요합니다. (#C04)

서비스나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정책적 규제나 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제약으로 대상자들에게 책이나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어렵다. 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기가 수월한데,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의 경우 선거법이나 기타 다양한 제약이 있어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도서 기증 형태로 줄 수 있는 것은 공모사업일 때 훨씬 수월하므로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등 변화하는 정책으로 어린이·청소년에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규제 완화도 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이들에게 책을 지원해주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는 선거법이나 그런 문제로 책을 선물할 수가 없어요. 지원 사업으로 책이 나갈 때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센터에서는 책을 받으면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하는데 이런 지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B03)

전산화, 정보화되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보호자 동의 등이 필요해지면서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데 점점 더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어요. 점점 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정책적으로 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A05)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도서관 운영 실태 및 이용자 요구 조사**를 시행하고 발표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해하고,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을 이용해본 아이들은 분명 요구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발표해주는 것이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 시 즉각적인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 이용자와 관련한 법령이나 정책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도서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도서관에 전달되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역 내 취약계층이나 대상, 환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연구 등을 통해 대상별 요구와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B02)

대상에 관한 법령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변동사항을 도서관에도 알려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에 음성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법령에 추가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거든요. 도서관과 연관된 법령이 변하면 이런 사항을 홍보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A05)

향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리가 아닌 통합 정책의 방향**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과 일반인 구분 없이 모든 대상을 포함하고, 취약계층이 다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정 계층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생기는 낙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대상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을 일정 인원 정해서 우선 선발하고 일반 대상자들과 함께 진행하는 등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와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 문제를 우선 고려하여 현장에서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른 도서관에 있을 때 다문화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족과 제주도로 이주해 오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가족 캠프를 신청했습니다. 선정되기는 했는데 다문화가정 위주의 프로그램을 했으면 한다고 수정하라고 요청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다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수정하긴 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바뀌어야 하거든요 현장에서 바뀔어야겠지만 중앙 부처에서도 이미 그렇게 경계를 지어버리는 것은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C04)

프로그램 운영할 때 취약계층 어린이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도 함께 존재해요 저희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배려로 강좌 인원의 30%는 취약계층을 우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 후 먼저 신청을 받았어요 출석부에는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명단을 섞어서 진행했습니다. (#B01)

사. 소결 및 시사점

이상에서 전국의 도서관장 및 사서 총 14명을 선별하여 실시한 초점집단면접(FGI)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한 정책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며 소결에 대신하고자 한다.

○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언론홍보 및 공익광고의 필요성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들은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홍보나 공익광고, 캠페인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 도서관의 기능과 역량에 관한 언론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된다는 취지다.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광고 방식으로 홍보하고, 취약계층을 떠나 모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계기관에 도서관이 협력을 위한 필수기관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사회적 변화의 속도로 볼 때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적어지고 있으나, 반대로 도서관은 자료도 많고 서비스 인력도 있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만나

장소가 되는 장점이 있다. 요즘 언론에서 진행 중인 ‘노담 캠페인’과 같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홍보나 캠페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및 최신 시설 정비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자들이 도서관에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상자를 모집하고 연계하는 것보다 도서관에 공간을 마련하고, 오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도서관에 오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며, 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최신 설비(태블릿 PC, 3D 프린터 등)를 갖추고 첨단기술 체험(VR/AR, 메이커스페이스 등)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환경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도서관에는 청소년 대상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른들 간섭없이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만들기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평일 오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홈스쿨링 청소년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이용한다. 해당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사를 넓히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진하게 되므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사서 전문성 향상 요구

도서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서들이 콘텐츠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우수 콘텐츠 개발하고,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발간·보급하는 방안과 도서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프로그램과 서비스 내용, 연계 기관, 강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실무자들은 콘텐츠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 도서관을 방문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을 견학하거나 워크숍과 같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서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수 콘텐츠를 직접 견학하거나 워크숍 같은 형태로 접해 보고 아이디어를 짤 수

있도록 사서에게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서비스 대상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는 사서이므로 사서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 전문인력 부족과 기관 연계의 어려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모 신청, 강사 섭외, 기관 연계 등 모든 과정이 사서의 업무 영역이며, 특히 취약계층 서비스는 대상에 대한 이해와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고려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관계기관과 협조가 안 되면 진행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경우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고려해야 하므로 재능기부자나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대상자 섭외를 위해서는 기관과 연계해야 하는데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과 낙인 문제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서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대상으로 꼽히는 데,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대상자를 모집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업무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사업 내용을 전환하는 경우도 현장에서는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을 구상하다가 대상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흔하다. 한편, 취약계층 서비스는 대상자들의 낙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특정 계층을 모집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낙인 문제는 대상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 한부모 가정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지원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제 6 장

논의 및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논의
2. 정책 제언

1. 연구 결과 논의⁸⁾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과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과 정부의 정책 현황을 고찰하였으며, 국내외 도서관 정책 및 프로그램 우수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 적용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도서관 사서 대상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도서관 운영 실태와 정책지원 요구에 관한 실증적 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절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함으로써 결론에서 제안할 도서관 정책과제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부 정책 현황의 시사점

1) 지식정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지원의 필요성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중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은 최근 지속적인 증가 추세라는 점에 주목하여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2012년 다문화 학생 수는 46,954명에서 2022년 168,645명으로 최근 10년간 거의 3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전체 초·중등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중도 2012년 0.69%에서 2022년 3.17%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다(<표 3-1-2> 참조, <그림 3-1-2> 참조). 특히, 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큰 중도입국청소년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는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에게 특화된 도서관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과 소년원에 감금된 청소년 등 위기 상황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들의 경우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정보의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집단이다. 최근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이외에,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일반 청소년의 자발적인 학업 중단이 늘어나는 추세로 향후 학업 중단 아동·청소년

8) 6장은 전경숙 평택대학교 교수가 집필함

수와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4세~19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소년부 판사로부터 보호처분(7호~10호)을 받고, 소년의료보호시설(7호), 소년원(8호~10호)에서 강제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은 2022년 기준 5,689명으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표 3-1-16> 참조), 저소득층과 다문화가정, 장애 어린이·청소년 등의 취약 집단과 달리, 범죄 소년과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사업은 거의 전무하여,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과 도서관 정책의 연계협력 가능성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7개 범주(장애, 농촌,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 보호·교정시설, 학교 밖 청소년)의 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서관 정책은 「도서관법 시행령」에 명시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장애,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보호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등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매우 미흡하였다. 향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보호 청소년, 한부모·조손가정 자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과 연계하여 도서관 서비스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사업 및 프로그램과 연계·협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표 3-2-1> 참조). 나아가 서비스 대상에 맞게 도서관 프로그램을 접목한다면,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학습공간 제공, 교육프로그램 및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소년원생은 인성교육 및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독서지도 및 문화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접목할 수 있을 것이고,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한부모·조손가정 자녀는 학습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 캠프 등 자녀 양육지원 프로그램 등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콘텐츠를 활용하여 연계·협력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나. 국내외 우수사례의 정책시사점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 및 미국과 캐나다의 장애 유형별 우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도출한 정책시사점은 ① 취약계층의 법적 범위 확대, ② 취약계층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각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③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구축, ④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모사업 활성화, ⑤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모색 등으로 요약된다.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인 정보 소외계층의 범위를 한부모가정, 조손 가정, 보호시설 등을 포함하여 재설정하고 각 계층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토대로 각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취약계층 내에서도 각 연령별로 필요한 정보요구와 어려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경우, 이들이 겪고 있는 정보획득 및 활용과 같은 정보 문제와 학업에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한다. 한편, 미국의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캐나다의 토론토 공공도서관,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사례처럼 연령별(취학전 아동, 초등, 청소년 등)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끝으로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이 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시각장애 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사업을 하는 하트하트재단, 위기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빈곤가정, 장애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홀트아동복지회, ‘찾아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부모의 수감으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없는 자녀들이 또래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등 민간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사회의 편견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 서비스 수혜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설문조사 및 FGI 결과의 정책적 함의

공공도서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고자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대상의 제한

지금까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주로 장애,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추후 한부모·조손가정, 교정시설 보호, 학교 밖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의 도서관에서 저소득층(62.5%)과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50.5%)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한부모·조손가정(18.6%), 학교 밖(14.7%), 보호시설(12.4%)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으며(<표 5-1-22> 참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 도서관의 경우 월등히 더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앞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기존 서비스 운영과 유사하게 장애(22.1%), 저소득층(19.9%),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16.4%)을 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이 16.4%~22.1%로 나타나고 있으나, 보호시설(1.9%), 한부모·조손 가정(3.8%), 학교 밖(4.3%)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계획은 매우 낮은 응답 비율을 보여, 아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표 5-1-29> 참조). 한편, 도서관의 여건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30.2%로 나타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도서관 운영 관련 제약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초점집단면접(FGI)에서도 정책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선정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소년원, 그룹홈, 양육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의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부재하므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2) 도서관 내 최신 장비,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 부족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알아보는 문항에서, 장서(3.7점), 서비스 및 프로그램(3.5점), 공간(3.1점) 대비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2.6점)와 최신 장비(PC, 3D 프린터기 등)의 충분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낮아 최신 장비 등 물적 인프라 구축과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했다(〈표 5-1-4〉 참조). 특히 비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동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이 요구된다. 초점집단면접(FGI)에서도 서비스 이용자들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도서관을 찾아오도록 최신 설비(태블릿 PC, 3D 프린터 등)를 갖추고 첨단기술 체험(VR/AR, 메이커스페이스 등)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환경을 정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세심하게 신경 쓰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으므로 재능기부자나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3) 청소년 전용 공간 및 휴식·놀이 공간 확보 필요성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나 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4.2점)과 휴식/놀이공간(4.1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표 5-1-8〉 참조). 응답 결과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서구나 전용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비수도권 보다 높았다(〈표 5-1-9〉 참조). 어린이·청소년의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전용 서가와 열람 공간은 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과 휴식·놀이 공간이 확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초점집단면접(FGI)에서도 최근 도서관에는 어른들 간섭없이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마련되어 평일 오전에 학교 밖 청소년이나 홈스쿨링 청소년들이 학습공간으로 활용하며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갖고 있으므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4) 프로그램 콘텐츠와 사서 역량개발에 대한 요구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전문 인력(사서) 충원’ (4.2점)과 ‘담당자(사서) 전문교육’ (4.1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1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다(<표 5-1-32> 참조).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 평균 4.0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은, 독서·독후 활동(4.1점),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독서 상담·치료(4.0점) 등 주로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프로그램이었다(<표 5-1-36> 참조). 초점집단면접(FGI)에서도 도서관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서들이 콘텐츠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는데, 서비스 대상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직접 실행하는 주체는 사서이므로 사서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5) 공간 구성, 서비스 기획 및 운영에 이용 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 참여 미흡

정부 부처의 아동·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의 대상 및 서비스 이용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반면, 본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어린이·청소년들이 서비스 운영(28.1%), 서비스 기획(19.7%) 또는 공간 구성(10.5%)에 참여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높지 않았다(<표 5-1-12> 참조). 참여가 전혀 없는 경우도 절반 가까이 되는 것(41.6%)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간 구성, 서비스 기획 및 운영 과정에 대상자인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6)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수도권/비수도권)적 특성을 정책 수립에 반영

설문조사 결과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이 수도권 혹은 비수도권인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도서관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교육, 독서, 문화 관련 프로그램 분야에 대한 응답자의 동의 정도가 평균적으로 4.0점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학습/진로 관련 체험 또는 활동이나 첨단기술 관련 서비스의 경우 평균적으로 3.5점 내외로 낮았다(<표 5-1-36> 참조). 이 결과를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대다수 항목에서 지역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교육 영역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독서 상담/독서치료, 첨단기술 영역에서 모바일 서비스(게임, 코딩), 기자재 대여 서비스(태블릿 PC 등) 등이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았다(<표 5-1-38> 참조). 이처럼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요인과 요구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7) 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언론홍보 및 공익광고 고려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언론홍보나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초점집단면접(FGI)에서 제시된 것처럼 도서관의 기능과 역량에 관한 언론홍보와 캠페인을 추진한다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진행 중인 ‘노담 캠페인’과 같이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서관 홍보나 캠페인을 국가 차원에서 시행한다면, 도서관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홍보되는 효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도서관의 위상과 서비스의 성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2. 정책 제언

가. 기본방향

지금까지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추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추진의 목표가 되는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추진을 위한 도서관법 정비 등 기반을 구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부모·조손 가족 구성원과 교정시설 수감자를 추가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저출산과 가족 해체 등 미래의 사회변화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고려할 때, 한부모·조손 가족과 수감자 자녀의 정보 소외 격차는 향후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정비와 아울러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언론홍보나 공익광고, 캠페인 등을 통해 도서관의 기능과 역량에 대한 대외적 위상을 정립하여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한다. 관련하여 도서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자와 실무자가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살펴본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어린이·청소년이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연령별 혹은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공하며, 도서관 실무자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 연계·협력 기관, 강사 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사업 및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장애,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해 오던 도서관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생 및 수감자 자녀, 중도입국청소년,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로 확대하여 각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대입 준비 등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진로 준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집단이며, 소년원생의 경우 소년원 교육 내용 중 인성교육, 생활지도 영역에서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등 각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를 계획하여 운영한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본국에서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이나 취업으로 한국에 편입된 중도

입국청소년의 경우 한국 사회적응에 더 어려움이 많은 정책 사각지대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체험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해체의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한부모·조손 가정 자녀는 정서·학습지원의 요구가 큰 집단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무료 책 배달 서비스, 독서 프로그램, 학습코칭,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계획한다.

셋째, 물적·인적 인프라를 확충한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도서관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찾아오도록 발달 특성과 눈높이를 고려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며, 최신 설비(태블릿 PC, 3D 프린터 등)를 갖추고 첨단기술 체험(VR/AR, 메이커스페이스 등)이 가능하도록 도서관 환경을 정비한다. 물적 인프라 확충 외에,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 재능기부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인적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사서를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봉사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자녀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식이다. 이 외, 우수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보급과 사서 역량개발도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이다. 사서 대상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 결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우수 콘텐츠 개발,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발간·보급,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사서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역량개발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했다.

넷째, 부처·기관·도서관의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장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로 보건복지부,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협력하던 것에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기관과 연계·협력 기관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정책지원협의체’ (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또한 도서관 간의 연계·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도서관 운영 실태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대상도 이용자인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부모까지 확대한다면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나. 정책추진과제

위에서 제시한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정책목표 4개 영역에서 총 13개의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책추진 기반 구축과 연계·협력 강화 영역에서는 아직 정책 기반과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과제 위주로 제안하였으며, 그 외 영역은 현재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개선·보완하거나 확대·강화하는 개편 과제와 신규 과제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표 6-1-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의 목표 및 추진과제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 과제	사업 유형 ¹⁾	추진 시기 ²⁾	우선 순위 ³⁾	추진체계
정책추진 기반 구축	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 정비	신규	중기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청
	2) 도서관 정책홍보 강화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개편	단기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청
	3) 도서관 정보 플랫폼 구축	신규	단기	★★★	국어청/지역 대표도서관
대상별 맞춤형 사업/ 프로그램 확대	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개편	단기	★★★	국어청/교육청/ 꿈드림센터
	5) 소년원생 및 수감자 자녀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신규	단기	★★★	국어청/소년원/ 법무부
	6)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문화 감수성 함양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개편	단기	★★★	지역도서관/다문 화가족지원센터/ 레인보우스쿨
	7) 한부모·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자녀 대상 독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신규	중기	★★	지역도서관/건강 가정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8) 어린이·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전용 공간 및 창작·체험 공간 확보	개편	단기	★★	국어청/지역 대표도서관
	9) 지역 인적 자원의 재능기부 활용체계 구축	신규	장기	★★	국어청/지역 대표도서관
	10)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과 사서 역량개발	개편	중기	★	국어청/지역 대표도서관
연계·협력 강화	11) 관련 부처/기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신규	중기	★★	국어청/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한 국건강진흥진흥원/ 이동권리보장원
	12) 민간단체와 연계·협력 사업 발굴추진	신규	단기	★★	국어청/민간기관
	13) 도서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신규	중기	★	국어청/지역 대표도서관

주 1: 개편(현행 추진 사업 중 개선·보완 및 확대·강화 사업), 신규(신규 추진 사업)

주 2: 단기(1~2년 내 시행), 중기(2~3년 내 시행), 장기(4~5년 내 시행)

주 3: ★ 보통, ★★ 중요, ★★★ 최우선 추진을 의미함

〈표 6-1-2〉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과제의 세부 사업내용

정책목표 (추진전략)	추진 과제	과제별 세부 사업내용	사업 유형
정책추진 기반 구축	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 정비	-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개정 -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법적 범위 확대 - 한부모·조손가족 구성원과 교정시설 수감자 추가	신규
	2) 도서관 정책홍보 강화 및 홍보방식의 다양화	- 언론홍보 및 공공광고 캠페인을 통한 도서관 인식 제고 - 홈페이지 이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개편
	3) 도서관 정보 플랫폼 구축	- 프로그램과 서비스, 연계 기관, 강사 등에 관한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운영, - 현행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서비스 유형별 → 연령별·대상별)	신규
대상별 맞춤형 사업/ 프로그램 확대	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 예술,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등	개편
	5) 소년원생 및 수감자 자녀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소년원생 인성교육, 특별활동, 독서, 영화감상 등 생활지도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 수감자 부모와 자녀 간 영상통화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6)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문화감수성 함양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대상 동화, 동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 어린이·청소년 대상 음악, 미술, 음식 문화 등을 활용한 문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개편
	7) 한부모·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자녀 대상 독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 독서프로그램, 무료 책 배달 서비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 대학생 혹은 예비교사 1:1 매칭을 통한 학습코칭 및 독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신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8) 어린이·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전용 공간 및 창작·체험 공간 확보	- 청소년 전용 공간, 도서관 코미, 외부 정원이나 주차장을 활용한 청소년 놀이·휴식·여가 활동 공간 조성 -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 페이스) 마련 등	개편
	9) 지역 인적 자원의 재능기부 활용체계 구축	-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사서의 재능기부를 독서프로그램에 활용 - 퇴직 교사, 상담사, 대학생, 특정 직업 종사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활용	신규
	10)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과 사서 역량개발	-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우수 콘텐츠 개발,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발간·보급 -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사서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역량개발	개편
연계·협력 강화	11) 관련 부처/기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문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연계·협력 강화 -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정책지원협의체’ (가칭) 구성·운영	신규
	12) 민간단체와 연계·협력 사업 발굴추진	-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도서관 서비스 연계 -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 민간단체에 도서관 연계 서비스 공모사업 기회 확대	신규
	13) 도서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 주기적인 도서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요구조사 - 시계열 분석을 통한 변화 추이 분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	신규

1)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 정비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신규 ■ 추진 시기 : 중기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주요 내용 :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법적 범위 확대, 한부모·조손 가족 구성원과 교정시설 수감자 추가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은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이처럼 현행법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교정시설 수감자 등이 제외되어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가정의 자녀는 정보 소외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현행 1호~6호 외에 **한부모·조손 가족 구성원과 교정시설 수감자 가족 구성원을 포함**함으로써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현행(「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	개정안(「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
<p>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p>제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의 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65세 이상인 사람 7. 한부모·조손 가족의 구성원 8. 교정시설 수감자 가족의 구성원

2) 도서관 정책홍보 강화 및 홍보방식의 다변화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개편 ■ 추진 시기 : 단기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문화체육관광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주요 내용 : 언론홍보 및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한 도서관 정책홍보 및 인식 제고, 홈페이지 이외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도서관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도서관 정책에 관한 언론홍보나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도서관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 차원에서 도서관 정책과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광고 방식으로 홍보한다면 도서관의 위상과 역량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용이해지는 부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도서관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참여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 현대사회에서 학교의 기능과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있으나 도서관은 지역 곳곳에 위치하여 자료와 정보제공,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만나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요즘 언론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노담 캠페인’ 과 같이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홍보나 캠페인도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홍보의 수단과 방식에 있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홍보 효과가 막강하고, SNS를 통한 홍보와 바이럴마케팅(viral marketing)이 대세인 시대이다. 도서관도 홈페이지 이외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와 이벤트 개최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대상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 홍보방식도 어린이·청소년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뭉(모방을 통해 습득하는 문화 요소)’ 이나 ‘짤(인터넷상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한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 홍보도우미나 홍보동아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청소년을 겨냥한 표현과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3) 도서관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신규 ■ 추진 시기 : 단기
★★★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 ■ 주요 내용 : 프로그램과 서비스, 연계 기관, 강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운영, 현행 도서관 홈페이지 개선(서비스 유형별 → 연령별·대상별)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우수사례, 연계·협력 기관, 강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연계·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강사 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우수사례나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지역 도서관과 이용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개별 도서관이 지역아동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각 기관과 연계하려면 직접 찾아서 접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기관이나 강사들을 찾기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면 지역 내에 연계할 수 있는 기관, 분야별 전문가나 강사들을 쉽게 찾아서 섭외할 수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어린이·청소년이 쉽게 접근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캐나다의 토론토 공공도서관, 밴쿠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를 ‘연령별 혹은 대상별(취학 전 아동, 초등, 청소년, 성인, 노인, 이민자 등)’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이 무료로 도서관의 스튜디오 및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멘토링을 통해 학교 숙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어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서관 서비스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는 전시, 책바다, 문화행사, 상호대차 등 ‘서비스 유형별’로 제시되어 있어 연령별 맞춤 서비스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기반의 홈페이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육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개편 ■ 추진 시기 : 단기
★★★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꿈드림 센터/교육청 ■ 주요 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 예술,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교육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도권 교육을 중단하고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정보접근의 취약성이 큰 집단이며, 자발적으로 학교를 떠나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도서관 정책의 수요가 큰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3년 현재 전국에 22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를 설치·운영하며(표 3-2-6) 참조),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 체험, 자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 민·관 협업 지원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통합 문화이용권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그림 3-2-1) 참조).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은 검정고시 준비, 대입 준비 등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진로 준비 지원의 욕구가 높은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 산하 꿈드림 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및 진로 준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일부 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학습 멘토링, 직업체험 프로그램, 본 연구의 FGI 사례에서 분석되었던 독서프로그램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학업 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바, 경기도교육청이 수립한 ‘2023년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계획(안)’에는 초·중·고등학교가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적극 발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학교가 학업중단 숙려제 매일 프로그램 운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도서관 서비스와 연계 가능하다.

5) 소년원생 및 수감자 자녀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신규 ■ 추진 시기 : 단기
★★★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소년원/법무부 교정국 ■ 주요 내용 : 소년원생 인성교육, 특별활동, 독서, 영화감상 등 생활지도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수감자 부모와 자녀 간 영상통화와 스토리텔링 프로그램 운영 등

소년원은 수용된 10~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생활지도와 함께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특별활동 등을 실시하는 곳으로 사법적 기능보다는 교육적 기능을 중시한다. 2022년 12월 현재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에 수용된 1,520명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표 3-1-16> 참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의 수(2022년 현재 4,169명)까지 포함하면 서비스 대상은 훨씬 많다.

소년원 교육내용 중 인성교육, 특별활동, 생활지도 영역을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자치활동, 행사, 계발활동, 적응 활동으로 구성되는 특별활동과 원생들의 정서 순화를 위한 독서, 영화감상, 레크리에이션 등 생활지도 영역을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수감 청소년에게 도서를 추천하고 매주 도서관에 방문하여 교육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사례처럼 **소년원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프로그램과 함께 소년원생이 도서관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소년원에서는 민관 연계를 확대하여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소년원 입소 시부터 퇴소 이후까지 민간 자원봉사자와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소년원 학생 멘토링 시스템’이다. 학습 멘토링을 비롯하여 다양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소년원생 멘토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감자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은 미국 브루클린 공공도서관 사례를 참고하여 **영상통화와 스토리텔링을 통해 수감된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의 책이나 장난감, 원활한 소통을 위한 인력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

6) 다문화가정 자녀 대상 문화감수성 함양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개편 ■ 추진 시기 : 단기
★★★ (최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지역 공공도서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레인보우스쿨 ■ 주요 내용 : 영유아 대상 동화, 동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대상 음악, 미술, 음식 문화 등을 활용한 문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문화 체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국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세 미만 학령기 아동·청소년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표 3-1-2> 참조).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지원과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이중언어 교육을 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중언어 가족 환경조성 사업에서는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동요, 동화 등 교구 교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이러한 **이중언어 교육프로그램**에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한다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다양한 문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국 동화책 콘텐츠를 활용하여** 동화책을 소개하고 라디오 방송을 위한 준비, 대본 리딩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 접근과 한국문화 적응을 돕는다. **음악을 통해 각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세계의 미술과 관련한 다양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함으로써** 세계 문화와 미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 **음식 문화프로그램을 통한 타 문화 이해 및 상호존중** 등 도서관에서 다양한 문화감수성 함양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 볼 수 있다.

본국에서 성장하다 부모의 재혼 혹은 취업 등의 이유로 한국 사회에 편입된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도서관 서비스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레인보우스쿨 운영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운영한다면 프로그램 내용이 풍부해져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7) 한부모·조손 가족 등 취약계층 자녀 대상 독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신규 ■ 추진 시기 : 중기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지역 공공도서관/건강가정지원센터 ■ 주요 내용 :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 대상 독서프로그램, 무료 책 배달 서비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독후활동 프로그램, 대학생 혹은 예비교사 1:1 매칭을 통한 학습코칭 및 독서 코칭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한부모, 조손,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을 가족 지원 서비스 우선 대상으로 명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교육, 상담,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학습,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 가족을 핵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 서비스와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하여,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독서프로그램**과 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부모 중 한 사람의 부재로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모, 부자 가정, 청소년 한부모, 미혼모·부 등)과 양쪽 부모 모두의 부재로 조부모에게 맡겨진 조손 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책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매월 제공하는 책 꾸러미에 예를 들어 도서 10권(부모 1권, 자녀 9권)과 만들기 키트를 배송하여 원하는 책을 도서관에 신청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취약계층 자녀의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고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여기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가미된다면** 서비스의 효과는 배가될 것이다. 도서 대출 서비스 외에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와 지역의 **대학생 혹은 예비교사를 1:1로 매칭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코칭 혹은 독서코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 자녀의 지식정보 격차를 줄이는 효과 이외에 학습코칭과 독서 코칭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는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8) 어린이·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전용 공간 및 창작·체험 공간 확보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개편 ■ 추진 시기 : 단기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지역 대표도서관 ■ 주요 내용 : 청소년 전용 공간, 도서관 로비, 외부 정원이나 주차장을 활용한 청소년 놀이·휴식·여가 활동 공간 조성,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 페이스) 마련 등

설문조사 결과,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 페이스)을 갖춘 도서관(23.1%)은 소수에 불과하고(<표 5-1-6>), 어린이·청소년 서가나 전용 공간(4.2점), 휴식/놀이 공간(4.1점)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았던 점(<표 5-1-7>)을 반영한 정책 제언이다. 또래와 어울려 문화 활동과 담소를 즐기면서도, 독립된 공간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유튜브와 게임 등 혼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도서관 내에 청소년 전용 공간 및 창작·체험 공간(메이커스 페이스) 공간을 마련한다. 신설도서관이나 리모델링을 하는 도서관은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이 비교적 쉽지만, 이미 건립된 공공도서관에서 별도의 전용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이 경우 이용 정도가 미미한 공간의 용도를 전환하거나 기존 공간에 구획을 나누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용되지 않는 일부 공간을 용도 변경하는 방법, 자유 열람실이 있는 기존도서관의 경우 자유 열람실을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용도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도서관 내 일부 공간의 벽면을 활용하여 청소년을 위한 북 큐레이션과 전시 서비스를 하거나 서가 중 일부를 청소년 전용 서가로 마련하고 청소년 관심 분야의 도서만 별도로 배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도서관 로비를 청소년의 휴식과 놀이공간으로 마련, 코너 공간을 셀프 사진 촬영 공간으로 조성, 도서관의 외부 정원이나 주차장을 청소년 공연이나 플리마켓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청소년들끼리 통하는 특정 공간이나 장소에 대한 애착이 강한 청소년기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에 마련된다면 청소년들이 자주 찾아오는 생활공간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도서관 내 청소년 전용 공간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학습공간인 동시에 문화 체험과 취미·여가 활동 공간, 진로 체험 및 준비를 위한 공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생활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 될 것이다.

9) 지역 인적 자원의 재능기부 활용체계 구축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신규 ■ 추진 시기 : 장기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지역 대표도서관 ■ 주요 내용 :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사서의 재능기부를 독서프로그램에 활용, 퇴직 교사, 상담사, 대학생, 특정 직업 종사 전문가 인력풀 확보 및 활용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도서관에서 재능기부 인력풀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평균 2.7점)이나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충분성(평균 2.6점)은 동의 정도가 보통 이하로 낮았고,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표 5-1-4 참조). 인력 활용의 방식은 다양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FGI 사례에서 분석되었듯이, 도서관에서 독서지도 강사 양성과정과 봉사활동 과정을 함께 진행하여 전문화된 독서지도 강사 인프라를 확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 인프라도 확보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사서 자격증을 보유한 퇴직 사서를 도서관 독서프로그램의 봉사 인력으로 활용**하여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유능한 인적 자원이 되도록 한다.

특히,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는 각각의 대상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도서관 인력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인력풀로 구성하여 관리하며, 필요 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과 1:1로 매칭하거나, 도서관 프로그램에 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업 중단, 학교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위해서는 상담이나 심리 전문가를, 교원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나 퇴직 교사는 전공을 살려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코칭이나 멘토 역할을 하는 인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나 전문가는 직업 체험과 진로 교육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도서관이 지역 인적 자원의 재능기부를 통해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 자녀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10)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과 사서 역량개발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개편 ■ 추진 시기 : 중기
★ (보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지역 대표도서관 ■ 주요 내용: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대상 우수 콘텐츠 개발,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발간·보급,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한 직접 체험의 기회 제공을 통해 사서의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역량개발

설문조사 결과,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 필요성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1점)과 사서 전문교육(4.1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5-1-32> 참조). 이와 같은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우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국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중 **우수프로그램사례집을 발간하여 보급**함으로써 현장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성과와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 개발 및 우수프로그램 사례집 발간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총괄하여 지역 대표도서관 중심으로 추진한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이나 진로지도, 그리고 창작·체험 활동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현장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표 5-1-16)을 콘텐츠 개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발·보급된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는 **워크숍이나 연수를 통해 공유하여 사서들이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우수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보급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서들이 직접 콘텐츠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서관을 견학하거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연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도서관 현장에서 실무를 하게 되면 보급된 매뉴얼이나 책자를 찾아보는 것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우수 콘텐츠를 워크숍이나 연수 형태로 접해 보고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사서에게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이라는 서비스 대상에 대한 집중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구성하고 실행하는 사서의 역량도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사서의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11) 관련 부처/기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우선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유형 : 신규 ■ 추진 시기 : 중기
★★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아동권리보장원 ■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연계·협력 강화,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정책지원협의체' (가칭) 구성·운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사업에서 제안한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한부모·조손 가족 자녀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및 각 부처의 산하기관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및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협력을 통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증진할 수 있다. 따라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정책지원협의체’ (가칭)를 구성하여 협의체 회의를 정례화하고,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신규 사업개발, 연간 사업 계획 심의,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특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한다.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장을 비롯하여 지역대표도서관 관장,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장과 다문화가족센터장 등으로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아동정책기본계획 등 정부의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에서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점차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으나 공간 구성(10.5%)이나 서비스 기획 및 운영과정(19.7%)에서 정작 정책 대상인 어린이·청소년의 참여는 소수(<표 5-1-12>)에 불과한 상황을 반영하여 어린이·청소년 대표를 1인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권리보장원과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정책의 주무 부처로 현재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프로그램과 가장 활발하게 연계·협력하고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비롯하여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복지시설(아동양육

시설과 아동 그룹홈) 운영을 주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향후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 그룹홈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시설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대단위 집단 아동으로 양육시설 내 문화·여가 활동 프로그램과 도서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강사 파견을 통해 악기,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하여 입양, 아동학대,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권리와 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아동권리보장원장과 각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장을 동 협의체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민간단체와 연계협력 사업 발굴추진

우선순위	■ 사업 유형 : 신규 ■ 추진 시기 : 단기
★★ (중요)	■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민간기관 · 단체 ■ 주요 내용 :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 도서관 서비스 연계,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민간단체에 도서관 연계 서비스 공모사업 기회 확대

민간기관이 진행하는 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이 도서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앞서 민간단체의 사업 및 서비스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트하트재단은 시각장애 학교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도서관 모듈을 구성하고 도서관리시스템,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아동·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장애인, 지역사회와 다문화가정 등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위기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빈곤가정, 장애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및 정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비영리단체인 아이들과 미래재단은 KB국민 카드의 후원을 받아 농산어촌 지역 소재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은 아동복지 영역에서도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자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해 또래 공동체 활동으로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도서관 서비스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독서치료사가 **도서관의 장서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설 청소년의 자립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도서관의 진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보리터러시 교육, 전문가 연결, 멘토링 사업** 등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수감자 자녀를 위한 민간 서비스도 **문화 향유의 공간인 도서관을 활용하여 수감자 자녀로 이루어진 독서동아리, 전문가 초빙을 통한 독서교육, 멘토링 서비스, 도서관 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나아가 민간기관이나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지역의 도서관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공모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3) 도서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요구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우선순위	<div>■ 사업 유형 : 신규</div> <div>■ 추진 시기 : 중기</div>
★ (보통)	<div>■ 추진체계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지역대표도서관</div> <div>■ 주요 내용 : 주기적인 도서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요구조사, 시계열 분석을 통한 변화 추이 분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div>

공공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도서관 운영실태 및 이용자 요구조사**를 시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도서관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얼마나 알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지, 만족도는 어떠한지, 어떤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조사 대상도 이용자인 어린이·청소년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도서관 사서와 이용자의 부모까지 확대된다면 정책 수립에 유용한 기초가 될 수 있다. 조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조사표본이 필요하므로 설문조사

설계와 진행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기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예산도 확보되어야 한다.

이처럼 주기적인 실태조사 시행에 있어서는 **조사 대상과 범위, 예산, 조사 주기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사 주기의 경우, 어린이·청소년, 사서, 부모를 대상으로 한 해 모두 조사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매년 한 대상을 조사하여 각각의 대상을 3년 주기로 조사(1차 년도: 어린이·청소년, 2차 년도: 사서, 3차 년도: 부모, 4차 년도: 어린이·청소년 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조사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총괄하되 지역의 대표도서관이 주관하여 응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용자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 파악과 요구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도서관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운영에 매우 유용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주기적인 실태조사 결과 데이터가 축적되면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응답의 변화 추이 분석도 가능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강정아·노영희(2018). 어린이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유형별 현황 및 운영 실태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pp. 99-124.
- 강지혜·배경재(2020). 지역기반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수요 분석을 통한 도서관 포용성 강화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 51(2), pp. 295-318.
- 경기도교육청(2023). 2023학년도 학업 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 계획(안). 학생 생활교육과.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s://www.libsta.go.kr/>, 2023.
- 곽동철·윤정옥·심경·김정호(201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확대 전략 개발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 김민화·남명자·고태순·정지나(2010).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 사회성, 자아개념 발달과 가정환경에 미치는 효과, 「어린이 문학 교육 연구」, 11(1), pp. 67-84.
- 김경년(2010). 한부모 가족 자녀의 인터넷과 TV 이용이 학업성취와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0(4), pp. 27-54.
- 김종성(2008).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의 기본 원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469-492.
- 김종성·엄미진(2010). 공공도서관 청소년 프로그램의 유형별 특성과발전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2), pp. 39-56.
- 김지선(2021). 다문화 이용자의 도서관 불안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14(1), pp. 7-55.
- 김홍렬(2016). 도서관 통계에 나타난 정보 취약계층의 지표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pp. 193-214.
- 노금선(2015).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치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2019).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 도유미(2015). 공공도서관 어린이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기초연구, 「디지털도서관」 77, 51-69.

- 문화체육관광부(2022).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_____ (2019).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 박연이(2010).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지연(2007). 독서처리가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성격 요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법무부(2023). 2022 범죄백서.
- 법무부(2022). 2022 체류 외국인 현황.
- 법무부 보도자료 2021.5.11. 「수용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 법무부가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2017~2021). 아동복지시설 현황, 공동생활가정 현황
- 보건복지부(2018~2022). 장애인등록현황.
- 보건복지부(2022). 2022년도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2022). 2022 아동분야 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2023) a.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 b.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 c. 2023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2023) d. 2023 아동 분야 사업안내(2권).
- 서울도서관(2021).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 내 삶을 바꾸는 지식문화도시, 서울. 도서관 정책 자료
- 선애순권순화(2010). 그림 동화책 읽어주기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pp. 255-272.
- 신명식(2022).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심미애(2011). 다문화가정 학생의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인자·노영희·장로사(2018). 저소득계층의 정보 불평등 해소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관련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4), pp. 113-138.
- 양수연(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모형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여성가족부(2017~2021).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 여성가족부(2022).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23). 2023 가족 사업안내 1권. 2권.

- 여성가족부(2023). 202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안내
- 여성가족부(2022). 2022 청소년 사업안내 2권.
- 유종호(2016).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별(2021). 지니계수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정보자원의 지역간 격차 분석 연구. 인천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정옥·곽동철·심경(2012). 정보 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46(4), pp. 189-206.
- 윤희원(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 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pp. 53-75.
- 이수정·이현립(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공감 능력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7(2), pp. 223-230.
- 이순영(2017). 아동복지시설의 독서프로그램 조사연구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 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63, pp. 145-176.
- 이연옥·노영주(2012).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43(1), pp. 73-98.
- 이지연·안준범·오혜영·서혜린(2018). 공공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서비스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5(3), pp. 189-214.
- 이진화·강은영(2022). 공공도서관 청소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1), pp. 95-122.
- 임여주(2018). 공공도서관과 지역사회기관의 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pp. 299-324.
- 임여주·정연경(2014). 공공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영역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 정보학회지」 48(2), 89-107.
- 임진경(2012).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가 다문화가정 어린이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덕현(2012).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 서비스 강화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3), pp. 193-210.
- 장윤금(2010). 공공어린이도서관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1), 199-215.

- 전민경(2022).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정미진(2012). 공공도서관 정보 소외계층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미정(2009). 독서 활동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8(3), pp. 213-229.
- 조효숙이진숙(2008).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우울·자아존중감·정서 조절 능력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2(3), pp. 105-123.
- 차미경·송경진(2010). 공공도서관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1), pp. 149-160.
- 최유경(2010).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적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22). 교육통계서비스
- 한운옥·조미아·임성관·고정원(2016). 컴퓨터청소년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한운옥·조미아·김수경(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pp. 135-160.
- 행정안전부(2023). 행정안전통계연보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지능정보화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보고서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21).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운영사례집.
- 국립장애인도서관(2020).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
- 국립장애인도서관(2021).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
- 국립장애인도서관(2022). 공공도서관 장애인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사례집.
- 국립장애인도서관(2022). 202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연보.

국립장애인도서관(2020).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집.
 국립장애인도서관(2021).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집.
 국립장애인도서관(2022).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우수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문화체육관광부(2021).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2022).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우수사례집.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사업 우수사례집.
 서울연구원(2020). 2020년 서울 서베이 가구조사.

웹페이지

강남못골도서관

<https://library.gangnam.go.kr/mglib/lectureList.do>

국립장애인도서관

<https://www.nld.go.kr/ableFront/index.jsp>

교토시립도서관

<https://www2.kyotocitylib.jp/>

교하도서관

<https://lib.paju.go.kr/ghlib/index.do>

김천시립도서관

<http://www.gcl.go.kr>

<http://m.gcilbo.kr/news/articleView.html?idxno=62242>

김포시 장기도서관

<https://www.gimpo.go.kr>

<http://www.gpsimin.com/24039>

뉴욕공공도서관

<https://www.nypl.org/>

도쿄도립도서관

<https://www.library.metro.tokyo.lg.jp/assist/>

도서관빅데이터 분석플랫폼 Solomon

<https://solomon.data4library.kr/>

뉴필들랜드 앤 래브라도 공공도서관

<https://nlpl.ca/use-the-library/accessible-library-services.html>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

<https://www.lapl.org/studentsuccess>

<https://www.lapl.org/homeless-resources>

명춘어린이도서관

<https://m.blog.naver.com/usbukgu/223024311712>

밴쿠버공공도서관

<https://www.vpl.ca/>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드림스타트 소개.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7&PAGE=7&topTitle=%EB%93%9C%EB%A6%BC%EC%8A%A4%ED%83%80%ED%8A%B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동생활가정 운영.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80406&PAGE=6&topTitle=%EA%B3%B5%EB%8F%99%EC%83%9D%ED%99%9C%EA%B0%80%EC%A0%95%20%EC%9A%B4%EC%98%81

봉립평생학습센터 작은도서관

<http://www.gn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240#0Bnb>

부평 기적의 도서관

<https://www.bppl.or.kr/miracle/index.do>

<https://blog.naver.com/withbupyeong/222680925798>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https://www.bklynlibrary.org/learn/kids>

<https://www.bklynlibrary.org/learn/teens>

<https://www.bklynlibrary.org/mobile-services-request>

<https://www.bklynlibrary.org/outreach/justice-initiatives/telestorya>

샌프란시스코 공공도서관.

<https://sfpl.org/services/jail-and-reentry-services>

<https://hsh.sfgov.org/services/how-to-get-services/referrals-and-housing-assistance/youth-coordinated-entry-access-points>

시카고 공립도서관.

<https://www.chipublib.org/faq/services/#people-with-disabilities>

<https://www.parkridgelibrary.org/homebound-delivery/>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https://childrenandteens.nlb.gov.sg/services/programmes/kidsread/>

<https://childrenandteens.nlb.gov.sg/services/programmes/tweenkerama/>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104&cntntsId=1043>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3). 드림스타트 사업소개,

https://www.dreamstart.go.kr/contents/sub01_03_01.asp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https://iseum.or.kr/b3>

아이들과 미래재단

https://www.kidsfuture.or.kr/contribute/biz_info_detail.php?bp_seq=262

양천구립도서관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98334>

영국국립도서관

<https://www.bl.uk/events/relaxed-early-opening-for-families>

<https://www.bl.uk/events?eventsubtype=family-activity&audience=families>

<https://www.bl.uk/events?area=learning&audience=secondary%20schools%20and%20colleges>

영릉 농문화 도서관

<http://youngrong.or.kr/contents/sub0301.php>

오사카시립도서관

https://www.oml.city.osaka.lg.jp/index.php?page_id=129

은평구 은뜨락 도서관

<https://www.edlib.or.kr/info/dataroom.asp?mode=view&number=251&page=1&key=boardtitle&val=%EC%9E%A5%EC%95%A0>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홈페이지. www.kdream.or.kr

캔자스시티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https://kclibrary.org/community-services/immigrant-services/rise-volunteer>

클리블랜드 공공도서관.

<https://literacycooperative.org/about-the-literacy-cooperative/>

<https://literacycooperative.org/2gen-2022-summit/>

탄현도서관

<https://lib.paju.go.kr/thlib/index.do>

토론토 공립 도서관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

<https://www.haventoronto.ca/single-post/2018/12/10/how-torontos-libraries-help-the-homeless>

필라델피아 공립 도서관

<https://www.freelibrary.org/>

하트포드 공립 도서관

<https://www.hplct.org/>

하트하트재단

https://www.heart-heart.org/business/culture_welfare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yci.or.kr/userSite/index.asp>

한울도서관

<https://lib.paju.go.kr/hulib/index.do>

<https://www.pajumin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94>

홀트아동복지회

https://love.holt.or.kr/request_support/2021-%ec%bd%94%eb%a1%9c%eb%82%9819-%ec%9e%a5%ea%b8%b0%ed%99%94%ec%97%90-%eb%94%b0%eb%a5%b8-%ed%86%b5%ed%95%a9%ec%9c%84%ea%b8%b0%ec%a7%80%ec%9b%90%ec%82%ac%ec%97%85-%ec%9a%b0%eb%a6%ac-%ea%b0%80-4/

https://love.holt.or.kr/request_support/%ea%b3%b5%eb%8f%99%ec%83%9d%ed%99%9c%ea%b0%80%ec%a0%95%ea%b7%b8%eb%a3%b9%ed%99%88%ec%b2%ad%ec%86%8c%eb%85%84-%ec%a7%84%eb%a1%9c%ec%97%ad%eb%9f%89%ea%b0%95%ed%99%94%eb%a5%bc-%ec%9c%84%ed%95%9c/

https://love.holt.or.kr/request_support/%ec%8b%9c%ec%84%a4%ec%b2%ad%ec%86%8c%eb%85%84-%ec%9e%90%eb%a6%bd%ec%a7%80%ec%9b%90%ec%82%ac%ec%97%85-%ed%8c%8c%eb%9e%91%ec%83%88-%ea%bf%88%eb%82%a0-6%ea%b8%b0-%eb%a9%98%ed%8b%b0-%eb%aa%a8/

부록. 설문지

1

부록. 설문지**2023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현황 및
의견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의뢰를 받아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개발 기초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전국 공공도서관에 재직 중인 사서 선생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팀은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운영 실태(시설 환경 및 공간 구성, 인력,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책 욕구 등)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의 필요성에 관한 사서 인식 및 정책 욕구를 조사·분석하여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다중적 격차와 누적된 불평등 개선을 위한 관리적 차원의 도서관 정책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집계·분석되어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으로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를 위한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연구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 조사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자: 평택대학교 교수 전경숙(E-mail: ksjun@ptu.ac.kr),

공동연구원: 중앙대학교 교수 최영, 연세대학교 교수 이지연

연구보조원: 평택대학교 박사과정 최수현(E-mail: cs0227@hanmail.net)

※ 다음은 귀하께서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께서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 상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장서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장비(PC, 3D 프린터기 등)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도서관에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담당 인력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서비스 수행을 위한 예산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동아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를 위한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가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내 타 기관(학교 등)과 협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도서관에는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도서관은 향후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①	②	③	④	⑤

※ 도서관의 시설 환경 및 공간 구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2. 귀하께서 어린이·청소년 자료실 환경 및 공간에 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충분한 공간 확보 및 공간 구분 | ② 자유로운 활동 공간 (소음 허용 등) |
| ③ 열람 좌석 수 | ④ 안내문 및 사인물 |
| ⑤ 어린이·청소년에게 적합한 안전한 가구 | ⑥ 컴퓨터(인터넷) 및 자료검색 장비 |
| ⑦ 위생시설(화장실, 수유실 등)의 편리성 | |
| ⑧ 책 읽기에 적합한 환경(온도, 조명 등) | ⑨ 기타() |

- ⑤ 일관성이 결여(일회성) ⑥ 지역사회에 기대와 요구 미반영(관계성 결여)
 ⑦ 가시적 성과 집착(양적 성과 집착) ⑧ 본질을 외면한 프로그램 구성(본질성 결여)
 ⑨ 기타()

8.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운영 시기 ② 강사의 자질
 ③ 프로그램의 내용 ④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⑤ 수강생의 만족도 ⑥ 프로그램 관련 인프라(시설, 자료, 예산)
 ⑦ 담당자의 전문성 ⑧ 기타 ()

9. 귀 도서관에서 현재 제공 중인 것, 편성 비중이 높은 것, 이용률이 높은 것, 귀하께서 어린이·청소년 서비스로 공공도서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구 분		현재 제공 중 (모두 선택)	편성 비중이 높은 것 (1개 선택)	이용도 가 높은 것 (1개 선택)	필요성 이 높은 것 (1개 선택)
교육	1) 이용자 교육프로그램(도서관 견학·투어,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 등)				
	2)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3) 외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독서	4) 책 소개, 북 큐레이션(권장 도서 선정 및 전시)				
	5) 책 읽기 프로그램(스토리텔링, 동화구연)				
	6) 독서교육 프로그램(독서 관련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7) 독서 동아리(독서 토론 등)				
	8) 독후활동(독서 연계) 프로그램((예: 독서 후 만들기 등 독서 체험활동, 독서신문, 독서 논술 등)				
문화	9) 문화강좌·강연(교양, 문화 관련 강좌, 인문학 강연, 작가초청 강좌)				
	10) 문화·예술 전시 및 행사(영화 상영, 전시회, 공연, 연극 놀이 등 문화프로그램)				
진로	11) 진로 지도(진로 체험, 취업 및 대입 정보 지원 등)				
첨단 기술	12) 창작·체험 활동(AR/VR, 메이커스페이스, STEAM 등)				
	13) 모바일 서비스(게임, 코딩 등)				
기타	14) 도서관 봉사 동아리(청소년 사서체험, 청소년 진행 도우미 등)				

※ 다음은 **도서관 운영의 애로 사항 및 정책 욕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0. 다음 중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제공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도서의 최신성과 다양성 | ② 도서 관련 정보(권장도서목록 및 주제별 도서 리플릿 등) |
| ③ 독서 프로그램 | ④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
| 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 ⑥ 도서관 이용 안내문 및 매뉴얼 |
| ⑦ 기타() | |

11.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수행 시 귀 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
| ① 예산 | ② 인력 | ③ 서비스 공간 |
| ④ 사무실 면적 | ⑤ 시설 및 설비 | ⑥ 타 기관 간 네트워크 |
| ⑦ 서비스 이용자 확보 | ⑧ 이용자 요구 (만족도) | ⑨ 기타 () |

12. 귀 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상 애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 | ② 전문 인력(사서) 부족 |
| ③ 예산 부족 | ④ 담당자(사서)의 전문성 부족 |
| ⑤ 기관장의 의지 부족(인식 결여) | ⑥ 외부 강사 선정 및 수급의 어려움 |
| ⑦ 프로그램 홍보 활동의 어려움 | ⑧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 |
| ⑨ 기타() | |

13. 향후 귀 도서관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예산 증가 | ② 새로운 공간 확보 및 공간 리모델링 |
| ③ 인력 충원 | ④ 프로그램 지원 |
| ⑤ 신기술 적용 설비 구축(인공지능, AR, VR, 1인 미디어실 등) | |
| ⑥ 도서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 ⑦ 기타() |

14.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어린이·청소년 이용자의 관심 | ② 지역주민(학부모)의 관심 |
| ③ 지자체(교육청)의 예산 지원 | ④ 어린이 전담 인력(사서 및 사서보조 등) 지원 |
| ⑤ 외부 전문가 및 강사 지원 | ⑥ 어린이·청소년 전용 공간 확보 또는 확대 |
| ⑦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 자료 | ⑧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
| ⑨ 기타() | |

※ 다음은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15. 귀 도서관에서는 다음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학교 및 기관 연계 프로그램 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향후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 분	서비스 제공 여부		서비스 필요성				
	있다	없다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1) 장애 어린이·청소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한부모/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 (소년원, 그룹홈, 고아원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학교밖 어린이·청소년 (학업중단, 가출 청소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6.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시행했거나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귀 도서관에서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아 제공하고 있습니까? 향후 관련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구 분	사업시행여부		사업 필요성				
	있다	없다	전혀 필요 없음	필요 없음	보통	필요 함	매우 필요 함
1)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제작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독서 및 독후활동, 공연 관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지역아동센터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찾아가는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쉼터,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책 읽어 주세요 (일반/취약계층 아동 책 읽어 주는 자원봉사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초·중학생 청소년 북토크(독서교환권) 지원 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소년원과 자립시설 등 위기청소년 대상 독서치료, 문화예술치료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농산어촌 청소년도서관의 보물상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7. 위에 언급한 사업 이외 귀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

18. 귀 도서관에서는 향후 다음의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

- | | |
|-----------------|------------------------|
| ① 장애 어린이·청소년 | ②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
| ③ 다문화가정 어린이·청소년 | ④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어린이·청소년 |
| ⑤ 보호시설 어린이·청소년 | ⑥ 학교 밖 청소년 |
| ⑦ 계획 없음 | ⑧ 기타 () |

19. 귀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문제점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시설 및 설비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인력(사서)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예산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담당자(사서)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5) 기관장의 의지 부족(인식 결여)	①	②	③	④	⑤
6) 장서 및 콘텐츠 부족	①	②	③	④	⑤
7) 프로그램 홍보 활동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이용 대상자 부족	①	②	③	④	⑤
9)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	①	②	③	④	⑤
10) 취약계층 노출에 대한 우려	①	②	③	④	⑤

20. 향후 도서관에서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새로운 시설 및 설비 구축	①	②	③	④	⑤
2) 전문인력(사서) 충원	①	②	③	④	⑤
3) 예산 증가	①	②	③	④	⑤
4) 담당자(사서) 전문교육	①	②	③	④	⑤
5) 장서 및 콘텐츠 확보	①	②	③	④	⑤
6)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①	②	③	④	⑤
7) 추가 공간 확보	①	②	③	④	⑤

<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전 경 숙(평택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이 지 연(연세대학교 교수)

: 최 영(중앙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최 수 현(평택대학교 박사과정)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정책개발 기초조사 연구

발행인 박 주 옥

발행일 2023년 10월 27일

발행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Tel. 02)3413-4800 Fax. 02)3413-4759

인쇄 디자인 채움 (Tel. 02-786-092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978-89-6032-434-3 (93020)